

# 壇君論

(一)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一、問題

朝鮮이 東亞最古의 一國으로 壇君이 그 人文의 始原이라 하는 것은 鮮人의 史前부터 傳信하는 바이다. 遺文이 簡約하여 그 詳을 알기 어렵으나 朝鮮民族의 淵源과 文物의 來歷을 오직 여러 徵考할 實地를 들지 아니한 遺珠기에 더욱 그 보배로움을 볼지니 學者

置가 正히 民族及文化流動의 幹線에 當하여 四方의 風雨가 吹개 漲痕을 留기 留를 留스니 壇君이 어찌 朝鮮史만의 問題며 朝鮮이 어찌 東洋史만의 問題라 大抵 東洋의 文化는 人類의 歷史에 잇서서 다 量으로 그 強半을 占할 뿐 아니라 또한 質로 그 源頭를 作하는 者어늘 進歩한 學의 蹊跡가 아직 汲히 이리도 汲지 못하 아 人類의 文化史 一 오허려 半數의 그 源을 汲지 못하니 西國의 學界 東洋學의 振興에 用意을 具스 難하 然은 實로 이를 汲미 汲음의 度아 나면 支那를 生각하여 印

도 그 以前과 以外에 汲지 못함을 成果 一 尙상 努力을 酬치 못하 는 憾이 잇고 東洋의 學者 一 또 한 傳統의 成見으로 支那에 對해 서와 近代의 學風으로 西人에 對해 서의 二重의 事大精神에 繫縛되어 서 支那本位의 摸索에 서 能히 寸步를 옮기지 못하니 此 眞正한 東洋學의 建立은 前途 오허려 遼遠함을 느끼게 한다

東洋이 본래 印度나 支那만의 것 이 아니오 文化 一 반드시 印度의 이나 支那의 이래야 할 것 아 아닐 印度又 支那에 나리 지 아니하 는 注意가 그 以外의 方面으로도 向함이 眞실도 當然하니 그러면 眞正히 想起된 것은 印度及 支那의 對手요 民族學의 處女로 잇는 그 北方一帶의 여러 生活群일 것이오 한 번 손을 帶細 亞北系 文化의 探討에 大려 할 것 大橫으로 數萬里를 濶攪하고 繼

으로 累千年을 一貫히 文化의 津梁이 오 歷史의 氣流中心이 朝鮮은 正히 그 源委 審明과 性質 剖檢의 基準材料일 實地를 들지 아니하야 朝鮮은 다만 東洋史에 서 연아니라 人類文化의 形實을 밝히는 上으로도 다 찬 가지 宗要로 關鍵을 짓게 된다 然데 朝鮮 歷史의 出發點이 오 中心事實인 것이 壇君이라 하면 壇君의 學的 意義와 價値가 如何한 重大하지 아니하냐

壇君이 東方文化란 것이 무엇인 가 東方文化의 主軸이라는 支那文化란 것은 어떠한 運路와 因緣으로 成立된 것인가 東方文化의 內容이 支那以外 又 以前의 무 엇을 含有하였다 하면 그 本質、範圍、歷史의 意義가 어떠한가 東方文化又 亞細亞文化의 人類的 關係는 그 端緒를 那邊에 求할 것인가 等問題는 自體의 潛光과 支那의 反射로 比較的 明白한 繼續的 證斷을 가진 朝鮮에 그 門路를 차질 것이니 朝鮮의 傳說、遺俗과 및 其 關한 文籍은 어떤 處에 特別한 細心과 虔誠으로 勿處

理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壇君古傳가 들 것도 疎略하면 疎略할 수록 片字隻句에 深密한 注意를 더해야 할 것이오 疑駭하면 疑駭할 수록 障翳을 헤치고 眞面을 찾기에 篤摯한 努力을 바칠 것이오 實事不幸히 그것이 架空 鑿虛한 後代의 浪說일지라도 行여 映像되었을 가하는 古意를 檢索하기에 可能을 다 한 뒤에 말 지니 壇君은 實로 茫茫한 東洋學 文化의 盲龜가 그 浮沈을 오로지 이에 判斷할 것이니 비록 變遷치 안코 할 것 업을 지라도 오허려 遽然히 廢擲하지 못하려 든 好불 며 渾然한 璞玉이 실상 寶光의 숨 은 眞實에 아하 불며 一篇 壇君의 簡素한 古傳이 東方文化의 全斑을 炳然히 顯揚하고 남음이 잇음이 然라 故 皮學 直한 學者 良心은 이 한구멍을 通하야 덕택히 支那印 度以外 又 以前의 大文化相을 데 미다 볼 것이다



# 壇君論 (三)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아하느는一篇을 魏滿朝鮮以下餘 韓三國等の建國說話와 한가지 收載하였다. (引用文中의單括 弧內는原文의割註요, 複括弧內 는述者의添入한것). 頭尾에引 用한漢籍은如何하였는지 그古 記를引用하며 自己의意見은 반드시 割註로攪入한것만으로 도 그原文尊重의意를보려니와 더욱唐堯五十年의 干支를辨訂 한句語로외 遺事撰者의이籍에 對한態度가 어찌케虔肅한것을 짐작할것이다. 또『遺事』는그名 어가치三國의그것을 採收하면 그만이오미상불『史記』가三國以 前의古記에미칭이어는은 상포 등그名義에泛濫하기를 避한것 이겠지마는『遺事』는그대로限

定한題號의 下에그以前の 모 든建國傳說 外지를綴拾하였음 도適足히외撰者가 다만이것저 것을蒐羅하려는 以外에다른意 思가잇지아니함을 察할일이 다

### 三、準根本徵憑

다시準直接徵憑과 池古徵憑으 로認할者의 主要한것을便宜上 미리揭出하야 두자 金富軾의 三 國史記에는

〔卷第十七、高句麗本紀第五、 東川王〕二十一年春二月、王 以丸都城、經亂不可復都、築 平壤城、移民及樹桓平壤者本 仙人王儉之宅也、或云王之都 王儉、

의文이잇스니 王儉의名이보인

最古의文籍이오 鄭麟趾等의高 麗史(西紀一四五一年撰成)에 는

〔卷五十八、志卷第十二、地理 三、豊州〕儒州本高句麗國口、 高麗初改今名、顯宗九年來屬、 廢宗元年置監務、高宗四十六 年、以衛社功臣成均大司成柳 璥內鄉、陞爲文化縣令官、別 號始寧(成廟所定)、有九月山 (世傳阿斯達山)、疰在坪(世 傳檀君所都、即唐莊京之訛、 三聖祠(有檀君檀雄檀君祠) (同、西京) 平壤府本三朝鮮 舊都、唐堯戊辰歲、神人降于 檀木之下、國人立爲君、都平 壤、號檀君、是爲前朝鮮、周 武王克商、封箕子于朝鮮、是 爲後朝鮮、逮四十一代孫準時 有燕人衛滿、亡命來寓于餘人 來奪準地、都于王險城(險一 作儉、即平壤)、是爲衛滿朝鮮

의文이잇스니 高麗史는 高麗 國史記에 依據한撰述 인즉이

로보아 無妨한것이오 遺事의

檀字가 檀木에因하야 檀字로 고치릿음을注意 할것이더이보 담差先하야는 太宗朝에權近李 詹河崙等이承命 撰輯한東國史 略에

〔卷之一、檀君朝鮮〕東方初 無君長(只有九種夷)、有神人 降于太白山(在今寧邊府、即 妙香山)檀木下、國人立爲君 (唐堯二十五年戊辰)、國號朝 鮮(在東表日出之地、故曰朝鮮 案隱曰以有山水故名)、都平壤 山(爲神、是爲檀君(名王儉、 古紀云、檀君與堯并立、至商 武丁八年爲神、壽四千十八、 然權近應襲詩曰、傳世不知幾 歷年會過千、蓋傳世歷年數、 非檀君壽也)、

의文이잇스니 이것은그以後의 編史者의襲用하는바 一되어 近 代朝鮮人의檀君觀念을 構成 한要文이오 더욱權近的應襲詩

聞說神荒日、檀君降樹溪、 位臨東國土、時在帝堯大、

傳世不知幾、歷年會過千、 後來箕子代、同時號朝鮮、 은禡王時에明에가서 明太祖의 檀君이란出題에應한것이느 麗 末摺紳의사이에 傳信하든檀君 的內容을 짐작할것이더高麗史 보담差後하야는 世宗實錄卷第 一百五十四의地理志、平壤의條 에몬키麗史地理志와의 同文을 掲出하고 다음이

檀君祠、在箕子祠南(今上十一 年己酉始置、與高麗始祖東明 王合祠、檀君在西、東明在東 皆南向、每春秋降香祀致祭 禮記하고 그다음 靈異의項에

檀君、古記云、上帝桓因、有 庶子名雄、意欲下化人間、受 天三印、降太白山神檀樹下、是 爲檀雄天王、令孫女飲藥、成 人身、與檀樹神、婚而生男、名 檀君、立國號曰朝鮮、朝鮮、戶 羅、高麗、南北沃沮、東扶 餘、鐵與貊、皆檀君之理、檀 君聘娶非西神河伯之女、生子 曰夫婁、是謂東扶餘王、檀君 與唐堯、同日而立、禹會塗

山、遣太子夫妻朝焉、享國一 千三十八年、至殷武丁八年乙 未、入阿斯達爲神、今文化縣九 月山、

이라하고그下에『夫妻無子、得 金色蛙形兒養之、名曰金蛙、立 爲太子』로부터三國史記高句麗 本紀東明聖王之叙에 보인東扶 餘建國緣起와 舊三國史東明王 本紀를引하였다는 李奎報의東 明王薨에 보인天帝子解慕激故 事全篇을一連騰載하야 檀君의 本支를 밝히었스니 이것은現存 한檀君傳의 中에가장形體의 具足한者로어떠케로나 注意에 值하는것이오 그中에서도孫女 이논에의온다.

檀君古傳의內容은거의上例의 程度에그치고 그以來的文籍은 東國通鑑外紀以下가總히 廣略 이이에局하고는非도이를準計 게되엇스니 다시 煩提할要가 없스며 其他間接徵憑일者는論 意的進함을달하서 必要한곳마 다引用하기로하자

# 壇君論 (三)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四、神怪的說相

壇君의 古傳은 이와가치만호神 怪의 分子를 먹음에 일남의 信 認을 얻기 어렵음의 事實이니 古 來로 常識의 速斷으로서 그 事實 的 誕妄을 論하는 者一 尙치지아 니하야 甚한즉 그 主體인 壇君그 의 存在를 疑하게 하지됨이 外 답은 것이 아니다. 더욱 驗證으 로부터 穿鑿에 사지게 된 近代의 學風에 漸染된 者는 그 虛漏한 一 隅을 窺보아 커 댓자 곳자 抹削의 術杖을 卮두르려함이 어차신 각하면 怪異치도 아니하다. 그 러나 探史에 이치외 信치못 할것을 信함과 信할것을 信 치아니함과 의 相距는 진실로 一

髮의 동안에 지나지 아니하여 크게 學者의 戒心을 要할 者一 잇 나니 특히 晦古한 事實을 文獻 的으로 考究할 때에는 자칫하면 苦를 보고 石을 나커 버리기 쉬 움을 생각지아나치 못할 것이 다 釋迦와 基督의 多輕妄한 近代 學者의 손에 한 번 식 必無를 斷하 게 되고 東洋으로 말하여도 葬殮 禹로부터 老列까지 다 存外 外 로 拋出되는 厄을 免하지 못하여 正히 古代史의 域을 인문 天荒에 附擲하지아나하면 말지아나하 러는 概를 示하나 『베레』의 나불 려운 抹削論을 讀할진대 어떠한 心을 用한 者의 氣概는 勇氣라 도 한번 用할지아나치 못할

것이 적다 할 것이다. 넷 일을 말하기가 엇지 쉽다 하라. 월맹의 의 잇는 일이면 말로 어차 업되질 것이라. 시방까지의 壇君傳을 傳하는 그 대로 불양이면 아모리 두던 하야 말하야 도 그것의 一神話요 一傳說 이오 歷史의 信文이 아님이 母論 이다. 그 神怪한 話意를 가 커 다 가 그대로 史實로 觀하고 史蹟으로 化하는 아모리 도 생각할 일이 아 닌 것이다. 그러나 나의 불음으로 는 그 神怪하야 實際스런지 못한 點이 아 말로 實學의 興味가 들 리는 바이오 兼하야 그 自體의 年 代的 支柱를 지어 처 처어도 그 古 古意로 의 生命을 保持하게 되 는 金剛座니 시방사람으로 보 아 처 및지 못하겠다 할 것이 가 內 문에 古人의 밋든 것이오 도로 현 實에도 지고 古人의 밋든 것이 가 外 史의 遺珠, 그 리쳐 못하야 도 人 類學의 民族學의 新光이 期待되 는 것이 아 혹시라도 이것이 美초 로 一神話—古代의 一民衆詩 一 原始哲學임에 그치지아나하

고 確實한 事實의 背景을 가 커 처 열다 만 콤이라도 歷史의 暗黑을 쓸어헤치는 도음이 된다 하면 이 것은 도로 希望外의 所得이라고 도 할 것이다. 神話를 觀察함에 그 법이 또 한 만 하니 닐은바 『어이메로스』法으 로 人事의 解釋을 試함도 그 한 아 이오 『마스몰러』와 가치 言語的 解釋을 用함도 그 한 아 이오 그것 을 事物의 表象(比喻)으로 볼도 한 아 이오 儀式의 說明으로 볼도 한 아 이오 또 最近에 처와 가치 心 理學의 人類學의 檢討를 더함도 有力한 一方法이 지마는 어떠한 事物의 發展及 成立에 든지 普遍 性과 한 가지 特殊相이 잇는 것이 오 그중에도 神話는 어니 民族一 時代에 잇는 最高知識의 統括的 表現이기 때문에 그 過程과 成立 條件이 더욱 各異相不同할 것을 考치키는 것이다. 그럼으로 劃一 的 說明의 감으로서는 어떠한 方法 의 든지 美善할 수 없는 同時에 各 別한 方面을 밝히는 上으로는 어 何한 方法이 든지 適用되지 못할

것이 업을 것이다. 더욱 壇君傳과 가치 본대부터 常識의 氣味가 勝 하고 오래 歷史의 洗練을 經하야 事實의 背景을 多分으로 包有한 者를 解釋함에는 그 本質이 美 초로 神話가 아나 만콤 그것을 考察하고 說明하는 方法이 특히 單純하기를 期할 수 업을 것 이다. 그러나 요사이 日本의 學者는 壇君이라면 의례히 根據가 업스 리라는 豫斷을 가진 드시 덩허노 코 抹削하기 에 힘을 써서 아올려 그 神話의 本質과 古傳說의 存立 外지를 拒否하야 許多한 證據 를 우리 의 앞헤 提出하얏나니 만 일 그 論證의 理由잇는 것이오 그 리하야 壇君의 本地가 究竟은 夢幻과 가든 것일진대 이레니커 러니 虛空에 팔을 내두를 必要 가 업을 것이 매 所謂 抹削論의 根 據如何를 檢察함이 아모것보 담압되는 일이 아닐 수 업을 것이 다. 그리하야 그 存否가 判斷되키 라야 說明과 說明의 方法이 비로 소 問題가 될 것이 다. 어찌 그네의 所說을 드러보자

# 壇君論

(五)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五、僧徒妄談說

外國人으로서朝鮮의古史에對하  
아學的檢討를試한者는 日本의  
那珂通世로勿嚙矢를치는다 那

珂는日本에이치서 東洋史의先  
覺으로 精緻한學風을가진것은  
一篇의『遺書』에 넉넉히徵할것  
이오 그朝鮮古史考와 같은것  
도실로 周到愼密하야사방까지  
朝鮮史唯一의好津梁을 짓는것  
이다. 다만氏의 文獻偏重의病  
은材料難備의恨과並하야 最大  
關節일壇君에서 不慮의龜肉을  
보이고 그것이뜻밖게朝鮮歷史  
의出發點에對하야 正當한見解  
의發育을 阻礙하는因이되다십  
하한것은 氏에게이치서 일류  
한通譯라고도할것이다. 그는古

史考에서 朝鮮의古事를史記以  
下漢籍을依하야揣摩한後, 附說  
비스듬히 三國遺事의文을引用  
하고 評斷을加호며

檀君의名을王儉이라고한것은  
平壤의舊名인王險의險字를人  
扁으로改한것이다 此傳說은  
佛法東流의後에 僧徒의捏造  
로되出한妄談이오 朝鮮의古  
傳이아닐은 一見에明了하다  
麗紀, 東川王二十一年, 築平  
壤城, 移民及廟社의下에 『平  
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라한것  
은王儉은列仙傳中의人物로보  
고 開國의太祖라고는보지아  
니한故로 檀君之故都라고니  
르지아니하고 仙人之宅이라  
고한것이니 斟酌하는書法이

다

하고 東國通鑑의外紀에라도이  
것을을린것은 僧徒의妄談을歷  
史上의事實로看做한것이라고  
難하고 다시後世僧徒의妄談에  
對하야역지로理解를 下하려함  
은 甚히無謂한일이라고斷하얏  
스니 이는실로壇君이日本의學  
界에서 排斥을受나든最  
初의動機요 因하야朝鮮으로하  
야 古歷史의無頭鬼를 作하게하  
야마출내 全東亞文化의淵源外  
지를오래도록黥昧의域에投케  
하든始初이니 氏의모처럼큰功  
績도이錯見한아를 憤할만한지  
가의심스럽다 할것개어스름고 못  
내遺憾스리은일이다(一)

那珂氏의泛視輕論한뒤를나어  
서 壇君說의無據한것을立證코  
자한者는 白鳥庫吉의『朝鮮의  
古傳考』나 그는문자文字以  
前의口碑는年所를 歷하는대로  
妖談怪說이附着하야 荒誕의團  
塊를이루거나 不然하면學者僧  
侶의輩가故意로 怪談을지어서  
古來의傳說이라고僞稱하고 혹  
은傳來의口碑를자가의想像의

改竄하야 앗가운古傳이 그中에  
埋沒하버리는例가不少하니그  
럼으로古傳說을 研究함에는상  
심하게事態의黑白을 辨別하야  
어려한部分이 그古傳이오 어  
려한部分이 後世의架構인것을  
看破하야하지 不然하면眞僞를  
倒見하고 純駁을誤解하야 紕繆  
를千古에傳하리라고 戒飭하고  
그適例는朝鮮의古傳說이오朝  
鮮의古傳說中에서도 가장妄誕  
을極한것이 檀君의傳說인데 그  
妄誕한本色을가장화하게 窺見  
할것이三國遺事의文이다 하고  
인하야 那珂氏의說을引用한뒤  
에

나도此傳說에對하야(那珂)氏  
와見解를한가지하는者이다다  
만氏는이것을僧侶의妄談이史  
學에益이없다하야 妄說放  
해버렸지마는 나는이妄說에  
는 妄說인만한結構와工夫가  
있다고認하며 또다른傳說과  
連關하야 多少의事實을發揮  
할만한을信하기로 구래穿鑿  
의勞를쓰리지아니한다  
하고 다시張泉한辨證을試하얏

다(二)少年氣銳만하얏지 學  
이나識이今日과는 斷斷인성부  
를當時(甲午年)의論을 三十餘  
年後시방다시 提起함이 혹시  
氏의不屑할말이지는 모르겠  
지마는 氏의見解는合理的으로  
進展하얏을지라도(三)氏의  
此論이아직도 壇君에對한一言  
杖으로 各급이오너러이매 그  
必要한部分을 잠시引用하야  
두자.

(一)史學雜誌第五編二八三頁  
以下(第四號四一頁), 又『那  
珂通世遺書』中『外交釋史』  
七三頁以下(第八章朝鮮樂  
浪帶方考)  
(二)史學雜誌第五編九五〇頁  
以下(前年末의學習院輔仁  
會雜誌에別로檀君考의詳論  
이있다함)  
(三)十許年前의京城日報日曜  
附錄에 白鳥氏의談이라하  
야揭載한檀君說에는 檀君  
은高句麗人의樹木精靈崇拜  
思想으로서脫化하야온것이  
란것이잇스니 이는傳說考  
當時의見解와는약간遷就한  
자치를들것이다.

# 壇君論

(六)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白鳥氏는 이르되 —  
 大伯山은 平安道에잇는今의  
 妙香山이니 妙香山은東國輿  
 地勝覽에 『妙香山一名太伯山  
 古記,其山有二百六十菴,李穡  
 記,香山在幅綠江南岸平壤府  
 之北,輿遠陽爲界,山之太莫輿  
 之比面長白之所分也,地多香  
 木冬青,而仙佛遺迹存焉』  
 (1), 이라하얏는즉넛날佛法  
 이隆盛을極하얏슬때에는 堂  
 塔伽藍이유마름을나어서 하  
 참더들식하얏슬것이다. :古  
 記에檀木이라한것은 此此山

中에나는香木을두고하는말이  
 니이것을檀木이라稱함은 을  
 고지天竺의牛頭旃檀에擬한것  
 이다.牛頭旃檀은 觀佛三昧海  
 經에『譬如伊蘭與旃檀,生此利  
 山中二仲秋月滿,罕從地生,  
 成旃檀樹,衆人皆聞牛頭旃檀  
 上上妙香』이라한것이니 太伯  
 山을妙香山이라고稱함은 眞  
 시此香木을産함에因한다  
 하고 妙香의名이佛籍中에외집  
 어넛것이라하야 華嚴經, 正法  
 念經, 智度論, 西域記等の摩羅  
 耶山旃檀香에關한 文憑을列錄  
 한뒤에

因하야按하건대 此傳說(佛  
 侶의虛誕에成한것으로 伯  
 山의香木을産하기때문에이  
 것을印度의摩羅耶山에比호  
 그香木을牛頭旃檀에擬하  
 그대서此樹下에降한것을佛  
 로하야 檀君이라는架空人  
 物을案出하얏것이다. 高麗史  
 地理志에『江華縣西摩理山,  
 有聖星壇,世傳檀君祭天壇  
 라고한것을보면 누가檀君  
 本來旃檀의精靈임을의심하  
 牛頭旃檀은佛菩薩에게가잡  
 綠이잇는名木이니 : 僧侶  
 徒가이靈木을神人이라하야  
 開國의始祖로仰하얏슴도  
 理는아니다. 釋提桓因(天  
 釋)을 檀君의祖父로定한것은  
 『阿毘曇』의中에帝釋의二太  
 旃檀修職羅란것이잇슴을  
 여긔서는조공된르려서 檀  
 이帝釋의孫이라한것이오  
 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

餘事』라한것은 雜阿舍經에  
 『有一比丘問佛, 何故釋提桓  
 因, 答曰, 爲人時, 行於頓施, 堪  
 能作主』라한것을 附會한妄說  
 로봄이不可치아니할것이다  
 하고 다시論步를내켜서  
 檀君의祖先은上來에적엇슴과  
 갓거니와 檀君子孫의일은三  
 韓古記에 『檀君生子夫妻, 是  
 爲東扶餘王, 至禹會諸侯於塗  
 山, 檀君遣夫妻朝焉』이라하  
 고 檀君의夫人은 檀君之後,  
 有解夫妻, 夫妻禱於鯤淵, 得  
 金蛙, 以類金蛙, 名曰金蛙, 悅  
 優渤水女, 感日影照身, 生朱  
 蒙』이라하얏스니 이것은三國  
 史記의高句麗本紀에載한朱蒙  
 의傳에照合하야 그系譜를考  
 하건대 朱蒙의養父는金蛙요  
 金蛙의養父는夫妻요 夫妻의  
 實父는檀君이될것이다. 그리  
 면檀君은朝鮮國의祖先이아니  
 라 高句麗一國의祖先임을알  
 것이다. 하물며 檀君의降臨

한太伯山이라든지 그都한平  
 壤이라든지 그神이된곳인阿  
 斯達山이라든지 檀君高句  
 麗의領內에잇슴을어울려생각  
 해서는 더욱그高句麗의始祖  
 이줄을넛넛히證할것이다, 아  
 니高句麗의祖先이라고 그나  
 라의僧侶輩가假作한人物이라  
 고解釋할것이다  
 하고 다음朝鮮古代의國祖卵  
 生說話 — 朱蒙, 首露等의事蹟  
 도總히佛說에 依托한想像談임  
 을일는看破하리라고 斷定하엿  
 다. 그理由로는 卵生이佛說四  
 生의一에잇슴과古記中에 나오  
 는迦葉原, 阿蘭弗等名句와 金  
 首露와脫解가關係가되고 雀鷓  
 이되어서 서로秘術을거누는一  
 段說話가總히 佛典의인等을들  
 엿다.

이를朝鮮史의 첫머리에언집  
 은경김學者의독독지못한 표적  
 이될듯하고 그러라고開國者를  
 臆할수없스매 箕子로써 朝鮮  
 의國祖임을 그네의東洋史에적  
 게되고, 箕子도假想의人物이라  
 는論이 白鳥氏를말미암아서提  
 起된뒤에는 史漢兩書의 朝鮮  
 列傳을그대로 衛滿이朝鮮의發  
 見者비스름한 地位를가지는奇  
 觀을呈하게되엿다 혹시西國의  
 史家가 四百年前에 日本에航  
 至하엿든핀로로써 日本의發  
 見者라하는것을 徹底히遵守하  
 야 그以後의 事件만을歷史的  
 事實로대칭한다하면 그것은어  
 더게우습다할는지 모르것지과  
 는 日本人은도모히이웃집朝鮮  
 의歷史에이런 無識한것을하라  
 고들미그壇君抹削後의 朝鮮史  
 敘述套이다  
 白鳥氏引用文中의明白한誤字  
 로認한것은總히原典에依하야  
 改訂하다

# 壇君論 (七)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七、王險城神說

이만하면엿갓거니하매日本의 學界에는 다시檀君에關한考說 이나잘알아업시 한동안은지 나있더니 朝鮮史를專門으로하 는今西龍이出함에밧쳐 前兩說 의差개를 한번더조지는소야가 가併合이라는복새를機緣으로 學界에나나게되엇다.그明治 四十二年十一月發行,『歷史地 理』의朝鮮號에揭載한『檀君의 說話에對하여』란論文이 그것 이다.그는본키檀君說의妄誕의 那珂氏에게 論證되고 佐白鳥 氏를말미암아서그것이 어떠한 佛典을가지고 結構된것이明白 하아엇거늘 이것을모르고當時 의그네중에檀君을 日本의어느

名이라고解할맛게임는데 그 러면王儉이란것이무엇이나 고하여 王儉이이수수석기의승 으므로의의를認한모양이다 王儉 觀은 兪그의檀君觀으로그見解 가이러하다

神格과合祀하려는妄學가 잇슴 을慨嘆하고 進歩한眼孔으로 檀君을보아가로매 檀君의記事는三國遺事에出 할이始初이니... 本書의記事 는魏書及古記의두군대서轉載 는것비스름하지마는 魏書에 는母論이오 다른支那의史籍 에도보이지아니하얏스며 仁 宗朝鮮特의神話로 三國遺 事는當時世間에行하든此傳說 을錄한일것이오 僧一然의創 作한說話는아니다.此記事의 中에注意할것은 題目의注에 檀君朝鮮이라고하지아니하고 王儉朝鮮이라고하얏슴과 檀 君王儉의四字인니 檀君王 儉의檀君은尊稱이오 王儉은

名으로變遷하얏다 하야 仁宗廿三年撰三國史紀인 麗紀東川王二十一年의 文을引 用하고 이미丁氏도說한것처럼『改險 爲儉既甚穿鑿』일것이오檀과 壇과檀과一자로通用된것처럼 險과儉과一通用되었을면이지 이맛게意義가있다해도可하다 要한건地名의王險이仙名의 王險이되엇다 兪高句麗末에 國都인平壤의最古名으로미더 지든王險이란말이 悠久한歲 月과 그地方民衆의流離와變 換과로말미암아서 그傳說이 歪訛하고 漸次로그意味를轉 하야 마츨너王險即平壤이草 創한仙人에게付하는名字가되 었다 仁宗王의當時에此種의 仙人이平壤地方에尊崇되어잇 짓든것은 高麗史卷百二十七 妙清傳及東國通鑑仁宗王九年 의條에 云云이라함으로알것 이니此等仙人은佛敎도어人民 의胸裏에消除不得한 邪神이 高麗朝의中頃에는 이미仙의

名으로變遷하얏다 하야 仁宗廿三年撰三國史紀인 麗紀東川王二十一年의 文을引 用하고 이미丁氏도說한것처럼『改險 爲儉既甚穿鑿』일것이오檀과 壇과檀과一자로通用된것처럼 險과儉과一通用되었을면이지 이맛게意義가있다해도可하다 要한건地名의王險이仙名의 王險이되엇다 兪高句麗末에 國都인平壤의最古名으로미더 지든王險이란말이 悠久한歲 月과 그地方民衆의流離와變 換과로말미암아서 그傳說이 歪訛하고 漸次로그意味를轉 하야 마츨너王險即平壤이草 創한仙人에게付하는名字가되 었다 仁宗王의當時에此種의 仙人이平壤地方에尊崇되어잇 짓든것은 高麗史卷百二十七 妙清傳及東國通鑑仁宗王九年 의條에 云云이라함으로알것 이니此等仙人은佛敎도어人民 의胸裏에消除不得한 邪神이

야다 그리고仙人王儉이또한太 伯仙人,平壤仙人의類거나 仁 宗中무엇의別名이거나를設想 하고 檀君의名이三國史記,高 麗圖經等書와 西京의八仙人中 에도 보이지아니함은當時에檀 君의稱이잇지아니하고 오직仙 人王儉이잇슴을따름이故요 王 儉仙人은本명王險城의 神일디 름일것을論하고서 以上에說한바를總括하건대高 句麗時代에는 平壤의古地名 으로傳해든王險이 高麗朝의 初頃으로부러 王儉仙人이되 어 仙人王儉으로轉하고 平 壤開基의仙人의實名으로變한 것에 高麗朝의半쯤지나서檀 君이란尊稱을바쳐서檀君王儉 이라하야 朝鮮創始의神人이 라고한것이다 李朝의諸記錄 이인듯檀君이라고만쓰고王儉 의名을附치아니함으로부러마 츨너檀君의號만이알려지고王 儉의名은나커버리게된것이다 라고結論하고 因하야檀君이 란이는日本에야모關繫업슴것 을말하얏다





# 壇君論

(九)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 九、民族的感情說

三浦氏는 다시竿頭의 一步를

내켜서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朝鮮에  
서 檀君崇拜가 隆盛한 때는 그  
獨立自尊心이 旺盛한 것이다  
하고 인하여 朝鮮人이 古來로 支  
那人에게 禮儀之國이라는 待  
接 받는 것을 조고만 자랑거리  
로 알았었는데 支那의 使臣이  
京城 오는 길에 平壤을 지나다가  
箕子의 墓를 찾자 彼處에 그 墓도  
修築하고 祠宇도 세운 것이 오 朝

鮮의 自發的인 아님을 말하고

此(箕子)祠堂에 檀君을 配享하  
게 된 후에는 箕子의 神位를 北에  
安하야 南面케 하고 檀君의 것  
을 東에 安하야 西面케 하얏지마  
는 어느 하나는 檀君의 것을 箕子  
의 것과 並列하야 가치 南面케 한  
일도 있다 이것은 事大主義로  
외終始하얏을 朝鮮人에게서 어  
을리지 아니하는 一種의 反抗的  
意味로서 온 것이니 鄭陟의 上  
書에도 詳細하게 這間의 消息  
을 말하야 있다 古檀君을 唐堯

와 並立하야 스스로 朝鮮이라

고 號한 것이 어늘 箕子는 武

王의 命으로 朝鮮에 封을 바닷고

도 時代는 千二百三十餘年의 後

인즉 朝鮮의 立國傳世의 先後로

말하면 箕子의 神位를 北에 置

하고 檀君의 것을 東에 置함은 當

을 失하얏다. 實사 檀君과 箕子

를 並列하야 南面을 식인다 할지

라도 檀君의 神位는 맞당히 上

에 置하고 箕子의 것을 그 次에

置함이 至當하다

고 하얏음을 말하고 그러나 箕子

는 朝鮮이란 일홈을 天下後世에

떠려서 檀君이 일홈을 아니라 箕子의

祠堂이라 하면서 檀君을 爲主함

이 妥當치도 아니하게 생각됨으

로 차라리 檀君을 爲하야 獨立의

祠堂을 建하야 그 神位를 南面케

하게 되 事情을 배 풀었다

이러한 事情으로 推察할지라

도 朝鮮이 北方支那의 移民사

이에 發生한 箕子傳說을 採出하

야 그 事大心을 表現식이면서

도 오히려 그 사이에 自不能抑

하는 獨立自尊心의 發作과 한가

지로 宗主國에 對한 약간의 反

抗心은 일히 커서 이것을 滿足

케 할 양으로 檀君傳說이 생긴

徑路를 認할 수 있다. 檀君으로

써 짓구지 唐堯와 同時代의 神

人이라 하고 또 스스로 朝鮮이

라고 號하얏다는 中에도 實히

데미다 보이는 作意와 감초다

못한 자량이 엿보이지 아니하

나 이 二種의 傳說은 도시 支那

文化가 濃厚한 北鮮地方의 것이

오 朝鮮固有의 韓民族이 棲息

하는 南鮮地方은 여 其 關與치 아

니 한다 그런데 南鮮地方에는

저절로 그 系統을 달리하는 地方

傳說이 存在하거늘 그것을 閑

却하고 前者만을 朝鮮의 開國傳

說이라 함이 不當함은 勿論이오

그 보담 韓新 蒼古한 日本의 神話

傳說에 가 커다 매어서 牽強附

會의 說을 弄하려 함은 論外의 것

이다 나는 이러한 意味에서 道

朝鮮歷史의 改造를 高調하고 싶

다

고 論을 썼었다. 老獯한 것은

이 三浦氏의 論法이지 마는 依然

히 主觀의 줄라기요 그 客觀의 眞

實性을 건드리지 못하기는 前數

者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三浦

氏의 見解에서 民族의 觀察의 步

武를 다시 내켜본 것에 稻葉岩吉

의 觀이 있스니 한번 어느 新聞紙

에 掲載하얏다가 뒤에 支那社會

史研究의 一部를 지은 朝鮮의 文

化問題 中の 所論이 그것이다

# 壇君論

(十)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十、民族的信仰說

稻葉氏は또한朝鮮歷史의發端을支那의 政治上의 失敗者가 半島로들어와 僑團을建設함에 두고夫餘族其他가 이漢僑의團部를攻破할때가 朝鮮이國家로 最強力이 되었는데를 말하고서 百濟와高句麗는同一族으로서 나옴關係上, 東明傳說을가져왔었다. 東明이漢字라고支那傳說을受入한것이라함은臆斷이다. 朝鮮의古代史를檢討해보면 彼等만큼卓越한國民이다시업슬것이 누고에게든지首肯되거니와 그根本을 생각해보건대 民族의信仰은 각각特色을가지고 그것을말

미암아서結束되었던것이 主要原因인줄안다. 三國의中外新羅는最後에現出한民族이지마는 역시卵生神話를支持하였었다. 三國이각구러지고 王氏의高麗가半島를야외부러統一한前代의傳說은漸次로그그림자를 숨기고 그를代한것이箕子傳說이다. 傳說을朝鮮人이自由로受入하였음에對하자는支那文化의東方傳播를顧慮하지안홀수업지마는 主되는것은王氏의高麗가 그國家를支持하는必要上으로 支那에附庸을求한것이였다. 朱蒙이나卵生傳說을가지고는 支那에

對한深交를바라기어려운데幸히箕子傳說이잇슴으로 그의子孫이라하는것이便宜로있다. 그래서平壤의西山에는얼토당토아니한箕子墓가나오기도하고 李氏朝鮮이된뒤에는 停車場附近에前代의都市비스를한遺址가눈에띄우매 그것을箕子の井田이라고擬定하였다. 말하자면此等鮮人의施設은前代의傳說의意義를確實하게하려는運動에不過한것이오 他面으로보면巧妙한外交的辭令이줄생각되지마는 그러나그것이朝鮮人의全體라고認하기는어렵다. 朝鮮人은箕子傳說의奉仕를支配者階級에一任하고 此로새로히氏族의信仰의中心을欲求하였는듯하니 檀君傳說이正히그것이다. 檀君傳說이前者는支配者階級の(國家的)對外的必要로公行하고 後者는民族的要求로社會의底面에 潛行하아나려오

다가 近來와서支那의權威가衰落하고 또併合에伴하여特權階級の消滅하는등에 檀君傳說이最後의勝利를어긋음을指摘한것外지는관계치안라할지라도至若 附庸傳說로解放되고獨立한民族信仰의中心으로發進하아가는朝鮮人의今日은 慶賀해아할것이毋論이지마는 傳說은어머가지든지傳說이오 歷史가아닌것에 理會가업외지는아니된다. 傳說에는信仰이大半이나加味되어서잇스며民族의將來를指示하고 그生活을規律할에는 不足할것이업슬지라도 그것만으로는民族成立의 由來조차 알수가업슬뿐아니라 日本國家의一員이라는理會를가지기不可能하야진다. 檀君을밧다가는 日本人노릇을못하리라는——우리로

는얼는想像도못할理由가 檀君抹削의一條件이됨에는學問의權威를爲하야 妥當한생각을자아내지안을수가업다. 그러나본대부러키네들의 檀君抹削의努力이대개 이러한範疇로써나옴이만흔것이아닌지가 이率爾한一句의中에 端倪가된다하면일변재미가잇기도하다. 稻葉氏는다른이분수로는 좀더虔誠한學的周旋을期待하였는데 이들만큼그도그구나하고말기가쉽습하다하지마는 그도日本人이오또그는官吏編纂의 責任者인것을생각하면 尙당그열일이것지하는생각이 나지안흥도아니다. 그는다시檀君信仰이 前舉한三個條의外에 己未獨立運動으로因하여 旺盛하아잇슴을말하겟스나檀君崇拜의業力이蓄積해서獨立運動에외지않것은그런대로承認할일이지는 獨立運動에因하여檀君崇拜이 増上하였다는것은本末을顛倒한觀察

이오 더욱獨立運動以來로急進에기울어지는 青年의사이야病든國際主義(人類主義)의擴布와한가지 國祖에對한 觀念이엿더케潛伏期로 向하였는지를생각하면 氏의이論이실상一場의漫談으로 본대부러離黃을더할것이 아닐는지도모를것이더더욱그새로부러 民族中心의傳說에因하는 歷史宣傳이盛行하야 民族의由來를無視하는變造的歷史가出來하였다하고 그標例로 不佞을指目하였슴에는아족외지淺學膚見을 不그려라라할條理의 史篇을맨든척이업는나로 애오라지悚縮하지안홀수가업다. 或시우리의意見이얼마쯤 參考가되었는지는모르되 좀그뒤에發表한다른文字에는 檀君古傳의根據에關하여 매우進境이잇는것을보아學과眞理를爲하야 피차반가운일이아님이아니었다. (一) 『朝鮮史講座』 中稻葉氏 『鮮韓關係史』 第二節參照

# 壇君論

(十一)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一 그官學的斷案(上)

日本人의朝鮮의權力(乃至學政)을잡아매아모것보단애은것이 朝鮮心에關한方針이오어더케하야 이것을抑制하고剪滅할가의問題이엇다 民族感情——오래오래浸漬培育된深根大樹가흔이것이라도權力의一蹴면 업는拔除하야痕跡업시하리라생각하엿다 民族感情의基源이歷史及言語에잇슴에念及한것은 그네의聰明으로 허람할일이지마는歷史는變造할수잇는것, 言語는絶滅시킬수잇는것으로알문아모리『사백』이노에가린그네의일이라해도 넘어道理를無

視함이클에 놀라지아니치못할것이엇다 그리하야일번朝鮮人에게는歷史的敎養에關한一切의機會를주지아니하는同時에 朝鮮語는公的生命은새로에 私的存立외지에도 可能한모든脅威를더하엿다 이리케함에는 軍人과俗吏의頭與手만으로는 만만히들여치아니할줄래다르매 自己네의形便에合當한 幾個의學者를더려다가는 『御用』을使命하려고하엿다 가령言語問題한아만가지고볼지라도波蘭에잇는普魯西의敎育制度가은것을調査하기는 그底意의잇는바를 얼는집작할일이지마

는 言語部面의備學者인金澤氏와가튼는者는 意外에朝鮮國語絶滅不能의論을가컷스니그가그만한學殖을가지고한참그政署及史人의사이에선더운한머침을받지못하고 필경驅托의소임외지호지브지된것이혹시어려한외담이아니엇슬는지모를것이다 歷史편으로말하면今西以下로더욱多數한사람을備聘하야爲政者의必要로하는朝鮮歷史의編纂을企圖하키半島史編纂會란것은실로이러한動機로시나왔든것이엇다 키네의政策이란것의根本的的錯妄으로우리는첫차自己네의主觀의무슨範型에 지엇것은지朝鮮人을들여너호려함을指摘하는者어니와 이態度를思想學術에외지가지고됨법에는 다른아닌그네의備學者들도 좀거북하얏든모양이다 半島史編纂이란것의어음을하고말기는 經費問題의맛게 學的

작지아니한理由이엇든모양이다 그러나今西나三浦니하는 이들이드나드는통에 달리는가룩한功績을 드러나게보지 못하겟스나 오즉한아壇君抹削이라는것이 確定的이게된듯할은 그네에게잇서서꽤큰 버리아님이아니엇다 己未年三一運動以後로 그네의眼翳가조공뱃겨켜서 온것것이다 좀變通이되는통에 朝鮮의歷史及言語에對한態度도얼만큼 다른範疇로외顧慮하게된듯한形迹도업지않코 새로나朝鮮史編修機關은 曾往보담宗學的의正當에接近하려는一發現으로볼것잇는지도모르코 또모처럼하는努力이 필경 『日本人의朝鮮史』가되고말지안키를 나는懇切히希願도하거니와 다만朝鮮國祖요 朝鮮心の源頭요 朝鮮學의上柱인壇君論에對한그네의見解와態度가어느程度만치의改訂을보게될는지는 이것이그네의가

장실혀하고거북해하는一物인만큼 宗의심스럽다고도할것이다 첫재는키네의생각에朝鮮을朝鮮心외지라도그래朝鮮學외지라도 한번다음대로해보리라하는 根本觀念은 아직도變換하야變함이업고(爲政者의)는이에게는 거의腫腫의痼疾이니와 말할것도업고 學者라는데게도 이것이民族氣質的社會雰圍氣的으로 潜在意識비스름하게잇서서 참으로圓轉과灑脫을期하기어려움이 다른모든것에서와가치 學的領域에서도그러하고) 둘째는아모리케하든지 一種의論理的사계를마초아서 錯覺이든지妄斷이든지여하간抹削은분명되엇느니라하게되고 또이것이그네心中의깊히希期하엿든것인만큼 아모에게든지그만示唆的의成見이되엇스니와 이業識을轉하야 眞如의하늘에自由로운翱翔을試함은 아마쉬운일이아닐것이다

# 壇君論

(十二)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十二 그官學的斷案(中)

그러면그네들이 들이던바외  
가진애를다외쳐 『오귀시열』  
斷案으로만드리는것은 어찌  
한가 이것을大正十二年三月  
朝鮮總督府發行『普通學校國  
史教授參考書 朝鮮事歷教材』  
란것에就하여 삼히건대箕子  
의일을적은뒤에——  
朝鮮半島에서立國한者의가장  
예로부터傳하기는 前에적은  
箕子로대 또그以前에檀君이  
란者가잇섯음을 往往히信하  
는者가잇기로 此處에一言코  
하고외

대개檀君에關한傳說을揭載한  
最古의書는三國遺事(云云)니  
이것을箕子傳說이數千年前支  
那의古書에적혔슴에比하건대  
極히새로운傳說이라고하것다  
또同書의中에 檀君古記라하  
는書를引用하얏지마는 此書  
는三國遺事의相去하기멀지아  
니한 時代의것임의의심업다  
이傳說은일즉支那의書籍에보  
인것이업스즉 朝鮮에서만流  
傳된傳說임을알것이다 그리  
나宣和年間(高麗仁宗元年,距  
今七百九十餘年前)에高麗에  
왔든宋의使節인路允迪의隨員  
徐兢의著한宣和奉使高麗圖經

에 當時高麗의國情을詳記한  
中에 특히『建國』의章을設하  
얏지마는 아주檀君의일을記  
載치아니하얏다 그로부러二  
十餘年뒤에成한三國史記(云  
云)와 又同項에金富軾의撰  
한妙香山普賢寺之記에도 조  
공도보임이업다 古蹟檀君  
開國의傳說은 高麗中期外지  
는아주朝鮮人의間에 行하지  
아니하얏슴이분명하며 그多  
少라도行하게됨은 三國遺事  
時代以後에 在하얏슬것이다  
하야 遺事의原文을引用하고  
다시評斷을더하되  
右傳說內容의不可思議요 佛  
說을적은이만혹은 一見에분  
명한바요 又該傳說은朝鮮의  
北部에關係를有한것이지 朝  
鮮南部의韓種族하고는 아모  
關係를가지지아니하얏슴은  
新羅時代에在하야 檀君이란  
것이아주尊崇되치아니하얏슴  
에보아도분명하다 이傳說이  
李朝의初期에至하야 漸次로  
尊崇됨에미쳐서 世宗(第四

代)十一年(距今四百九十一年  
前)에비로소檀君祠를平壤에  
배플고 箕子祠와한가지로  
春秋二節에祭祀를行하얏다  
또同王의時에尹淮等에게命하  
야撰케한 世宗實錄地理志에  
는 詳細하게檀君의일을揭載  
하고 傳說의內容도 매우前  
과는다르게되였다 그뒤에檀  
君에關한遺跡外지도增加되고  
東國輿地勝覽(成宗十二年成)  
編纂의時에는 그中에收錄된  
것이不少하다 古蹟輿地勝  
覽과거의同時에命撰한東國通  
鑑(徐居正等撰,成宗十五年  
成)에는 檀君朝鮮,箕子朝鮮  
衛滿朝鮮의記事를外紀라하야  
卷首에揭하고 檀君朝鮮에對  
하야는 자못의심을두어 『姑  
存之,以備後考』라고하얏다  
그러치마는이러케正史에記載  
되었슴으로써 檀君은箕子에  
先하야 朝鮮開國의祖인것처  
림看做됨이만케되였다 以上  
은檀君傳說進展의概略이다  
그런데李朝時代의有名한學者

로 該傳說의妄誕不稽하야  
足히미지못할것임과 又該傳  
說이僧侶의手로외捏造된것임  
을論한者不少하며 近來日本  
에잇는學者의研究——또한日本  
一한結果를보였다 古蹟本  
書는 該傳說을取하지아니하  
고 參考로此處에附記한다  
고하얏다 이것을이쳐외지그  
네들의檀君論에對한努力의總  
和로도볼것인同時에 檀君그  
것을敎政上어찌케대접하고아  
을러그네가敎職者를通하야  
朝鮮心의벽리를芟除하기를  
어찌케巧妙히해치보려한뜻을  
端的히엿볼것으로 則注意에  
值하는文字이다 古蹟歷史  
의出發點을올여버리려함에  
다함고간지럼고찰살스려움을  
不快하게생각하기前에 모름  
직이그속에얼마만큼이나 檀  
君그것을存在界로외물아닐만  
한可能이잇는지를冷靜히考察  
할것이다설사日本人은檀君을  
感情의으로處理하려할지라도  
그어문에우리의學的良心을흔  
들必要가업기바문이다

# 壇君論 (十三)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十三、그官學的斷案(下)

이맛거壇君에關한見解를發表한者에 小田省吾를 들수잇스되그의所說은 大개前人の諸說을綴拾한것이오 論斷은前揭한『朝鮮事歷敎材』와大同한을보였스니 그가오래學署의編修職을奉하든이임으로써그見解의來歷을더장집작할것이다 다만矛의卑見으로는日本讀으로『タンクン』은 實로朝鮮讀으로『단남』이오『단남』은『단남』의訛이다 그意義는矣山君、山主 또는山神이다 약간의것을釋明하건대 朝鮮語의『단』이君主又是神임은더말할것임은일이오 次에『달』은朝鮮語로山의義니 普通에는達字로外表示하고 俗에陽達이라함은山의向陽處요 陰達이라함은 山の成陰處를이름이며 地名으로는本高句麗

의釜山縣을古淵達 工木達縣을 熊閃山이라하며 『단』(達)은또丘高의義에도通하야 慶尙北道大邱의古名은達勾火又達弗 卽丘城이오 江原道高城郡의古名은達忽 卽高村이다 또 이達(달)을『단』으로 轉하는例는 有名한京畿道水原의八達山을古圖에는 八呑山이라하였고(呑은朝鮮音이다) 小倉文學士의說을조건대 朝鮮語의語尾L을N으로轉訛하는일은普通이나 一二의例를舉하면軍那縣은 本屈那縣、眞寶縣은 本漆火巴縣이라고 三國史記地理志에는著했다。故로『달』이『단남』으로 轉訛됨은次코怪常한것아니다。上述한과갓처 タンクンは『단남』卽山神이라고하는予의說이다

행하 是認된다하면 予는三國遺事에 揭載한壇君傳說은 본대妙香山의山神緣起에不外하는것으로斷하러한다 이山에住하는熊이 人身을得하야女가되고 桓因卽帝釋天의庶子桓雄과婚하야生産하였다한은山神에어올리는 出生이다(여지로말하거되면 平壤의古名인王險을 王儉으로改하야壇君의名키를하기도儉이熊卽고』과通하기어문인듯하게생각된다) 그러면그山神을桓因卽帝釋의庶孫이라고도할것으로만드러노렸느냐하면이것은古來로此山에釋提桓因이居住한다는傳說이잇기어문이다 이러한傳說이잇는處는 西山大師清虛集中에引用한 新羅古記를依하야알수잇는즉 이대시壇君과桓因과를附會하였스리라함은 眞寶文學博士高橋亨氏의論한바이다(雜誌同源第一號) 이것은과연合當한說이니 同博士는壇君을山神이라말하지는아니하였스되이것을妙香山의山神이라고하여 同博士의說이 適切하게되는줄로잇는다 壇君이妙香山의山神인것은 三國遺事揭載의

同傳說에壇君이後에 阿斯達山卽黃海道九月山에숨어서그山神이되었다함에도一致한다함은 그의一所見으로보아줄것이다 그는朝鮮事歷敎材를敷衍하는듯한말을 이것키것만히列舉하였스나 二要領은平壤이잠시蒙古의有가되었을元宗前後에排外的動機로서이妙香山神과三國史記와高麗史(妙清傳)에도보이는平壤仙人을結合하야 平壤開闢談으로만드러낸것을그씨의一然이三國遺事의中에採錄한것이이壇君傳說이라함에잇는모양이다 또小田氏의意見中에 南보담一層廣大한것을보였다할點은壇君傳說의成立이 온전히高麗人의蒙古來寇에對한反抗精神으로서나온것으로 그動機와한가지成立年代外지도 大藏經刻板과莫相先後할것을斷하고 또李朝에外까지도壇君을尊崇하야버리지안키는高麗에對한革命手段의穩當치 못하였슴으로 高麗人의民心을得하려는政策으로 그것은바를尊重한것이라하며 그러나李朝의學者들은 김희朱子學을重히하여極力으로佛敎를

排斥한結果로國家에서는壇君을尊重宣傳하였지마는 오히려그妄誕不可信할것을唱言하게된것이矛盾임을指摘하고李朝의末期에가서民族의精神이強烈히喚起되던시 어느사람이壇君을利用하야國祖라하여對外的의意味로利用되는것임을高調함이다。(二)과연『亂暴』하고 魯陳하고 버릇없는소리지마는 이리케해서도그만될줄로아는그勇氣를보는同時에 그가對外의必要로壇君이생겼슴을力說曲證하려고 애를부드렷부드렷쓰는것그러로에서 드르려그네들의壇君抹削의必要感과 『敵本』의目標가 那邊에잇슴을알아볼수잇슴이재미이다。받나해야그네들의壇君論은 아모리學的의假面으로나와도 다만그네의壇君에因하는主觀上移感가 客觀的으로映像되는것일 따름의感이있다

(一)『朝鮮史講座』中『小田氏』朝鮮上世史九一一〇九頁 九六一七頁。  
(二)朝鮮總督府學務課局內朝鮮敎育會發行『文敎の朝鮮』今年二月號中、同氏『謂ゆる壇君傳說に就いて』의四、五兩節



# 壇君論

(十五)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十四、日本人諸說

#### 의概觀(二)

古代에잇서서어는한說話가素樸으로부터整齊로發達하고口舌로부터 文字로固定되외지에는진실로오랜歲月을要하는것이오文字가잇고 記錄이發達된뒤에도 民俗의所傳이記錄化하기外지에는 또한그리케쉽살이 되는것아니엇다그것이全民族的의도最根本的의어는 認識을要計하는性質을의운것이면記錄이라는安固한地位를잇기가더욱容易하

오랜生命을잇게되는者는대우一般의興味를 示하는것그凝視와尊尙의準의이되는 것이아니면아니되는것이오더욱朝鮮과가치 說話에關한專門纂物이잇는것아니라 歷史라는體制를가진書冊의中에歷史的事實의 一部로參加하는境遇에그러한것이다 이說話의記錄化의 常例를돌보지아니하고 壇君古傳의 成立年代를 可能以上으로引下하려할은 千餘所說의脚跡이 또그만공 부실한點點을알할하지못할것이다

또記錄의術이一般的으로發達되거나 普及되지아니하고어는特權階級の손에專管될사에 神話나傳說이나 乃至原

始的歷史談이 記錄化됨에는그如文敎階級の思潮、信條、好尙、要求에因하는取舍、影響이엄슬수업는것이니 이는忠實하고公正한記錄者의손에된것에도 어느程度만치는免치못하는일이다

그럼으로 오랜記錄을상고함에는그時代그社會의思想的背景과그筆者와또그의依憑한古記筆者의敎權的所屬가튼것을諒解의一要素로삼지아니치못하는것이다 더욱記錄大體의意趣에宗敎的關係가잇고더욱宣敎上무슨要求를가진것인애에는이點에對한細心の注意와한가지로寬容의態度는가지지아니하면肯定으로나否認으로나다意外의失敗를무르려는일이잇슬것이다가령말하면 三國

잇슬지라도 그러라고그것全部를抹削해던짐에는 매우慎重한用意을더해야할것이毋論이다 三國遺事는大體로보아國乘의未備를佛敎의편에서補述하는데 三國史記가튼正史가誕妄하더서抛擲한俗史의古傳을旁及한것이오 그것도自己의撰述은거의업고 法乘俗傳間에 總히그如流行하는諸種文字를대개原文대로이것저綴拾해노흥에그치고 약간自己의意見을添加하는것은割註아니면跋語로 그形迹이들어나게하였스니(애초에대단

壇君古傳만이이撰述方針에어긋는것일리가업슬것이오도로혀이러케述而不作底의忠樸한編纂家의손에採收되었음을다행해할것이니 미상불佛敎徒손에거두어진분수로는 異常하다그외만치佛敎的影響을아니바닷다할것이三國遺事所傳의壇君古傳이다 이러컨마는잘닷지아니하는幾個의名句를역지로 佛典에附會하야가지가튼은 佛敎徒의捏造에歸하려할

지부터가의심스럽다할것이다 또일변으로僧侶의撰인三國遺事에만보이지 三國史記其他에記載되지아니하는것을말함도 또한記錄의思想的背景을無視하는一別例이니 이는金富軾의史記編修態度가 온전히儒家의規模에一依하야힘외怪力亂神의科에더러지지아니할양으로努力하였음을이커버리기여문이오 同人의撰인妙香山의碑文에도이것을죄지아니하였음은 도로혀그가이러케외지 神怪의談을避하였음을보임이라할것이다 壇君古傳에對하야 日本人은흔히佛敎臭의잇음을말하나 正平하게보면 道敎色이도로혀勝함을보고 또佛敎의原始信仰에도共通함을보이나 그러면壇君古傳은三敎會同으로成立되었다고나할는지 佛敎的名句의一二만으로佛徒의創作으로看做하려함은 可우수운일이라할것이다 總히記錄檢討(文句考察)上에는思想的背景乃至敎權的關係를無視하였음을 그대錯見의一因으로칠것이다

# 壇君論

(十六)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十六、日本人諸說 의概觀(三)

朝鮮思潮의大勢를살피건대朝  
廷에잇는事大의退嬰의方針과  
民間에잇는自主의反抗의精神  
의對立相敵으로其調를잡은것  
은우엇에잇서되도한가지엇스  
니 箕子說이官邊을因하야唱  
言되고壇君說이民間을因하야  
支持되엇다는見解는 어느程  
度만치是認할것이지마는至若  
國祖壇君의說이 民族의反抗  
精神의產物이라함은 실로本  
末을顛倒함이甚한者이라할것  
이다。壇君古傳의研究와한가  
지 箕子東走說을檢討해보면

兩兩相照하야 더욱明瞭하야  
지는일이어니와 朝鮮의오래  
傳說——固有한信念에는 壇  
君을 國祖로하는맛게 아모  
다른것이 없든것이러니 支  
那文化의影響과 支那交涉의  
必要上으로 發生하야成立한  
것이일은바箕子云云의說이오  
箕子說이利用되는대로 차차  
公的機會에외風力이減해간것  
이 壇君의일이니 文字、記  
錄이官府에만行하는時期에는  
正當한그記載가거기存在하기  
어려운事情이엇다 이것은첫  
재半島에잇는自主의精神及事  
實의旺盛하든時期의記錄은屢

次의書厄에蕩然히掃盡되고서  
방남아잇다는若干文字는總히  
外交의必要와需敎의義理의下  
에作成된것에그집에셔도생각  
할일이니壇君古傳의生命이갈  
스룩民間의으로存續됨을이려  
한事情에말미암음이오그것이  
多分으로民俗의傳說의色彩를  
의게됨도이외담으로물것이다  
이는壇君의일을 文獻本位、  
文字本位로考察함이 不當한  
所以요도러民族의方面——  
트러 外來文化의影響이업거  
나 잇다해도刮去해볼수잇는  
事實에셔 探蹟發微해아될理  
由가되는것이다 아모리後代  
的인記錄에昭詳할지라도 그  
事實의根據가不實하면 遽然  
히信認함이 不當하면同時에  
만일民俗의根據만 深固久遠  
한것이잇스면 실사記錄의上  
에是一字不傳이라할지라도遽  
然히抹消될리업술所以이다  
이미朝家의傳統의方針이 事

大的——支那同化的으로成立  
한것을認하고 그네의文字中  
에自主精神의表象인壇君古傳  
이하진것을아뜻이생각함은矛  
盾되는要求라할것이오 記錄  
에업슴으로외 그民俗的存在  
의事實을無視하러함은그矛盾  
을더욱크게함이라할맛게업다  
朝鮮에잇서서 儒敎思想은慕  
華觀念又事大精神하고三名一  
實의關係로 擴布又成繼하니  
『事大』는儒敎에잇서서 天命  
的의一德目을짓다십히한것이  
오 또夷로부러夏도進함은그  
民族의의最大榮譽들잡는바이  
엇다 朝鮮人의『事大』가 消  
極的으로부러 점점積極的으로  
傾向하매 무엇이든지支那를  
달리며 아주支那가되어버리  
지아니하면마지안케되니 이  
것이祖上의德다귀에와往昔의  
지년치최에외지밋침에이르러  
그弊가極하얏다 이弊風이古  
代의傳說의上에는어더케影響

되었느냐하면 支那의古傳說  
及傳說의人格에附會、結聯할  
만한것은은支那的으로된것과  
支那와의 類似性을가진것은  
支那의觀念의下에畸形의存立  
을繼續하얏지마는 그그러치  
못한것은濫妄으로指目되여  
이러커럭喪滅로돌아갈맛게업  
섯다。이런무슨은試練과淘汰  
를지내면서도 그래도질긴生  
命을下代에외지保維한者는  
民族의又社會的으로 됨으려  
해설을수업는強靱深固의本質  
을가진무엇이니 일을레면壇  
君古傳가름이그것이다 朝鮮  
의民族性이 神怪를조하하는  
一面을가졌건마는 그분수로  
는 대단한神話와古傳說을가  
지지못한편이오 그러나그殘  
片과變形은무슨種類로든지다  
잇서 본머不足하거나全無하  
든것어넘을문은可證明함은  
그說話古傳의考查上에 注意

할一條件이니 이는아모것보  
담도더 儒敎의風化의 부대  
김에 이아친 結果로되물것  
임이母論이다 얼는말하면朝  
鮮는 說話的으로生長한나라  
가아니라 漸減해온나라이니  
壇君其他의 建國傳說가튼것  
이中間에發生成立된것이기는  
커녕 업서지다업서지다못하  
야남고업새려다업새려다못하  
야더러커잇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그몹은복새와困厄를  
치르고도 그만큼도그러케라  
도形貌를傳해온것만달되하게  
알것이어늘뒤집어서 中間에  
생겼거나그러치안하도보래고  
커진것으로보려함은 커네들  
이아모리애외도壇君이무엇임  
을알수업고 그래서업다고작  
당해버린一理由아나랄수업다  
그러나이래서업서질것은 그  
네主觀上의壇君傳이客觀的  
實體외지흔들릴줄받든 確證  
는생각임이母論이다

한一條件이니 이는아모것보  
담도더 儒敎의風化의 부대  
김에 이아친 結果로되물것  
임이母論이다 얼는말하면朝  
鮮는 說話的으로生長한나라  
가아니라 漸減해온나라이니  
壇君其他의 建國傳說가튼것  
이中間에發生成立된것이기는  
커녕 업서지다업서지다못하  
야남고업새려다업새려다못하  
야더러커잇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그몹은복새와困厄를  
치르고도 그만큼도그러케라  
도形貌를傳해온것만달되하게  
알것이어늘뒤집어서 中間에  
생겼거나그러치안하도보래고  
커진것으로보려함은 커네들  
이아모리애외도壇君이무엇임  
을알수업고 그래서업다고작  
당해버린一理由아나랄수업다  
그러나이래서업서질것은 그  
네主觀上의壇君傳이客觀的  
實體외지흔들릴줄받든 確證  
는생각임이母論이다



# 壇君論

(十七)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十六、日本人諸說

#### 의概觀(四)

日本人의壇君論은要하면偏見으로되偏見으로의一圓環을뜻업시돌아다넘어지나지못한다. 그런데그偏見은意識的無意識的의兩種에나눌수잇스나 無意識的偏見이란것은升一般歷史에對하여 謬妄의見을가갓기때문에 그飛沫이壇君에외지못키음다위이다 文化の本質論에 一種의成心을가갓키 支那周圍의民族에는自發的又固然의文化를허락하지아니하고 그네獨特한文

化的傳統을無視하기때문에支那文物이들어가기以前의일을억지로복식하려는것도그한아아오 支那의記號에絕對한權威를認하고 그一時過客의見聞隨錄을 詳審周到한探檢錄으로보아서 支那의文籍에全無하거나 잇셔도異形인것은 없는事實의存在를肯定하지아니하러함도 그한아아오 半島內의歷史的民族을억지로兩彙에나호아서 扶餘는北種이니 韓은南種이니하야 截然히연것만넘여가지고 壇君古傳이잇슬지라도 北方에나잇든것이지 南方하고는本不相

干이라하는것따위도그한아이니 朝鮮的으로볼壇君을 支那眼으로보라들고 自主的으로볼것을 依他的으로보라들고 大同的으로볼것을 割異的으로보라들때에 觀點이틀리는지라 眼前의實物도암박錯過해버리는것들이甚히약하다 하갓다

玆河氏가른이白鳥氏가른이가當初에玆河氏를抹削하기는혹시單純한觀察로 權假로評斷한것임에不過했든것이갓자다는 것이日本人一般의無意識的一欲求에投合하야 偏見이偏見을나라가 다출내定說비스름한結果를본것은 作俑者의도로혀意外라할發展일는지도모를것이다 兪은에는그럴사해셔몇마대무엇이라해본것을後人은『이상불그리다』로부러『복그린』것이아『로들어가다가』변동업시그리다『로외지나아가는데 이進行의집행이로써운것은실상 正鵠을비

켜가는偏見이었다. 古記古傳의不備不實한것만골라셔 不確不定한 一時의斷見을더한것이그네들시방까지의 壇君論이니그虛를衝하고그弱을乘해셔무슨 奇兵을잡시외본다해도本營과中軍이아주穩妥하야難攻不落일진대 百奇百勝이라도그대로失敗일뻛게무엇하는것이랴 어언간日本人의사이에는成心과先人見이한아셔잇셔自己네스스로 變通하기는姑舍하고남이라도종異說을세우면 얼는귀도기우려지아니하게됨이실상 우습게석한일이라할것이다그런데이것이日本歷史에 잇셔셔의自尊心擁護와朝鮮歷史에對한反動的關係——日本이朝鮮에比하야年代上後輩가아니라하고 침음과 日本이古代에도朝鮮에게文化的恩澤을 넘은일업노라고하고심호心理에緊密한關係를가진만큼 이쌍쌍스려

은偏見을켜네에게셔拔除함은쉬운일이안일듯하다 다만壇君古傳에는 그네의생각하는것가튼虛漏空疎한것만이나나라그보담월등한 眞實充足이잇셔셔랄이다

그意識的의偏見은첫재學的良心과 政略的要求의葛藤이自己네들이抹削한다고客觀的의抹削이成就되고 아니됨은如何하든지 하면되거니하

고한玆河의勇을볼내보는것이다 玆朝鮮의稞米를라먹는이는職分으로도 그려할것이어나와그리치아니한이외지도 덩다라갓한거리를충충은또한一種의時代意識에 들리는것이다 兪히보기에도갓간지려운것은 이官學的斷案에들어안얹게沒廉한것이니그壇君에對한 態度가래셔아高等批評의見地에선秋霜가튼態度가 사람으로하야금소름이죽죽치치게함이잇지마는이

嚴格한學的『메쓰』가어쵸셔朝鮮의事實——壇君가튼것에만向하고壇君하고도同日而語할수업는日本古代의事實에는도로혀古傳俗說以上の朦朧模糊를살피었는지 그兩刀並用的기막힌송씨야 못내嘆服할것이있다 兪선神功皇后란분의三韓來侵가튼것만하야도 그네의歷史家가벌쳐부러國民說話로치는것이오 더욱이것이性質上으로朝鮮人에게쓰는課本에는 매우慎重히考慮하야處置할것이어늘 도로혀아모것보담誇張한算致로적어너헛스니마찬가지政略이갓지마는여기는어쵸이리도寬容한지 不當當然이로대 또한當然할듯한不當이아닐수도업슬것이다 本래偏見으로한것을새삼스럼게偏見이다하고 兪범의진실로無用의 일이라니와그네의壇君論心理를살피는一助로 이것을잡간근더림일씨름이다

이

# 壇君論 (十八)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十八、僧徒妄談說의檢覈(一)

以上에列擧한것과가라외壇君否認의其通의又根本의理由는

그리나 이것이얼마나條理있는見解며 根據있는論證인가. 먼저 個個에就하여 그當否를一審하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桓】壇君氏族의本原과朝鮮人文의淵源이라하여 三國遺事에傳하는것이 『桓國』이나桓國의大意로외도理會되는것이

# 壇君論

(十九)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그동안 旅行으로因하여 多日 임은 眞實로이러한出處를 가진 休揭하게된것을 愛讀諸賢에 것이오 天子가主權의意義를強 하게된뒤에 天君, 天王, 天帝 等語가생기게된것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系統의文化及人 民의中에서는 『임금』이라는 象의名號가 생기기前에는 天 子 혹神人(冥靈格者)이라는具 象的稱謂만이 그主權者의 記 號가 되었는듯하니 古語말하 高句麗에서는加(乃至古鄒 支那)가생기지 아니하여서는 大加)가생기지 아니하여서는 有力한一證左라할것이다 天 國의 前에次次雄, 居瑟耶이 王은天國일맛게업슬지니 王은天王일맛게업슬지니 天孫傳說이行하는地에서는 主 漢書(卷九十四上)匈奴傳에 『單 權者를天의子로되일카름이通例 于姓變提氏, 其國稱之曰撐犁孤

塗單于, 匈奴謂天爲撐犁, 謂子 帝子』의 句가 名謂에不外함이 爲孤塗, 單于者廣大之貌也, 言 其象天單于然也』라한것이잇고 日本의古語에王位를天(日嗣) 君中の子를日嗣の御子』라한것이 잇고 『大月氏의古碑에그君長 等의일홍과한가지로 『皇天所以 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 語로天子의義』라한것이잇고 君后, 爲茲故降矣』니『紫羅自天 蒙古의古記에Do Terin Kobobis 垂而著地』云云이니하는 文이잇 (天의子라義)이란 名이나오고 스나 이는 다君主의稱謂(或 五)도南北朝代의北人の國인夏 燕等에서도王號를만히天王이라 하고그것이만히氏族의本原에關 係를가지기도하였스니(一)君主 將天子로되하는觀念이北方民族 之間에서도엇더케由來가오래고 分布가넓음을집작할것이다震域 傳의『桓雄天王』이 그說話的地 後漢王充의論衡(卷二古驗篇)에關한다른古傳을引하여보아도 東明傳에『從天而下』니『天子 子』니하는 語를적었고 廣開土 王의碑文에『天帝之子』『皇天之 子』의句가보이고 舊三國史記 東明王本紀에 『天帝遣太子降遊 扶餘王故都』니 『從天而下』니 『我是天帝之子』니하는句가잇고 二國史記 東明王本紀에『自言天 오는天王도 要하건대이러한一

것을帝釋의外將인四王天의 그것에比擬하려함은 佛이나역지라 할맛게업다 萬일조금이라도佛 典의影響이여기加被되었다하면 다름데는만히天帝라한것이 壇 君古傳의中에는帝가王으로變換 것을일원일것이다 天왕의本質 을발의積極的說明은뒤에미룬다 (一) 韓을日本의史家は흔히 半島南方의民群에限한名稱으 로認하지마는 이것은三國志 以後의事實로써 그以前外지 를律하려함에서나오錯誤일원 이오 본래는南北을通한震民 의一通名이든것은 詩經, 山 海經等古文에서 그證跡을더 들을수잇는일이다. (二) 우리의考覈에據하건대 夷字는音, 訓, 義를表하는字니 天人의 義를表하는字니 年前『東明』에揭載한『朝鮮歷 史通俗講話』에이를약간論說 도하였거니와 本論의後文에 도論及할機會가잇슬것. (三) 解慕瀾說話東明說話가 든것으로볼지라도 일은하면

天帝子(天王郎)를 내세우니 이것이王이든그네의通稱인외 닮임은알기쉬운일이다. (四) 次次雄은巫의稱이오居 瑟耶도그비슷한말이니 權力 的表示의語句以前에 非權力 的(超權力的)의意味를가진 語로되王을일카려든줄을볼것 이다 (五) 史學雜誌第十八編第二號 白鳥氏『蒙古民族の起原』(一 七二七頁)參照 (六) 便宜上, 資治通鑑卷一百 十四, 晉紀三十六, 安皇帝已 義熙三年丁未條(齊御批歷代 通鑑輯覽三十五同條)參照 (七) 書經에『天子爲民父母, 以 爲天下王』, 詩經에『百辟卿士, 媚于天子』라함도그것이어나 외春秋에는王을만히天왕으로 되일카려스니『獨斷』으로부러 『日知錄』에외지그解釋이만호 나要하건대天왕은역시天子의 異稱일다름일것이다 (八) 支邦上代에君王에關한天 降又感生의說이만홍에較量할 것

# 壇君論 (二十)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二十 僧徒妄談說의 檢覈 (三)

檀君이佛家の做出物의

【檀】檀君이佛家の做出物의 說을確立한者는 白鳥氏요氏의 論을確立한依據는 特히檀君의 一字에의스듯하니 그것이輿地勝覽의妙香山記文과 觀佛三昧經의牛頭梅檀記文을比對할時에 前者의香木은 後者의檀木에當한다하고 妙香의名부러가 佛典中으로引出來하얏음을擬想한것임은 前文에引錄함과갓다 (本論第六參照)。 그러나檀君의 檀字가본래檀이라할지라도檀이 반드시檀木의檀일외담과 더구나 檀檀의檀이附會될외담이업스

니며 또梅檀이白鳥氏의說한것처럼佛菩薩에가장因緣잇는名木 도아니며 (一) 더욱帝釋桓因에 게는어려라할聯想의舟梁을가지 지아니한것이다。 (二) 대가朝鮮 에서香木(향나무)으로稱하는者 는 大한것은松杉科에屬하는圓 柏이요小한것은杜松의類를가르 칩이通例이며 (三)檀木(바나나) 이라하는者는 樺木科에屬하는 一木으로 (四) 본래부러香木허 고風馬牛인者나 香山의香木 이 당초에檀木그것으로더부러 무려干渉이업는것이며 이케香 木을구려檀木이라하고梅檀이라 하는것이 이미無謂에屬하는것 이오 摩維耶山云云의說은張

일따름이다。 또古記에는 檀君의聖地를 太伯山이라하였을은 이오 妙香이그나라한은一然의 添注임이桓國의下에帝釋을注 함과同一한것이어늘진것太伯의 古를노코 本獨妙香의名을못들 어서 妙香과檀木과神樹思想과 의不能相離할契機를지음은 진 실로생략에갓가운일이라할것이 니 設사그말이선다할지라도一 然의臆料를써러림은될지언정그 로因하여古記の本義야언케일즉 一毫의損減을넘을것이라이러케 서네들의論證이매양已見을세우 기에밧바서 原義를도라봄이不 足함에坐함은려야는일의한아 이다 佛典의根據랄것도薄弱 아나오 檀君古傳의眼目이 하다할진대 檀君古傳의眼目이 라고도할이檀은과연어떠한謎體 일가 虛空을摸索하는눈을一轉 하여 古記의文字를實檢할때에 意外의事實이意外의光明을착지 어나라나음을보나니 무엇이나 하면 檀君傳의아직동안根本的 徵憑인三國遺事의文에 檀君의 檀字로因하여 檀君에關한視

野가한번새로히 一大展開를이 일의오 檀君이佛家の做出物의 說을確立한者는 白鳥氏요氏의 論을確立한依據는 特히檀君의 一字에의스듯하니 그것이輿地勝覽의妙香山記文과 觀佛三昧經의牛頭梅檀記文을比對할時에 前者의香木은 後者의檀木에當한다하고 妙香의名부러가 佛典中으로引出來하얏음을擬想한것임은 前文에引錄함과갓다 (本論第六參照)。 그러나檀君의 檀字가본래檀이라할지라도檀이 반드시檀木의檀일외담과 더구나 檀檀의檀이附會될외담이업스

土偏의壇으로적혀잇슴이다 高루는곳에 檀君의聖地를 太伯山이라하였을은 이오 妙香이그나라한은一然의 添注임이桓國의下에帝釋을注 함과同一한것이어늘진것太伯의 古를노코 本獨妙香의名을못들 어서 妙香과檀木과神樹思想과 의不能相離할契機를지음은 진 실로생략에갓가운일이라할것이 니 設사그말이선다할지라도一 然의臆料를써러림은될지언정그 로因하여古記の本義야언케일즉 一毫의損減을넘을것이라이러케 서네들의論證이매양已見을세우 기에밧바서 原義를도라봄이不 足함에坐함은려야는일의한아 이다 佛典의根據랄것도薄弱 아나오 檀君古傳의眼目이 하다할진대 檀君古傳의眼目이 라고도할이檀은과연어떠한謎體 일가 虛空을摸索하는눈을一轉 하여 古記의文字를實檢할때에 意外의事實이意外의光明을착지 어나라나음을보나니 무엇이나 하면 檀君傳의아직동안根本的 徵憑인三國遺事의文에 檀君의 檀字로因하여 檀君에關한視

檀君의聖地를 太伯山이라하였을은 이오 妙香이그나라한은一然의 添注임이桓國의下에帝釋을注 함과同一한것이어늘진것太伯의 古를노코 本獨妙香의名을못들 어서 妙香과檀木과神樹思想과 의不能相離할契機를지음은 진 실로생략에갓가운일이라할것이 니 設사그말이선다할지라도一 然의臆料를써러림은될지언정그 로因하여古記の本義야언케일즉 一毫의損減을넘을것이라이러케 서네들의論證이매양已見을세우 기에밧바서 原義를도라봄이不 足함에坐함은려야는일의한아 이다 佛典의根據랄것도薄弱 아나오 檀君古傳의眼目이 하다할진대 檀君古傳의眼目이 라고도할이檀은과연어떠한謎體 일가 虛空을摸索하는눈을一轉 하여 古記의文字를實檢할때에 意外의事實이意外의光明을착지 어나라나음을보나니 무엇이나 하면 檀君傳의아직동안根本的 徵憑인三國遺事의文에 檀君의 檀字로因하여 檀君에關한視

(此項未完)





# 壇君論

(二)  
(三)

## 朝鮮을中心으로 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一三三 僧徒妄談說의 檢覈 (五의續)

이것저것을 다 不計하고 덩허

노코論者의壇君出處佛典說을容納하여보려하자 그러나說話의 檢覈를삼을수없음과그依支點의 無엇임을알수없음은이러케하러는佛의첫재맛나는障礙가아닐수 없슬것이다。帝釋中心의說話라 하자니 桓과天王이란名字가對한說明이 도두고뒤어도白鳥氏의以上에출할수업거늘 白鳥氏의說明의支離減裂이커와가름면서그것이맛출내散異名別한字는 帝釋的分子가다시업고 또對한說明이 도두고뒤어도白鳥氏의以上에출할수업거늘 白鳥氏의說明의支離減裂이커와가름면서그것이맛출내散異名別한字

나하며 더구나壇君의「단」이檀 茶羅의壇이라하자면 壇君傳全 體의密敎의說明을成立시켜야할 것이나만일이것은여기서 그것 은커괴서줄무더이로써어왔다하 야 說話成立의主軸과 또모든 分子의聯絡關係를 밝힐수업슬진 머그만論者의말이縷縷해진다 할맛게업슬것이다。그런데여기對한說明이 도두고뒤어도白鳥氏의以上에출할수업거늘 白鳥氏의說明의支離減裂이커와가름면서그것이맛출내散異名別한字

向의符合과 거괴因漫然한附會야하트佛典에서만可能할것이 라。佛典보단도道敎의文字에더욱密邇도하다할것이오(十五)또 漢文과가치 雜多한音形과한가 지豐富한含蓄을 가진文字又文籍 國의古事成語에는 어대부엇에 고牽強할수가잇슬것이며(十六) 하자고하면埃及、猶太、希臘、羅馬의古傳說에서도 近似한名義를차커내기어렵지안홀것이 나(十七)이래서야 學的信賴를여

다。自來의地質이잇는바에 佛 典에對하야字音이나 語義의類 同은잇슬수잇거니와 說話全體의名實兩面、首尾一貫의一致아 도커히期待하기어려울맛게업는 것이다。桓이고檀이고본머더문 이업는것을 佛典에서집어낸것 이아나리 들이다뭇잡업시桓字 檀字를써야할所以가잇긔기때문 이니 만일壇君古傳에 괴어히 佛敎의影響을認하거다하면 그 佛敎의影響을依據한改換이신듯 변변치못함에서 도르히古傳의確實性을더함이잇다고볼것이 다。

# 壇君論 (二)(四)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二四 僧徒妄談說의 檢覈 (六의續)

(二)壇君傳中の天符印三箇를 엇더케볼것인지는 峽거북한 問題이다。符는符瑞의符로도 보겠지마는符印이라할것가트면兩字가熟하야무엇의標幟를 表함으로볼것이다。또符印을 들에나호아보면符는종더道敎的의이오 印은종더佛敎的의이로 대 佛敎에도符가업는것은아 니나 특히密敎의穢迹金剛禁 百變法門經에는 四十二種의 神符를說한것이있다。

(三)印契는印相、印明으로稱 하기도하고 定印(三昧印)、海 印乃至法印等처럼 印은佛敎 의意만하쓰는말이니 그通俗 的意外는또한表信이라함에不

外한것이다。

(三)密敎에서曼荼羅(Manda) 를壇이라譯하니 또한壇 을築하고諸尊을安置하기때문 이다。또密敎의地水風火四壇 의外에 顯敎에도戒壇 佛頂 壇、神衆壇等壇의名目이만히 있다。

(四)咒는 佛敎에서 Dharani 의譯語로쓰는말이니咒로외願 함은華嚴經淨行品에說한것처럼 菩薩行을修하는者의一舉 一動은總히咒願中에서할것이 라하도록 佛敎修行上의要目 이되는것이다。그러나咒力信 仰이原始民族의重要한一生活 面이오 壇君傳中에서부터艾蒜 의咒力을說한一段이잇슴으로 外의咒願을반드시佛敎依倣이 라할理山업슴이母論이다

(五)우리생각에는壇君傳의文 이만일佛敎에關係가있다하면 그것은密敎로더부러되라할것 일지나 壇、咒、印等이總히그 러하다。그러나그것이最大限 度에잇외되도 若干名相의假 冒에그칠것은 그民俗的證迹 을말미암아분명한일이다。帝 釋은高麗國祖以來의특히尊信 을바든 一天衆이오 國難이 荐仍한 그中葉은은덕욱 帝 釋依賴의消災祈祝의 行한것 은 史文에 나타남과가트니 이理由에關하야는우리가別로 考說이잇거니와 一然의三國 遺事가 桓國의下에 『謂帝釋 也』를添注한것은 實상이려 한時代意識의一反映으로볼것 이다。우리는특히壇字中心으 로密敎事相과壇君傳과의關係 를考査해보고 더욱이것을 通하야시방壇君傳의古記成立 年代를揣摩하려하였스나 그 近似와共通도外皮한점만재치 고들어가서는 아주幻滅됨을 아는것이그結論이었다。

(六) 國祖說話에符瑞가말아 다닐은 『震域에잇외되도通例 니赫居世說話의』異氣如電光

垂地』와 脫解說話의『鶴集而 鳴』과 閔智說話의『紫雲從天 垂地』...有白鷄鳴於樹下』와 首露說話의『龜何龜何』와한가 지『紫繩自天垂而著地』함은다 神聖한일이잇슴을前示하는 符瑞이었다。壇君傳에도古에 는응당이려한무엇이잇겠지 마는 後의常識的記載家의손 에削去를넘어 업외것슬것이 오 혹시그一碎片이여기나온 符印의符일지도모를것이다

(七)天符印이天人이란特殊한 種姓의標幟物일것은 天孫 으로帝系잡은이의表章物일것 은얼는알일이지마는 古震人 이文明의先驅者로 一種強大 한自尊心을 가진것은 最初의 開明地를意味하는 『朝鮮』이 란國號에도나타나거니와 勞 近他民族들의推尊한風과麓野 俗俗의中에서진작부터 『衣冠 帶劍』을特色으로하고(山海 經) 또上下업시巾幘을好함이 天性임도(三國志) 다이러한 自尊心의發露로볼것이며 더

욱舊東明王本紀의 『首戴鳥羽 之冠腰帶龍光之劍』으로天帝 子赫慕漸의服章을삼음가름은 辟의想像을有力하게支持하아 주는것일듯하다

(八)巫師即君長이든朝鮮古代 에 『마진』(Majin)이尊尙되 고 幾多의『다부』(Taboo)가 行하였슬것은맛당한일이니 이는 三國志의 東夷列傳에 도 그證迹이만히잇는바요 壇君傳만하야도 보는 態度 를달하서는 『다부』中心의一 篇說話라고도할만한것이다。 그런데咒力の植物이 佛敎로 말하면 毘陀羅法的의芭蕉咒(十 誦律二)나 龍樹菩薩의白芥子 咒가튼것은잇스되 艾나蒜을 咒用한것은업는듯하며 그대 신艾蒜이震土의特産이요兼하 야俗方에一種의靈力잇는藥으 로信用됨은다아는바와갓다。

(九)天符印一段은總히日本의 神話에比對하야볼새에 그原 義를살하기가편하니 天符印 三箇와일은바三種神器의古意 가거진가름은母論이다。 亥츠 로符瑞의으로말할지라도 赫 居世의馬와首露의龜와朱蒙의 鳩와脫解의鵠과 閔智의鷄와 가 神武天皇東征時의金鷄 란것하고同一한『모리부』에屬 함도母論이다。



# 壇君論

(二五)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二五 僧徒妄談說의 檢覈 (七)

(十) 무슨 외담에佛教徒는壇君傳을만드려다할가? 그것은 아모래도宣敎上必要를爲함이랄할것이니 沈清傳, 翟成義傳가큰小說의重要한一部而가 佛法弘通上方便에干涉을가집가름이 그類例가될것이 다. 그런데佛法으로融攝할必要가잇섯다하면 아모것보단 도그欲求가커슬 이壇君傳의中에는 아모그려한投影이업스며 특히日本의本地垂迹論에서보는것가實質的攝化의痕跡은 조금도보임이업다

一然의三國遺事撰述로부러以前約一世紀間은 실상高麗佛敎와그朝廷과의接近의 最高頂에을르고 此外朝廷中心의傳統的國民信仰과佛敎와의

同化統攝作用이 가장活潑한 行한時代이니妙淸의八聖堂案에나라난所謂「實德論」이란 것은 要한건대이러한機運의具現한一面이오 仁宗十三年(西紀一二三五、三國史記撰述前十年、遺事撰述前百一二十年)妙淸의「大爲」變은 이國佛圓融의時代思潮에輕舟駛往하기를의약하였던일이다. 만일論者의說과가차 壇君傳이僧徒의손에나온것이오 또三國遺事의所傳이그撰述을去하기 과히오래지아니한씨의一作話를依憑한것이라하면 이時代精神의反映이반드시濃厚하였을것이어늘 一然의私注一句의外에는 이러한努力의痕跡이도모지나라나지아니하였다.

(十一) 이미宣敎上必要에나와

거나本迹的關係를말하려함도 아니라하면——또한참旺盛한時代思潮가 正히이러한傾向을보이건마는 以色列의물들미업슬것가드면 어찌僧徒가壇君傳을만드려다할는지또僧徒의만드려다할形迹이무엇이라할는지 다똑똑히說明할수업슬것이다

(十一) 印度는世界說話의總源地라고하는곳이어나와 朝鮮神話(建國古談)의一大特質이라할 太陽神의說話만하야도 왜만흔種類를가섯스니 다른어려운것은그만두고라도 佛經諸經論에나와서佛敎人의習聞慣識하는것만을말하야도 日天子, 寶光天子, 寶意天子와「修野」日宮說話(立世阿毘曇論日月行品)가튼것이잇건마는 壇君傳의中에이러한것들의影像是조곰도發見되지아니한다.

(十二) 印度神話(佛典所收)에太陽化現의類話도작지아니하니 釋迦五姓의一의日種(Surya vansa)이란것의습이그한아이다. 釋氏의祖先은넛날에甘蔗二莖이日光에

또여기 男女一對을化生한者이라하야 그門地를一稱이라 고일카름이 마치震域古代의諸王族이 太陽神의後裔라하야 夫餘는解, 高句麗는高(并古語에日을意味하는マ), 新羅는朴(光明을意味하는朴), 百濟는扶餘(曙白을意味하는「부여」)로외姓을삼음과가갓다.

(十三) 朝鮮建國神話의又一特色은卵生이라하는「모치브」어늘印度古話에도卵生談이퍼만흐니 이類似를憑據하야學者의中에 朝鮮과印度間의種族的連絡을想像한이도잇거니와(林泰輔와가치)만일佛敎徒가佛典과國傳을「對照」하러하면日種과한가지卵生의共通點을가진兩國古傳을抱合식형은極히容易한일이엇슬것이다. 方丈平壤에는大聖山聖母와雜寶藏經(一)의蓮華夫人과의對照)그런데특히壇君傳의中에는直間接을對論하고이러한影響이로볼것이조곰도업스며그것이어떠케답답이古態를保有하였음을말하는것이다.

# 壇君論

(二六)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二六 僧徒妄談說의 檢覈

(八)

(十四) 佛敎에서淨土의草木을珍寶의樹林이라하여 寶樹라일카르니 法華經壽量品の『寶樹多華樹、衆生所遊樂』가름이그것이오 觀無量壽經所說十六觀中の第四에寶樹觀이란것外지있다. 또佛敎에서는무엇이든지그一類의中에서元長될만한것을王이라일카르니象王牛王鹿王鶴王等처럼나무에도거룩한것을樹王이라하는데 栴檀을諸樹의王가치본곳은이다.

(十五) 壇君古傳을 한민道敎的으로건너다보면 一統的說明에도 그다지역지가적어드리혀佛敎以上の親近味를發

見할것이다. 이點에對하야는別로한本考察을試하기로하고여기는그만두거니와 子네들이어설히게佛敎的名句를못드려다가云云하는方式으로외하는一例를만든다하면天王의名이天尊、天帝、天王以下 天元天公、天后等그大神格의名稱이符合함은莫論하고 桓國과桓國庶子人間分治의一段은支那의古傳인桓山の鳥에比擬할것이오(바루道敎文字는아니지마는 孔子家語顏回第十八、說如卷十八辨物參照)神市가道敎最大의靈場인祭天、醮星等壇壇그것이라할수있고과風雨命殺等事가 道敎의祈禱의要目임은 더구나母論의일이며 그山嶽을舞臺로함과熊

虎를脊屬으로함과 乃至王儉仙人(三國史記)桓仁仙人(靑鶴集) 등의古傳을가진等은壇君을仙流로물기에 더욱便利한點들이다.

(十六) 桓一字만가지고말할지라도 桓은說文에『郵亭表也』라하고徐注에『表慶立爲柱、漢法、亭表四解、建大木、貫以方板、名曰桓表、縣所治、兩邊各一』이라한것처럼 시방우리의장승비스름한것이니壇君古傳에도神壇樹를말하고는그比較材料에도諱의蘇塗와北方古今諸民의神竿이잇슴으로외 桓國의桓이桓表의桓이라라고도말할것이며 多구호려다자면 書禹貢(梁州)『西傾因桓』의句나 周禮春官의『公執桓圭』에라도附會치말것아니며 桓雄을가까다가晉書所見인 桓伊의脫化라고말할수도잇을것이다. 삼갈것은이러한種類의牽強附會이다.

(十七) 외선希臘의神話에서名稱과事實의近似한것을차커를지라도 桓國은헬렌民族의祖名으로외國名外지되고Dionysos에 桓雄은日神으로星宿과空界現象의司神인Dionysos에 太伯山頂의神市는올림보山의神都에 壇君은葡萄의栽培와한가지希臘國土로移入하야虎、豹、山猫等에게乘輿를승리고人心을和柔하며 文明을發達하는功德을가진神으로각별히尊崇하는 Dionysos에 比擬할수잇을것이며 또이것을太陽祖視의風을한가지하는埃及神話에올려서比對를試할진대 桓은『靈魂의社殿』이라고닐켜는 寧養의 一部分인『안구』(혹『오구』)는 헬리오폴리스라함)에當한다할것이오 桓雄은神人兩族의 通祖라하는 『아도웅』에, 壇君은그所生인 『다웅』에 當하는것으로說明할수잇스리니 想像의날개를벌려서 牽強의하늘을날음에는佛典以上の自由를 埃及의古典에서외도어들것이며(便宜上、世界聖典全集、死者之書上卷、三六六頁、第九項、前田越嶺編『建國神話埃及物語』六〇及一〇七頁等參照) 또桓雄은그性質로나名號로나巴比

倫神話에서는『아도』와 希伯來神話에서는『히노』에比擬할수잇을지니 이러한偶然한一致의中에서 역시로必然한子母關係를말하려함은 甚危險한일이아닐수없다.

(十八) 印度神話(竺傳所見의佛敎說話)의中에도 假冒借用하기에合當한여러가지 『모치부』가잇건마는 다그만두고一然의注일법호대帝釋云云을말하기에그첫슴은 桓이란字音의近似를取하려함에얼만것이오.

(十九) 가령壇君文籍의密敎的依憑을認한다할지라도 兩部曼荼羅의(金剛界九會總三百六十一尊、胎藏界十三院總七百餘尊(혹十二院四百十四尊)許多한佛菩薩天衆中에하필帝釋天王을찾은것은 무론天王이란말을取하려한것이여壇이고壇이다는한『단』이란音을떠날수업기여문에借用된文字의의사이에잡시用語上相關이잇슴을前提로해사라도이러라는말이다.



# 壇君論 (二)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二八 僧做論者の 錯論範疇 (續)

(續)

(二)國乘에는加良、駕洛、漢籍에는狗邪、日本文籍에는加羅 등으로見한것이 後代에는五伽耶나六加伽나하야 오로지伽耶의名으로일컫게되니伽耶는무론梵語(Gāyā)의譯字로伽耶山伽耶城等佛典에만히나오는것이오또加良의伽耶化는실상國語의終聲ㅈ化(轉法則)에依하는音韻變化를遂한二重의의것(或云保留)이라고(二)三國史記에『諱類利』三國遺事年表에『一作累利又孺留』라하고永樂太王碑에『孺留』라고魏書에『閻濤』로見한것이니佛典에瑠璃太子(涅槃經)、

瑠璃王(琉璃王經其他)의名이고이類利의太子時頌行이키에通한것함으로뒤에瑠璃의字를부름쓰게되었다. 瑠璃王名의本形은Vandhaka로類利는필시『구리』의譯字이니兩者가무론本不相干의것(三)三國時代古記에 보이는人物名에는音相似에因한佛典의語句가만흔니 三國遺事年表에就하야 新羅上代の王名을點檢해볼지라도脫解一作吐解、婆娑、未都一作味炤、慈非、賊處一作炤知、智訂一作智哲又智度路等例가정성음뜻하되시방외지 行하는地名에도古名의佛典字句化한者가이로舉示하기어려울지경이며神曲이『兜率歌』神

事가『八關會』가되는等事件의名謂도二重三重으로轉變한例가許多하다 論者一혹일으기를이것들은佛典의名句의外에 또異名과別傳이잇스니外우리가그것을미들수잇거니와桓雄壇君等은그리치못하니어긋하랴할는지모르되 그네들의미처注意못한方面에 壇君의異稱別傳이一二에그치지아니함은下文에舉示하것다(四)白鳥氏는高句麗本紀의文을引用한뒤에斷斷을加하야가로대『金蛙의宰制陀蘭弗과미東海의迦葉原은분명히佛說로分脫化해온名稱이니 그微은智度論에『彌勒佛言、此人是過去釋迦文尼佛弟子、名摩訶迦葉、行阿蘭若、小欲知足、行頭陀、比上中第一得六神通』又『阿蘭處空舍家間山林曠野』라한것이是이다. 大抵阿蘭處은阿蘭若의若字를去하고(子의義)字를入하야 舍利(子의義)字를去내어人名을만들(阿蘭若가靜處原野에由緣인)으로分 迦葉(正하게는迦

波)을도로혀原野의名을만든것처럼 假作의痕跡이明明地에看破된다』하였다. 그러나괴의아무러분이업시그것을襲用하는바에阿蘭의處를人으로서冒하고 迦葉의人을도로혀處로襲하였다함이 說明하기어려운點이오 일부러그렇다하기로말하면 阿蘭、迦葉의字樣을 그대로襲用하얏슬리도업고또이것은 대치가穿鑿에過하는말이다. 阿蘭은 따로說明하기로하고 迦葉으로말하야도 國中靈山の 洞窟遺蹟地에는 金剛山の 迦葉窟과祥原觀音山の佳殊窟(輿地勝覽五十五、臥遊錄卷之三兩秋江遊佳殊窟記)等처럼 일대各神聖한意味를表現하는일흥도되고 또江界の家舍洞、端川の家舍山、漣川の袈裟坪、陰城、忠州의迦葉山、靈光의九岫山、彥陽의加士岫、蔚山、晋州의可樹介、三嘉古號의嘉壽、古阜古號의古沙夫里、開慶古號의高思曷伊、奉化古號의古斯馬、珍原古號의丘斯珍等처럼

諸種地名에널리의우는일흥에비로부러『マ』의形이잇섯스니迦葉原의迦葉이또한袈裟坪의一地名의說話中參入일것이다. (迦葉窟가든것은필시大迦葉彌足山入定의事에附會하러한것이깃지마는 다른데佳殊란일흥이잇슴으로외그原形을생각할수있다.) 또阿蘭弗의『弗』이舍利弗의弗과한가지인것의譯語인것처럼말하되 실상은解夫妻、延陀勃等の夫妻、勃과한가지로 當時男子의 美稱(乃至取號)에當함은뒤에받아질것이다.(五) 古傳說의綜合的研究의結果를據하건대 神話傳說의中에나오는人物에는 特定한個人이업고 大개는一國土、一王朝、一時代、一職業의人格化個人化한名稱이만다. 東明、赫居世等은다 그好例이다.(六) 『東明』所載、鄙著『朝鮮歷史通俗講話』開題第十五參照、巫의權威에關하야는瑠璃王十九年條도보라.

# 壇君論

(二九)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二九 王險城神說의 檢覈 (一)

檢覈 (一)

壇君의古傳이實質上에서佛典  
하고아모關涉이없음은 諸國의  
문어語實이損傷을바들理由는毫  
末도없을것이다。그런데一然과  
三國遺事와그引用한古記를흔드  
는것이 그대로壇君을부수는所  
以로알아서 이런니커러니胡亂  
의言을弄하고 甚한즉親睦하얏  
거나그리치안하도物的證據라도  
분명한것을못잡은도시그成立年  
代外지를말함은 진실로엄청난  
暴勇이아니할수없다。壇君의傳  
이아모리剝落殘缺이甚하고 變  
衰雜曲이重疊하얏을망청 원치  
고경이가잇는바에 그러케러문

이업시幻滅될外담이업스때 이  
네들의어방업는盲杖도각급가다  
가락거치고곽핵히는것잇을외담  
지안치못하얏다。先入之見으로  
壇君은僧徒의筆端에서産出되엿  
거니해노로도바이그러키만한것  
가지도아니한듯한片鱗이 눈앞  
해어른거림을 突케看過해버릴  
수는업섯다。自己의밋는바를反  
逆하는 이런部分이 謫기는미  
워도 이미잇는것을아주모르는  
체할수는업섯다。얼는眞理의良  
順한중도 되지못하고 現實로  
서 오는脅迫을 시원히掃却하  
자도못할外에 抹削論者의 마  
음에는 根與境의矛盾에因하는  
一種의煩悶이업술수업섯다。이  
것이그네들の中에업다고손을회  
회내어젓는一邊으로 壇君으로  
는업는것이자마는 樹神, 山神

혹城神가든것으로는 무슨根據 壇君을抹削하기爲하야는  
가잇다고 그물의一面을러노치려한想像을할수잇다는一例論  
안치못하게한所以이다。이러케그친다할것이니王儉을蒙端잡  
依違遷就하는것이 산아희답지아서 否認한그論을 우리는도  
못하다면산아희답지못하기도라로王儉을防牌로하야肯定의걸을  
지마는 당초에壇君을抹削한것일러주게됨이 재미잇다。  
합이 말답지도일답지도아니나 王儉의地理的考證은 七卷로  
에比하면 오히려그純撰한心論外에屬하니 우리는史漢의文  
을알아줄것이잇다할것이다。  
그러나此岸이래서妄執인것아니  
彼岸中流도다마찬가지이니  
君의正體를알려는이는 모름 (但大同江南岸)임을알면그만이  
이奮迅一番으로 다시棘藪  
외脫出하기를생각할것이다。  
알할하는이의一迷執은 鑿  
의名이란王儉에對한曲解로成  
것다。今西氏가든이는(一)國  
遺事의壇君傳이 그下의 子  
朝鮮이란題目과갓지아너고  
「王儉朝鮮」이라고顔한것의심  
을품어壇君이란것이대개高麗  
時代에平壤의古地名으로일것  
이後에原義를이켜버림으로써  
麗初을부터平壤의開拓者의  
의仙人實名으로轉하고 史에  
가서一轉化를遂하야 朝鮮祖  
인壇君王儉을지엇음을斷했다  
(前文七參照)이것은평건  
尙함과 아못조록 二字로縮約

한形迹은잇스되 大體는本土의  
原音을 그냥比對한것인듯하니  
이는東方의 다른部族及其住民  
에關한譯名과 他外邦의地名  
記載通例에準하야 大개의실업  
슬일이다。(二)이王險도대개  
는이通例에依하는土語의譯音일  
지니「王公說險」云云으로부터  
來한平壤의別名이라함은(三)실  
로牽強의說임을免치못하는것이  
다。或時가른字音中에서 特히  
王險兩字를取한理由가 여기잇  
것슬는지는모르지만 王險이  
란(혹이비슷한古音)名稱그것  
의 易文에서나왔다는은 또한  
本末主客을顛倒한妄想일디름이  
나。대처무슨한名稱과그字面이  
漢文乃至佛典)의原據를가짓슴  
즉한外에 그來歷과裏許의如何  
함을審察치아니하고 분득이것  
는同時에 어찌그것이이의稱謂  
가되었는지 그原由를버리고못  
지아니함이 許多한閑葛藤이만  
家の通弊요 許多한閑葛藤이만  
하야一端에서생겨나스니 우리  
더러말하라하면 王險云云의說  
도무론그中의一件이다

# 壇君論

(三〇)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三〇 王險城神說의 檢覈 (二)

王險이 이미故都일진대 都邑 大邑의義로(九)首都의稱에合함  
인表示가 그音義의中에 들었슬듯 等은 우리의推定을有力하  
도하다 震域古那의都邑의名號 支持해 주는感이있다 大개  
를考하건대 위선箕子南遷의都 意를表하는語이니『大』를主義로  
邑은金馬라하고(四)新羅의故都 堅固(『구도』)正直(『고  
는金城이라하고(五)百濟의初都 元首(『고수』)等の從義를가  
는恩禮城、漢城이나 南遷後에 드는)元首(『고수』)等の從義를가  
는熊川(公州)이라하고 高句麗 轉訛하야는『大』의形  
에는그故都『國內』稱이또한여기 容語로부러『至』(乃至『高』)의名  
가가우니이로써『高』(혹은『高』)이都 詞形을取하야 大者乃至神聖者  
(『高』首都)稱謂되는무슨因緣의 意味를가지게되였다시방金、  
있지아니한가를생각하것는데梁 健等字는이『高』의譯對字로 古  
書에 百濟에서는『呼所治城』曰代震邦人의都邑의稱으로例用하  
固麻라하고 新羅에서는『呼城 是語又字』니 梁書所云의百濟  
曰健牟羅라하고 新羅에서는『固麻』는 新羅古傳의『金』과  
것이果然한말이며 漢城의古號 한가지로 大이古義를傳할일것  
에關(關)彌의稱이잇섯슴즉함과 이다 王險은漢籍의上에는  
(六)國傳의金馬가漢籍의 乾馬 險으로傳하고國乘에는儉으로見

하야 是것이더正한것을말하 이니(十八)하는것이 大이類에 域은 眞實로部落的小國家의集  
기는어려우나 이미寫音의符의 屬하는것이다。이모든말은要하 合이였지마는 粟散各主하야全  
오 儉險의音이古에는외로通하 建대 어느地方이 어느程度 然히 不相干한者이였드나하면  
야字를混用하기도한것인즉(十九)의發達을遂하엿다는表示가되는 係가잇섯스니 그것은宗宗敎的  
아모것으로라도『高』의譯對라하 것으로(十九) 처음에는漫然히다 信仰的의階級 (Hierarchy)이였  
기에불편이업스니 이로써王險 萬한『夫餘』혹 汗伽椰等이라고 前出한 五加羅가金官加羅  
(儉)의險(儉)이곳都邑表示의古 單일켜져섯지마는 뒤에許多한 다。로宗主를삼음이나 諸韓이馬韓  
語인『高』인음을想像할수있다 夫餘나 加羅가成立되매 비로 宗主를삼음이나 諸韓이馬韓  
震域古代의地方區劃的名稱을 查하건대 大개地的狀態等等級 小各異한標別을부칠必要가生하 으로宗主를 삼음이나 諸韓이馬韓  
을表示하는基準的一語가잇섯가 是種目이서게되였으며 그러나 (Hieararch)視한關係이였다。그  
지고 上에特定的表示가添加 便宜上으로單히夫餘、加羅等으 려나가령金官은 加羅에서宗主  
됨이常例이니 『佛』(弗、伐、 羅부르느버릇은 依然히남아잇 노릇을호대 三韓의一로는한가  
夫里、火乃至扶餘)이란基準語 外(특히그根本部랄것에그러 지馬韓을 上宗主로하는것처럼  
가 잇섯가지고(十一)무슨『佛』하야외) 夫餘라고만하야도北夫 (二〇) 馬韓의上에는韓濊貊餘  
이란것이 여러키괴잇기를 小餘의稱이되고 駕洛이라고만하 를全統하는至上宗主가잇외 最  
하게는 新羅의弗(十二)과百濟야도 金官加羅를무르느말이되 高의權威를發揮하얏섯다。이狀  
의 夫里(十三)와가치하고 大였다。대개의通徵(類例)을알든 總의關係는여기 詳說할거를도  
하게는 夫餘로 化하야 東南 王險의原을考察하는上에 甚히 업고 後文에다시약간論及할  
北、卒本等の 扶餘가 잇섯스 喫緊事가되는것이니 王險의險 機會도잇겟스니外 아직省略하  
며(十四)『갈』(加羅乃至伽椰) (儉)이며개金城、金馬等の金과 거니와 『朝鮮』箕箕氏의王朝는  
이란 基準語가잇섯가지고(十)한가지로大都上京의意를가짐으 즐잡아도半島此方에잇는그總攬  
五)大、小、金官、星山、高靈、碧 로불것일진대 王이冠冠語는무 者이였다。(二二)그런데上世에  
珍等の 諸伽椰가잇섯으며 是엇이며 是어새서王險에만이려 잇는首都란것은 대개어는한地  
『한』(野乃至韓)이란 基準語가 冠冠語를必要로하고 國着하게 域의안에서잇는信仰의中心地를  
잇섯가지고 馬、辰、弁等の區別 되었는지를알게되는端緒가 오 짓는것이니 필시金城의『金』等  
을부처섯슴들이 大이類例이다。 로지이通則에서나온다。 에는이러한神聖地란意味를包含  
이맛게高句麗의忽이(十七)百 우리가다른여러가지의考察로 하얏것이며 이것은古語에神  
濟의只(혹은支)니(十七)新羅의喙 外아는바를據하건대 上世의震 을『高』이라함에도較量할것이다

# 壇君論 (三)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三一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

#### 檢覈 (三)

이로써推驗하건대 朝鮮이震  
域全體의敎權의中心인 同時에  
그首都는 卽지라도『金』中의『金』  
을받게업스리니 이러한最上神  
都에는 무론거기相應한記號가  
업지못할것이다。 이에 于儉이  
란稱이 생겼슴이리니 『土』이라  
것은 무론더게 至上最高를意味

한두는말의 對字일것이다。 대  
쳐全震域으로보면 『金』으로써  
號한 城邑이여럿이로대 각각一  
區宇식으로보면 一區一『金』에  
限하여 다른『弗』(夫里)이나  
『忽』과갓지아니함은『金』이最  
高의區劃인者로 一處에兩個부  
터를許容할性質의것이 아님에  
말미암는것이어니와 더욱最上  
의『金』으로말하면 全域을通하  
아唯一絶對의받게업스니 이는

唯一한王儉이『朝鮮』(古平壤)에  
存在한所以이며아올려王儉의王  
이여전한關係로생겨나스음을침착  
케하는 一端緒이다。(二二)  
그러면王儉의王은어떠한意味  
를가진것인가。 金富軾은三國史  
記에(二三)『或云王之都王險』이  
란一說을척어 대개險이都의義  
를認하는同時에 王을君王의王  
으로看做하는一例를지었고 그  
後의『王公設險』의文을云云하는  
者는 막비이類에屬하는者들이  
어니와 우리는다른모든古記上  
의名句를대개土語의音譯으로認  
하는것처럼 險字들이미그러  
케解釋한것처럼 王字가또한이  
런種類의一語일것으로무론王字  
를比對하게되무슨音譯것을생각  
한다。

震域의古語에무릇尊重主要한  
것을『重』으로써일카르스니母  
를『重』이라하고손가락에서도가  
장큰것을『重』이라하고 形容語  
에도超特한것을『重』이라함等  
은 前者의數例요 넷날에君主  
를『重』이라하고(二四) 사람에  
게도가장重大한것인精魄을『重』  
이라하고(二五)물건에도碩大한  
것은『重』이라함(二六)等은後者  
의數例이다。 朝鮮語에 尊丈을  
『重』이라하고上昇을『重』이라  
하고顔部를『重』이라하고(二七)  
核心을『重』이라하고(二八)日本  
語에偉大를エラ라하고 龜荒을  
アラ라하고(二九) 靈驗을アラ  
(タカ)라하고 宮殿을アラ카라  
하고(三十) 主人을アルジ라하  
고(三一) 主重을オモ라하고  
重視를オモン이라하고 顔面을  
オモ라하고(三二) 母를또한オ

モ라하고(三三) 天을アマ혹ア  
メ라하고(三四) 海를또한アマ  
라하고(三五) 滿洲語에 山을  
『아린』이라하고 魄을『오르』이  
라하고 氣息을『얼건』이라하고  
(三六) 蒙古語에 親을『우록』  
이라하고 脊骨을아루라하고  
(三七) 尊貴를『얼건』이라하고(三八) 氣  
息을『아미』라하고 唐古特語에  
上을『알』이라하고(三九) 同語  
에大를阿里라하고 米粟語에主  
夫、家長을 『얼』이라하고 오  
스타語에主君、貴人을『얼』이  
라하고 『핀』語에夫、武士를『우  
로호』 『오두』을『오』으로라하  
(四十)等은다國語『얼』의『오』의  
同根語、支生語、類語로볼것이다  
王險의王이며개이『얼』(又『오』)  
字가아닐가。

# 壇君論 (三二)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三二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

試하여 이것을古代的典則地의 名의上에摸索하건대 첫재國都의襟帶一國의大動脈이오 일변原始信仰의 一對象을지엇든江河의 의례하[王]호[王]의名號를帶한것이눈에의온다。朝鮮의列水(四一)夫餘의奄利水(四二)、高句麗의鹽難水、鴨綠江、百濟의郁利水(四三) 新羅의 關川(四四)等은 다域內諸水의元長이란意味로 부친일홍일것이오 濼洲의韓木河、蒙古의韓難河도 다어說話的脈絡을引한일것이다(四五)。山에도 一方의標幟되는者는 또한[王]의[王]의號를帶하[王]의[王]의名을帶한것을보아서 上頭의意味를有한都邑에도

도 또그러하였음을想像함은 의지가아니라할지니 王險은대개이러한內容을가진名稱으로推斷된다。이에關하여 智異山中의一邑으로 이神山의齋邑가튼性質을가진雲峯이 新羅時에母山縣으로서景德이란一名과한가지阿英城、阿英城[王]城、[王]城(五〇)의別號를가져서 城邑에도[王]의[王]의名用되는實證이잇슴과(五一) 一方의神山인紺嶽山을가진積城이 古에阿未城이라일카렸슴과(五二) 또震系의古民邦이國勢의發展을隨하여京이란大邑을置호며여려京의中에서上頭인者를[王]으로稱함이通例어늘 이는오래古風을大同으로承襲하여오는것이듯함(五三)의旁證이잇슴等은 王險이[王]의[王]의[王]의義임을倡言하는우리의 僻근기법이되는데바이다。이밖게도域內에王山이라고부르는것이여럿인中에 특히大邱의王山은八公山과合하여神域의趣를帶하고(五四)山淸의王山은山中에古壇壇의[王]한石丘가잇는靈時의感을生케함으로

잇스며(五五)의옥慶州에서豆豆은伐의對字一니 이는과과의里라는俗神의祀奉地를王家蔽라함은(五六)有力한[王]의一用例를어듬으로들것이다  
다시[王]을들려서 音韻의通則을발할하여 王[王]의[王]의[王]의[王]의對字로불安當率이 크게늘물안다。대커 支那人이外國의語音을寫譯할하여에는 반드시嚴密히原音을倣하는것만아니라그主觀的要求에依하는多少의變改가行함이만흐니 혹은雅化를因하며 혹은賤待를因하며 혹은縮約을因하며 혹은附會를因하며 또한[王]의音義變表의必要를因하여서로그러하며 이밖게近音相通의音韻의理由에서나오는것도작지아니하다。그중에도[王]與[王]와 [王]與[王]의母音相通과 [王]與[王]과 [王]與[王]等의子音相通은 그것이發音機關의些小한移變에不過하는것임과도音韻變幻의激甚한支那인만큼 癖한現象이었다。이外國故에 微意에서나왔을것이니 이것도보인古音數例를 王字關係으로그며로 王險上京說의一支持點로들어보건대 三國志에辰韓의方言을적되 「名國爲邦」이란邦(六十)은伐의對字一니 鷄林類事에高麗의國語를적되 「鞋曰盛」이라한盛은[王]의對字一니 이는[王]의轉派며 三國史記地理志所載의地名中에 「述川郡一云省知賢」은述與省의通用이오「上忽一云車忽」은上與[王]의通用이오(五八)「楊口郡一云嬰隱忽」의互通이니 이케케[王]與[王]의相混은 理論은어긋갓든지實例의[王]만흔音韻現象으로支那古今載籍의中에도 許多한證本을못찾을수잇는것이다。(五九)이로써말하건대그러치안하도上京을意味하[王]의譯字로 王險의字를用함은 조공도抑勒이아니나 우리의이見解가과히妄推만이아닐것이며 다만[王]字類에서 이兩字를집어쓰기는 易의「王公設險」의意味의連關을保케하러하는意에서나왔을것이니 이것도 王險上京說의一支持點로들라볼수잇슴이 母論의



# 壇君論 (三)

## 朝鮮을 중심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三三 王險城神說의 檢覈 (五)

(一) 丁若鏞我邦疆域考卷之一朝鮮考中에 『繡案易曰王公設險、以守其國、平壤之別名王險、蓋此義也、檀君之都於平壤、亦無信文、况姓名之爲王險有誰知之、仙人王險之說、編載東人之筆、照、改險爲儉、既其穿鑿、且史記直云王險、(不云王險城)、明是地名、以之爲檀君之名者妄也』 라하고 韓領書海東釋史續卷第二、朝鮮의條에 이것을 좀더敷衍하여 『按……平壤、自箕氏之末、不爲東國所管者、屢百年、魏晉之

際、句麗始郎焉、唐置安東都護府、陷於渤海、又屢百年、至高麗、始入版籍、新羅人、未會識平壤之如何、金侍中撰史既無本國信蹟、故徒襲杜氏之說、又以古記所云檀君王儉之說、傳會、至云平壤者仙人王儉之宅、自此東人撰述、踵成荒雜之說、曰檀君名王儉、一作王險、平壤號王險、一作王儉、平壤遂爲王險、牢不可破、檀君之都於平壤、亦無信文、况姓名之爲王儉、有誰知人、改險爲儉、尤其穿鑿……』 이라하니 今西氏의說은 대개 이것을 다시 한번推擴한것이다

古地名의 朝鮮、謂邯、浪水、含資、黏蟬、遂成、增地、帶方、颶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鏡方、提奚、渾彌、吞列、東隴、不而、露台、華麗、邪頭昧前莫、夫租(以上은樂浪郡屬縣二十五) 高句驪、上般台、西蓋馬(以上은玄菟郡屬縣三) 等に 三字의地名이 무릇四個를算하나 高、上、西等은그位置之表示로볼것인즉 邪頭昧가그唯一한例가될것이며 그字面의雅를務한것은손쉽게看取되는바이로대 오히려蕪雜又奇僻하여 依憑의可히指摘할것이적음은 그것이다대개寫音的倣古요 본대取義的新制定아넘을것이다 그中에 설사出典을스집어보아幾個가잇술지라도 偶合이거나혹音이相近한탓에假借한일디름일것이다

필시丁氏의說에서『한』을어든듯한者에 白鳥庫吉이잇스니그는王險은아니라 漢郡의古地名이 만히易文에서나왔음을倡言하였다 그는滿洲歷史地理第一篇『漢代의朝鮮』中에 일부러『地名의解釋』의目을베플고 種種의新說을세웠는데 樂浪郡의形勝을概說하고그首都의平壤일것을揣摩한뒤의流域은 東에峻嶺이矣고北에大河가흐르고 西는蒼海의渺茫함에臨하고 南은慈悲嶺의險阻를控하였는데 또平壤은이河水の中流域에位하여南北의要衝에當하고 海陸交通의樞軸을占하니 이는진실로山河四塞의地로 王者의據하여서開業立基할곳이라 그런데이것을名호대王險城이라하니 또한잘그形勝의義에協하였도다 易의上象辭를按하건대 『習坎重險也、水流而不盈、行險而不失其信、維心亨乃以剛中也、行有尚、往有功也、天險不可升、地險山川丘陵也、王公設險、以守其國、險之時用大矣哉』 라하였스니 王險

城의名은 대개此文에 由한것이로다。後世高麗時代에女眞의侵寇에備하러하여 東北男에公險嶺이란稱하는城을차흔일이잇섯스니 此名도또한易의上文에서出하였음으로집작된즉 王險城에關한如上的考案이반드시妄치아니하도다 果然이라하면王險城의建設이象辭製作의後矣戰國以後에在할것은母論이지마는 此名稱은箕氏의朝鮮王의選定에出하였는지 혹시衛滿의命名에係하였는지 이것이다시一考를要할問題로다。史記의朝鮮傳에는호츠로衛滿이王險城을據하여王이되었음을적음에그친즉 此文만가지고는 아직此城이과연箕氏王朝の時로부터이미同樣의名稱을질머지고왔든지아닌지를判定키어려운것이잇도다。그러나箕子王朝의王名이말씀易의文에關係를有함은 大略王險城의名稱의起原을推測함에 好例證을供할이아닌가』 하고

# 壇君論

(三)(四)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三四 王險城神說의 檢覈 (六)

(二의續) 다시實例를들어가  
로대 『就思하라 秦의始皇帝  
의녀에朝鮮에君臨한人을否라  
하니 卽然否는實로易의卦  
名이며 卽否의子를準이라하  
니此王의名은易의繫辭上傳에  
『易與天地準,故能彌綸天地之  
道』에서나온것이아닐가.『易  
의下經을보건대『六五,箕子之  
明夷,利貞』이란것이있고 그  
下象傳에『箕子之貞,明不可  
息』이란것이잇스즉 朝鮮國  
의始祖라고傳稱한箕子도 卽

한易經에대한人物이로다. 또  
從來로朝鮮國이周初에殷의遺  
臣箕子の創設에保한줄로信케  
되기는伏生의尙書大傳에『武  
王釋箕子之囚,箕子走之朝鮮,  
武王聞之,因以朝鮮封之』란  
것이잇고史記(卷二十八)의宋  
世家에『武王封箕子於朝鮮』이  
란것이잇고漢書(卷二十八下)  
의地理志에『箕子去之朝鮮』  
이란것이잇고『魏志의韓傳  
에引한魏略의文에『昔箕子之  
後,朝鮮侯云云』이란것이잇는  
等의文에因한것이갓지마는此  
等의書는모다後世人의編作에  
成하고先秦의文字에는아모대

도此事를적지아나하엿도다.  
『朝鮮의名의史籍에見하기는  
戰國末의書로아는國語로처始  
라한즉箕子로朝鮮의始祖라  
하는傳說에對하야는 크게疑  
를揮할餘地가잇도다. 思컨대  
箕子가歷史的人物이오또有名  
한賢哲이엇슴은 孔子의論語  
에 이를殷의三仁의中에舉하  
엿슴으로도알것이로대 卽  
朝鮮國의始祖를삼슴은 戰  
國時代에朝鮮半島에據하였든  
箕子의祖先이 自家의門閥을  
돕히기爲하야 當時彼等이가  
장愛讀한易經에 見한箕子를  
借來하야 그系譜를裝飾하는  
用에供할일지로다. 卽러朝鮮  
國의始祖箕子를始로하야  
그苗裔인否及準의名이 多易  
經에關係가잇다고하면 王險  
城의名稱도 卽然此王朝의創  
意에出하엿다고推測함이 決  
코無謀의言이아닐지로다』하  
고 다시『此外에古朝鮮의地名

에는易經에出典을有한者一不  
少하니 卽然魏而衛滿의時에  
朝鮮의屬國이된臨屯國은漢의  
臨屯郡의名은 易의臨及屯의  
卦를取한것일지오 卽樂浪郡  
의屬縣屯有의名도 屯의卦에  
出하하고 거기有字를부치기  
는 大有의卦名하고 同한熟  
語일지로다 帶水流域에잇스  
리라고推測된含資縣의名은易  
의上象傳에『至哉坤元,萬物  
資生,乃順承天,品物,德合無  
疆,含弘光大,品物咸亨』이라  
고한句에因한일것이며 卽昭  
明縣의名은 下象傳에『明出  
地上,君子以自昭明德』이라  
한것에因한일것이오 不然하  
면昭明星의名을取한일것이라  
로다, 鐵方縣, 帶方縣의方은  
既濟高의條에『九三,高宗伐鬼  
方三年克之,小人勿用』이라함  
에見한鬼方의方에同한일것이  
오鬼方의鬼는 二十八宿中  
南方七宿의 一인鬼宿을指함  
이니 鬼方이라함은 鬼宿의

方이라는意일것이오 卽이와  
同樣으로鐵方이라함은 西方  
七宿의一인婁宿의方이라 卽名  
일지로다 卽然대婁方이라함  
것을鐵方이라고쓰기는 西方  
은金氣에屬한다는 五行思想  
으로改改한것일가하노라 卽  
遂成縣의名은繫辭上傳에『參  
伍以變,錯綜其數,通其變,遂  
成天地之文,極其數,遂定天之  
下象』이라한文에因한일것인즉  
後漢書의郡國志에 卽것을遂  
城이라고改改하였슴은 當初의  
意義를沒却한것이로다 卽當  
時에大同江을부르는列水란名  
은易의同傳에『乾坤其之繩邪,  
乾坤成列,而易立乎其中矣』란  
것이잇고下傳에『八卦成列象  
在其中矣』라함에因한것이라  
로다漢書(卷二十八下)의地理  
志樂浪郡의條를보건대그屬縣  
吞列의注에『吞黎山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行八百二十里』  
라한것이잇스니 卽然대韓語

로는列을Pai, Poi라한즉 分  
黎山의名은이Poi의對音으로  
列의土言일것이며 後世隋唐  
時代에至하야 卽列水를漢代  
鴨綠江의名稱이든浪水와混同  
한것은 土言의Poi(Poi)가  
浪水하고音相似한故일가하노  
라. 만일以上의解譯과가치漢  
書地理志에見한地名도 卽然  
易經의文에出하엿다할진대  
此等의名稱은 漢의四郡이設  
置되든當時의命名에保한가  
혹시箕氏時代로부러이미呼來  
하든것을 卽然대襲用함에不  
過한가 이를判定함이甚히困  
難하지마는 漢의四郡이衛氏  
의朝鮮領에包含된地域에設置  
되엿슴은母論이오 卽然대衛  
氏의朝鮮本國은箕氏로서 略  
奪한것에 不外함을생각하면  
여기該當하는樂浪郡內의地名  
中易의文에緣故를有하는者는  
줄잡아도箕氏時代의名稱에從  
한것으로推測하야도不可치아  
니할가하노라』고結論하엿다

# 壇君論

(三五)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三五 王險城神說의 檢覈 (七)

(二의續) 易과 震人과의 心理的  
又事實的 關係에는 自吳徵妙  
한것이잇서 여러가지로 興味  
잇는 觀察을 試할수잇고 漢의 縣  
名中에는 그 字音을 易에서 借來  
한것이잇슴도 事實일듯하거니와  
여기 舉示된 例證을 말끔承認치  
못할것은 母論이오 또이말에  
는 엇지하야 易에서 그 字面을 假  
借하게된 根本動機에 對한 說明  
이 缺如하야 맞치그 名號가 易  
으로 因하야 불쑥 出現한것인듯  
하게 變들어 노릇은 또한 不羈  
의 論證을 免치 못할所以이다  
 잠시 그 個個의 引例에 就하야 그  
虛疎한 部面을 指摘해보자

王險의 字가 易의 象傳에 於나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地的 形  
勝으로 於왔스리라고 必은 甚  
한 獨斷이오 특히 王險이 易文  
이라함과 同時에 象傳의 成立年  
代를 顧慮하야 戰國에 下의 事  
리라고 斷하리함은 그것이  
民俗의 根據를 無視한임으로  
勿妥當率이 破減해짐을 아니  
할수업다. 後漢書 禮傳을 據하  
건대 朝鮮國 祖箕子와 古末王  
準의 間에는 世를 隔하기 四十餘  
를 算한다 하엿스니 倅잡아도  
準以前의 만흔 年代를 承認할것  
은 母論이오 그 동안에 도 王官國  
都와 및 그 稱謂 名號가 잇지아니  
치 못할것이오 또그것이 理由  
입시 中間 變改를 經하엿스리라  
고 必수업슴이 母論이다. 그리

면 象文의 戰國以下의 作임이 分  
명할진대 그럴수록 王險의 名이  
易에서 始하엿다는 見解는 의  
理由가 薄弱하야 짐을 두길 것  
이다.

또그 王險易文論의 旁證으로  
舉한 王名의 否, 準은 夬 夬 夬  
에서 借來한 字인 與否의 심히의  
심스리운것이니 兪재그 單字  
의 名이 넘어도 支那의 人點에  
於 그 名號의 原形인 지가 의 심  
스리운것이오 (鄭牟를 漢書  
에 駮로 縮하고 國岡上 廣開土  
境 平安好 太王을 晉書 梁書 通  
鑑에 다 安으로 縮하고

巨連을 宋齊梁魏周隋書 南北  
史에 다 璉으로 縮한것처럼 兪  
려字되는 原名을 漢雅의 으로  
주린것아 衿을 保키어 려운것이  
오) 兪사 朝鮮은 當時에 잇서

外 漢化文明의 中心地이 엿스  
니 外 此 此 漢式의 單名이 이  
미 行하야 矣다 할지라도 否, 準  
의 字를 본대 부터 易에서 借用하  
얏다고 必理山가 兪 兪 兪 兪  
수업다. 箕氏는 殷王室의 後裔  
라하거늘 殷代의 王名을 必  
大甲, 太庚, 祖乙, 祖丁 兪

럼 干名에 年序를 必치지 兪  
通例요 古年代는 周와 相伴하  
거늘 周代의 王名을 必건대 武  
王의 發과 成王의 福以下로 古  
祥의 字가 아니면 無意味한 當  
時의 俚語로 지 兪 兪 兪 兪  
슬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특히 經典의 依據잇슴을 尙한 實  
例는 必수업스니 此 兪 兪 兪 兪  
이 반드시 易의 句를 取用하엿  
다 必이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또그 字面을 必지라도 否와 否와 否  
은 字그것이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用할것지아니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의 卦의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오그 文이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物 不通"하고 上下不交而 天下  
無邦"하는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것은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하필이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다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로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法則을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名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辭의 句를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며 書(立政)에 宅乃事, 宅乃牧  
宅乃準, 惟茲后矣"또 立政, 任  
人, 準夫, 牧, 作三事"라하고

禮記에 推而放之 東海而準"이

란것이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因하엿다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러케 易上下 經十翼에서 孤立  
的으로 文字를 摘拾하기로 兪 兪  
면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할수잇스리니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論이라.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으로 易에도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는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실로 母論이며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야 箕子의 國祖化가 易經의 愛讀  
中으로 出來한것지아니 兪 兪 兪 兪  
스스로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름이다.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의 縣名에 易經出來의 文字가 兪  
슴과 王險의 字가 易經에 本하얏  
슴하고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國祖傳說하고는 本來不相干  
일것을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야 說明해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이니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니다.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이나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는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랜 傳說과 本土의 稱呼를 傳聞  
摸寫함에 不外한것을 兪 兪 兪 兪  
하면 兪 兪 兪 兪 兪 兪 兪 兪  
(詳細는 箕子論에 兪 兪 兪 兪)

# 壇君論 (三六)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三六 王險城神說의 檢覈 (八)

(二)의續)이 試試하여 白鳥氏의 學示한地名의中에서 比較的 鮮明히 漢與와 易意를 帶한것 數個에 就하여 外形에 拘하다 가는 內實을 일키쉬운 濶例를 보 일가한다 易의 成勿로 더부러 아주 一致를 示한者는 昭明이니 그의 外下 經晉의 豪傳에서 出하였다 한것이다 昭明의 位置에 關하여는 아직 定說이 없거 先儒는 만히 春川으로 當하고 (韓百謙의 東國地理志以下) 近來의 學者는 高開城으로 當하니 (滿洲歷史地理中箭內互의 『漢代의 朝鮮』) 그 理由는

바는 다 樂浪郡의 南方이라 함에 있다 昭明을 南部都尉의 治所요 都尉는 邊境警備의 職司이니 그 地가 主人 接觸의 端이 滋多한 處에 處하였을 듯함과 上代 漢江流域의 中에서 가장이 靑葛藤이 만키는 韓、濊、靺 靺、漢郡의 交衝인 그 上流 一帶임과 이 一帶地方 이원 池을 育한 一區를 지어서 官威를 保持하기에는 別로 一分宰를 要할 듯함 등으로 尙 달리有 力한 反證이 없기 外지는 春川을 昭明이라 한 先儒의 見은 大體 承認할 事이다. 그런데 이 것들을 地名의 上에 揣摩한 餘餘痕이 오히려 새로 發見된다.

(1) 百濟紀初頭의 百濟東 境問題에 關聯하여 走壤의 名이 자 조보이고 이것이 昔 春川의 地에 屬하였음을 新羅紀文武王十三年의 條에 『首若州 走壤城一名 迭崑城의 女으로 外분명히 알일이다 그런데 이 壤은 吾人의 研究를 據한 古音을 『나』혹 『노』이다 하야 高句麗及 濊語에 長流水 邊住地의 稱이 었스니 三國史記地理志의 記載를 據한 京畿 江原 忠清 等地의 高句麗古名을 新羅가 改譯한 枝에 骨衣 奴를 荒壤, 仍伐 奴를 穀壤, 仍斤內를 槐壤 今勿 奴를 黑壤, 於斯內를 斧壤이라 하얏스되 新羅에서 金壤이라 한것을 高句麗志에 『休壤一云 金惱』라 함과 純新羅의 地名에 이 類例가 없으므로 그 高句麗乃至 濊語임을 알며 壤의 原形인 奴, 內, 惱等이 總히 今語 『나』나 『노』 등의 古形임으로 尙 壤이 長流水 邊住地의 義임을 알 것이오 이로 尙다 시 平壤

이 尙 平(讀피)이라 한 壤, 矣浪 水, 矣浪 邊住地의 義임을 알 것이오 이 壤이 良 矣陽乃至 耶와 相通하였으므로 (新羅의 『江陽本大良州 良一作耶』, 『新良縣本百濟沙戶 良縣景德王改名今黎陽縣』, 『喜安縣本百濟欣良買縣景德王改名 今保安縣』 『礪良縣本百濟 只良省縣景德王改名今因之』等 考) 漢陽이 卽한 漢水 邊住地의 義에 不外함을 알 것이다. 漢陽古號에 平壤이 있다. 그런데 走壤의 壤이 卽한 走라 는 壤, 矣(走)의 水 邊住地를 意味함 을 尙다 알 것이다. (2) 三國史記地理志 高句麗條下의 『牛首州(首一作頭)一云 首次若一云 鳥斤乃』는 矣春川의 高句麗名을 列舉한 것이니 新羅 文武王時에 次를 略하여 首若州라 닐 커러 尙으로 輿地勝覽 春川郡名의 條에는 牛首, 首若, 壽春等을 적고 首次若을 모른 채 하였다. 그런데 牛首는 訓으로 『牛』라 함을 알 것이오

首若은 音으로 『牛』라 함이 卽한 것이니 字形은 風馬牛로 尙다 그 『牛』라 는 字를 意味함은 『말』과 『야』가 다 古語에 水又水 邊住地의 義임으로 尙 알 것이오 그런데 北漢江의 南北兩源이 春川의 北에서 合流하는 點을 부르는 昭陽이라 한 것이 尙 牛首, 首若의 一別譯임을 尙다 알 것이다. 昭陽의 陽은 卽한 漢陽의 陽에 準해 볼 것이다. 昭陽江의 下流를 新淵津이라 함은 輿覽에 적음과 가 르니 新淵도 본래는 卽한 『새말』(새못)의 一異譯으로서 뒤에 一地 點의 專名된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 그런데 『未都尼叱』今一作 味焰又未祖又未召(三遺年表), 『加詐縣本新羅加召縣(因方言相近變名爲詐)』(高麗史地理志二)와 이방 字音에 도 召, 狀等字가 又 人를 相通하는 例로 尙 볼진 卽 走壤과 昭陽이 卽한 一而不二임을 尙다 알 것이다.

# 壇君論

(三七)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三七 王險城神說의 檢覈 (九)

(二의續) 以上の實例로외

春川에비로부러水邊住地에因하는「서문」의稱이이것을알지니樂浪屬縣으로의昭明이란것이 변시이의寫音으로明이「明」의三音「神」化한것에不外함을알것이다。(明字의古韻을살피건대 詩經鳴東、楚茨、南山、大明、既醉、卿執競等諸篇에다陽韻字를마하얏고 易屯에明光長、書洪範에成明章康、禮祀祭義에上明倫을마하고 楚辭의惜誦、卜居、九辯과 老子의辯德과

莊子の天運、知北遊와 荀子の倫詩와 呂覽의盡數와 靈樞の外揣等이린叶韻의例가만흐니 奎章金韻陽叶條에도『談郎切』의音을出하얏다。이러케明의古音에는「ay」이이외「ae」과通하기쉬웠었다。이밖게도渾彌가대개廣開土王碑의闕彌、三國史記의闕彌、後世의黔(黔)州(黔)浦에當할것과 帶方、鐵方의方이眞番의番처럼「본」의(「本」譯作「明」的寫音일것과 關雎、海冥의望、冥이 또한「本」의一對字일것等을생각하면 반등견등과 엉거주춤의語原論이 어떠케透徹치못한것임을

알것ियो 趙善아도白鳥氏의古地名原於易文說이究竟은대증하기어려운것임을집착할것이다。다만가른地名이라도寫音하는字가王代를나러違異한例는三國史記에만히살린바요漢郡의名에도이미前漢과新莽의間에는얼만큼變通이더하얏음을보니 阡臨屯、昭明等이易文에原한것이라하면 그는필시衛滿前後、易崇尙이支那에盛한時代의一投影으로나볼것ियो(漢代에는易을通치못하면高等官이될수업는制度이엇다)。王險의字도대개이러한時代의一產物일것이다。易에외나왔거나 무엇에서 나왔거나 언케무엇에든지 字而의背後에잇는原形을審究할것ियो 字而下에서부러迷離摩準하면서 淺膚의見을得得히쳐음은 學者의상징일이아닐수업다。저『遂成天地之文』에서 一語를중동부이하야遂成만을집어내왔다하도록 거북한말을맨들이가면서 易에出

處를두려워할것은아모래도그리하기爲하야 그리할문이지 그런것을그리라는態度아님이母論이다。 肅慎이니 夫餘나 濊나貊이니하는것이 總히寫音이오地名이라도浪、列、帶、分黎、蓋馬가다그리하고 史漢以下史籍의外國傳中에나오는國城人物이 무비土音그대로의對音이니 獫狁의字形은어떠하든지凶奴의字義는어떠하든지그表形과贅義를超하야『동문』의實體의存在를認하는者는古朝鮮의國有名詞에서도 超字句의探原眞을힘쓰기를注意할것이다。 (三) 平壤도오랜일흥이오그것이浪水邊住地의義임과王險이「어든」, 矣最高都府를意味하는語로 平壤으로한가지一地에並行할수잇는일흥임과王險의語原이『王公設險』의文에잇다할지라도 그것은天固有한古名을 後에音義相近한이字句로勿譯對하얏슴에不外

할것은 上來의論證에서알는眞會되섯슬것이다。 (四) 金馬는「本」의對字이니 서울이란말과가래서 그位置는어대일는지 箕準의가외接한땅이면거기곳「本」일것이다。 (五) 慰禮는「은」의一形으로廣開土王碑의阿利와、百濟紀(美蘭王二十一年條)의郁里에同한것이니 水와城이다「은」의名을함한은 각기國中의首位이기때문이며 漢城의漢은「은」의類語인大를意味하는國語「한」의寫音이며 熊川의熊은「공」의「금」의譯字요公州의公은 그寫音이니 慰禮나 漢이나 熊이나 그最高者란意味에잇서서는 똑가른것일너름이다。 百濟에慰禮와한가지熊川이잇슴은 正高高句麗에尉那岩과한가지國內가잇슴과가르니 大都邑의類語들이다。(尉那岩도「은」혹「은」의異譯으로볼것이니那是耶로도通해볼것이다)。

# 壇君論

(三八)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三 王險城神說의 檢覈 (十)

(六) 麗碑의 關彌와 濟紀의 關彌는 天漢志의 渾彌와 한가지 그原義는 『M』城일지나 그位置는 一定하기 어렵으나 대개 그것이 漢水邊의 一要地요 大城임은 阿莘王紀의 『王謂武曰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耻也』云云의 文으로도 알릴 수 있다 後의 衿川(始興) 黔浦(金浦)等處도 그 한아름가 하거니와 大개는 百濟와 沸流의 故都이든 天의 襲用하는 일홍일가

한다  
(七) 三國志所載馬韓五十四國의 中에 乾馬가 든 한 그 한아니의 乾과 金馬의 金은 取字의 異일 터름일 가 한다  
(八) 關彌의 『M』이 今語의 『M』에 當 하는 것이오 漢의 原形 『M』이 본래 『M』의 派生語 임인 다 音例上 承認될 일이나 이와 根原을 한가지 하는 듯한 日本語의 (カミ)에 上頭의 義가 있음으로써 그 原義의 如何를 짐작할 것이다  
(九) 健은 두문 큰 古形의 對字요 牟羅는 『M』古語의 對字이니 今國語의 『마』와 『과』日本語의 ム라나 한가지로 來落의 義인데 都邑은 의 것의 張大된 것임으로 健牟羅니 큰 말이란 말이 생겼을 것이다 羅紀의 金城이란 것은 대개 健牟羅의 國傳일 터름이다  
(十) 儉과 險이 同音의 二派임은 지방 日本音이 한가지 케인임에서 도 짐작할 것이다 險을 假借하여 儉으로 用한 예는 爾雅釋魚의 『鰓大而險』(注謂汚薄) 周禮考工記弓人의 『疾疾險中』(注牛有至裏傷 按少實也), 春秋左傳襄二十九年의 『險而易行』等이 잇고 儉을 險으로 借用한 예는 劉修碑의 『勳乎儉中』이 잇고 儉을 儉으로 借用한 예는 荀子富國의 『俗儉而百姓不一』이 잇다 古韻에 儉은 文字符音에 敢과 마하고 險은 易坎彖傳에 坎과 마 하얏스니 그 『M』에 對音이 기 쉬우므로 볼 것이다  
(十一) 『M』의 一進한 것이 『M』이나 本의 『M』母關係로 弗(火)도 되고 伐도 되고 語

尾가 생하여 夫里가 되고 夫里가 轉하여 夫餘가 되었었다  
(十二) 徐耶伐, 本比火, 毛火, 居知火, 退火, 奴斯火, 切也火, 刀冬火, 骨火, 史丁火, 于火, (弓弗), 推火, 西火, 比自火(比斯伐), 遼句火, 唱火, 古火, 音里火, 屈火, 加圭火, 赤火等 國原, 小原等의 原이 또한 弗의 異形일 듯  
(十三) 所夫里, 古良夫里, 古沙夫里, 夫夫里, 末冬夫里, 半奈夫里, 毛良夫里, 波夫里, 爾陵夫里(竹樹夫里, 仁夫里)等. 三國志馬韓國名中에서 次조나 오는 何何卑離란 것이 이 夫里의 別譯임은 母論이다  
(十四) 古震語의 音韻에 큰이 卜로 轉化하는 一法則이 잇스니 加羅(加)가 伽羅되고 大良(달)이 大也 담음이 그것이다 夫餘도 실로 이 法則에 依한 『M』轉化이니 後에야 말로 北夫餘나 東夫餘니 하야 夫餘라 하면 儼然한 一國의 稱이 되었스나 본래는 一邑落의 稱謂일 터름이

었다. 徐羅伐가 든 것은 邑으로 國化한 名實兩方의 適例라 할 것이다  
(十五) 加羅의 原語인 『갈』은 갈래, 갈앵이 등치런 『갈』(分岐) 名詞化의 一語이니 古語의 『갈』과 今語의 『갈』에 古原을 가 치하는 者로 何何加羅라 함은 번서 何何支派호 何何團部의 意를 지는 것이다  
(十六) 忽은 맛당히 『M』로 讀할 것이니 今語 『고』의 一語 原이 되는 것이오 三國志의 『溝婁者句麗名城也』라 함에 當하는 것이니 高句麗地名에 忽을 帶한 것은 다 大邑이 었다 仍忽, 奈兮忽, 沙伏忽, 買忽(水城) 上忽(車忽), 買召忽, 彌鄒忽, 首尔忽, 童子忽, 迷尔忽(首泥忽), 多知忽(大谷郡), 買且忽(小谷城), 德額忽(十谷縣) 冬音忽(鐵監忽), 弓次云忽(五谷郡), 內米忽(池城), 漢忽(漢城, 息城, 乃忽), 冬忽(子冬於忽), 冬斯忽, 比烈忽, 淺城), 加阿忽(淺城), 遼忽等

었다. 徐羅伐가 든 것은 邑으로 國化한 名實兩方의 適例라 할 것이다  
(十五) 加羅의 原語인 『갈』은 갈래, 갈앵이 등치런 『갈』(分岐) 名詞化의 一語이니 古語의 『갈』과 今語의 『갈』에 古原을 가 치하는 者로 何何加羅라 함은 번서 何何支派호 何何團部의 意를 지는 것이다  
(十六) 忽은 맛당히 『M』로 讀할 것이니 今語 『고』의 一語 原이 되는 것이오 三國志의 『溝婁者句麗名城也』라 함에 當하는 것이니 高句麗地名에 忽을 帶한 것은 다 大邑이 었다 仍忽, 奈兮忽, 沙伏忽, 買忽(水城) 上忽(車忽), 買召忽, 彌鄒忽, 首尔忽, 童子忽, 迷尔忽(首泥忽), 多知忽(大谷郡), 買且忽(小谷城), 德額忽(十谷縣) 冬音忽(鐵監忽), 弓次云忽(五谷郡), 內米忽(池城), 漢忽(漢城, 息城, 乃忽), 冬忽(子冬於忽), 冬斯忽, 比烈忽, 淺城), 加阿忽(淺城), 遼忽等

었다. 徐羅伐가 든 것은 邑으로 國化한 名實兩方의 適例라 할 것이다  
(十五) 加羅의 原語인 『갈』은 갈래, 갈앵이 등치런 『갈』(分岐) 名詞化의 一語이니 古語의 『갈』과 今語의 『갈』에 古原을 가 치하는 者로 何何加羅라 함은 번서 何何支派호 何何團部의 意를 지는 것이다  
(十六) 忽은 맛당히 『M』로 讀할 것이니 今語 『고』의 一語 原이 되는 것이오 三國志의 『溝婁者句麗名城也』라 함에 當하는 것이니 高句麗地名에 忽을 帶한 것은 다 大邑이 었다 仍忽, 奈兮忽, 沙伏忽, 買忽(水城) 上忽(車忽), 買召忽, 彌鄒忽, 首尔忽, 童子忽, 迷尔忽(首泥忽), 多知忽(大谷郡), 買且忽(小谷城), 德額忽(十谷縣) 冬音忽(鐵監忽), 弓次云忽(五谷郡), 內米忽(池城), 漢忽(漢城, 息城, 乃忽), 冬忽(子冬於忽), 冬斯忽, 比烈忽, 淺城), 加阿忽(淺城), 遼忽等

# 壇君論

(三九)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三九 王險城神說의

#### 檢覈 (十一)

(十七) 後에新羅가城으로외  
 譯한百濟古語에『기(지)라』라것  
 이잇서 『기』의轉例를잇는듯  
 하니 伐音支, 仇知, 伐首只,  
 悅已, 奴斯只, 結已, 豆仍只,  
 所力只, 屈支, 菓支, 栗支,  
 遁知, 豆夫只, 多只, 古祿只,  
 奈已等이다그것이다。日本語  
 에新羅를シラギ라하는키가이  
 에當한다함은 大개그르치지  
 아니한것이어니와 우리의생  
 각에는百濟人의新羅부르든말  
 을배호것이가한다。(新羅에도  
 關城郡本關支縣의例가잇기는  
 하다) 『지』라하면시방도城을

『재』라함에當하며 또스기相  
 通은百濟遺土의音韻常例인즉  
 大개城을『재』로訓하미 본대  
 音↓マ↓과↓기↓지↓로轉變해  
 나려왔을것이가한다。古記의  
 借字에居, 巨, 己, 奇와監,  
 甘, 今과通用한事實을較量할  
 것이다。

(十八) 梁書를據하건대 新  
 羅에서는 『其邑在內曰琢評在  
 外曰邑勤』이라고하였다。이琢  
 評은三遺辰韓條에 『辰韓：名  
 稱所居之邑里云沙涿漸涿等』  
 이라한注에 『羅人方言, 讀涿音  
 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  
 道』라하고 또新羅始祖條에  
 辰韓六部의名을擧호대 中에

及梁沙梁, 漸梁, 牟梁의名이見  
 하고 牟梁의注에 『梁讀云道,  
 或作涿, 亦音道』라한것이니  
 이는시방도 露梁, 鷲梁의梁  
 『道』이라고읽음가튼것이다。  
 梁書所載百濟의『謂邑曰擔魯』  
 라함도이의類語일가한다,  
 (十九) 『단』은團聚하야잇슴  
 의義이니 今語『무리』(群)의  
 類語요 『단』은開發된義의義  
 이니 今語『밤』(明)의類語  
 요 『단』은區劃된義이니  
 今語『그늘』(測)의類語요 『단』  
 은 掩護된곳의義이니 今語  
 『늘』(圍)의類語요 『단』은測  
 據한곳의義이니 今語『갈』(分)  
 의類語이다。다社會的發  
 達의程度를表示하는語級인것  
 이다。

(二十) 三國志韓傳弁辰의條에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  
 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  
 五萬戶, 其十二國屬辰五, 辰  
 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明  
 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  
 制)』라하고 馬韓의條에 『辰

王治月支國』이라하였는데 後  
 漢書同條에는 『韓有三種, 一  
 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 皆  
 是馬韓種人焉』이라하였다。  
 馬韓의馬도대개는『마리』(首)  
 의뜻을가진것일가한다。

(二十一) 朝鮮은當時에잇서서  
 文化와勢力이아울러最高最大  
 한者요 國祖初降의傳說處로  
 祭司總長의奠座地가되였스니  
 우리의생각에는樂浪도『인나』  
 이라함을것으로 尊上地를意  
 味할일가한다。

(二十二) 『기』은古語에神(魂靈)  
 을意味하는同時에 首長, 尊  
 貴의義를가짓슴은 日本語의  
 カミ에서徵驗하는바이다。

『金』스리은곳이라함이 金城  
 其他『금』으로외부르는古都의  
 名稱이생긴所以일것이다。

(二十三) 前出東川王紀의文이그  
 것이니 人名王儉과 地名王  
 險과를結合한最初의例로注意  
 할것。

(二十四) 後周書에최은百濟語에  
 『王號於羅耶, 民號爲羅吉支,  
 夏言並王也, 妻號於陸, 夏言  
 妃也』라한것과 日本載籍에  
 보이는加羅及百濟의王號를阿  
 羅斯等, 阿利叱智, 阿利斯,  
 安羅臣智라고한것等으로외  
 알것이니당초에는今語의 『얼』  
 은『그대』로君王을尊稱하얏든  
 것이양하다。

(二十五) 莊子에神을眞宰라하고  
 荀子에心を天君이라한것처럼  
 國語에精神氣魄을『얼』이라함  
 도 또一身의主宰君長으로생  
 각하얏기때문이다。

(二十六) 빛의窟은것을 『얼레  
 빛』의窟은것을『얼레미』대  
 장을『얼추』, 일의심씀허아니  
 하는것을『얼렁얼렁』, 『얼쑤얼쑤』  
 쑤』이라하는바위。

(二十七) 『얼』(古語로인름)은  
 『얼』의輪廓乃至典型이라함이  
 니 『얼』도人身의上部에잇슴  
 을意味하는것이다。

(二十八) 『알』은『맹』이다그것  
 의가장主要根本된點이라해서  
 생김말이다。

# 壇君論 (四〇)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四〇 王險城神說의 檢覈 (十二)

(二九) 아라가시방은物의 麁粗

不細密한것을나타내는데말이지

다는 본래는 古크고그언칭

난것을이름에외誘導된말일것

이다。시방도사람의暴勇스리

웅과波濤洶湧함을 또한아라

(三〇)라함은 古義의 一部를傳

함일것이다。

(三一)萬葉集二의『み存香(아

라카)をたかしりまして』의아

라카는古語拾遺의『瑞慶古語

美豆能美阿良可』라한것처럼

(尊者)의얼에淵源을가질것이

다 (三二) 顔面이人體에서가장

主重하며서 또한아모라함일

것이다。

(三三) 日本書記仁賢紀에보

인『於母亦兄、於吾亦兄』於母

亦兄、於吾亦兄、此云於慕尼

慕是、阿例尼慕是』라한것처럼

日本외도古에는母親을아

모라하니 이것은 父親을아

모라함의 國語『어』의轉입

처럼아모가『어』의轉입것은

얼는살인일이다國語의『어』이

母와한가지尊重의義를가진것

처럼日本語도아모가母와아울

임이 우리의이設想을되칠것

게하야준다 (主要한語原按

說에關하야는 日本外來語解

典四頁을보라 其他平井、木

村、石山諸氏의巴比命、猶太、

希臘等諸比較說이있지마는얼

는首肯하기어려운것들이다)

(三五) 海를아라함도『海於

天地間爲物最鉅』(韓愈南海神

廟碑)의말맛다나 그法大의엄

칭남으로무러일홍하게되일것

이다

(三六) 同文類解參照 山은

높음으로『山』의名을엇고魄

은人身의임자인편으로서『魂

의陽、卷八十七의牙里、卷一

百六의燕里等은 元史語解에

『雅爾唐古特語上也』라하였다

이것은 이語族의『말』原義의

가장오랜것을傳함으로볼것이

다。

(四十)便宜上、日本外來語辭

典二二頁52條參照

(四一)列水는近來의研究를依

하야 浪水의別名이라하게되

고그原語에對하야列을訓讀하

야 浪水의別形처럼말하는이

도생겼다。(上出白鳥氏說參

照) 그러나 漢籍所傳의다른

모든震域古代地名이 다寫音

『惟昔始祖都牟王之創基也、母

河伯女郎、剖卵降出、生子有聖

德、命駕巡車南下、路山扶餘

奄利大水』라한것이잇스니

이奄利大水란것은 東明創業

談에는세지못할一要素요 어

는所傳에든지다나오는것으로

論衡、後漢書에는掩漉水、魏略

에는施掩水、梁書에는掩漉水、

三國史記高句麗紀에는混漉水

로보였다 那珂通世와가치

魏略의施掩을倒置로보면 掩

奄은掩과通하고 漉施漉는大

의音에近한속 諸書는다奄利

大의利의音을略한것이라함이

聖所(尊嚴所)의義를含한兩地

共通語의日本獨傳일지니이것

이야말로우리『王險』尊地說의

근依憑件이될것이다王險即아

라카로 들이互證關係를가짐

일것이다 (카는스ミカ、아

리카의카와한가지 그場所를

가르치는接尾語일것이다)。

(三一) アルジ는임자、主宰

者、頭領、家長等の義를가진

語니 이アル가또한 얼은

말가지로 天을祖視하는民族

의

말가지로 天을祖視하는民族

의



# 壇君論 (四一)

## 朝鮮을中心으로 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四一 王險城神說의 檢覈 (十三)

廣開土王碑에 阿利

水를 건너 百殘王城을 逼迫한

句가 있는데 當時百濟의 國都

는 南漢方面인즉 阿利水의 漢

江임은 分明하다。(朝鮮歷史

地理第一卷四三頁。百濟慰禮

城考의 文參照) 百濟紀蓋鹵王

二十一年의 條에 보이니 郁里河가

그것임도의 심입슬임이니 漢

江의 古名에 대한 『정』이 잇슴을

알것이다。漢水에因하여 漢城

이 잇는것처럼 慰禮城의 名이

郁里河에 因한것이라하는 津

-11 14 50 198" data-label="Text">

田氏의 說도 머치는 承認될것

『正』의 一形으로 볼것) 또 그것

은 그것의 聖水로 禮浴地, 公議

場인것은 三國遺事新羅始祖의

條의 三月初, 六部祖, 名率子

弟, 俱會於 關川岸上, 議曰, 我

輩上無君主, 臨理蒸民, 民

皆放逸, 自從所欲, 蓋竟有德

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와 金克己集의 『東都遺俗, 以

六月望, 浴東流水, 因爲稷

飲, 謂之流頭宴』과 이라함으로

외 짐작할것이고 『北川이 崇

祀되는 徵迹은 三國遺事(卷二)

元聖大王의 條의 『伊殮金周元

-11 211 50 396" data-label="Text">

初爲上宰, 王爲角干, 居二宰,

英井』이란것에 準하여 關의

『正』로 讀할것임을 알며 『日

本載籍에 보이니 阿利那禮河란것

도 『日本書紀神功紀의 文等』의

시이 關川의 說話上 投影일것이

다 그런데 이 關川에 北川의

別名이 잇고 『東京雜記, 北은

『正』의 一形으로 볼것) 또 그것

은 그것의 聖水로 禮浴地, 公議

場인것은 三國遺事新羅始祖의

條의 三月初, 六部祖, 名率子

弟, 俱會於 關川岸上, 議曰, 我

輩上無君主, 臨理蒸民, 民

皆放逸, 自從所欲, 蓋竟有德

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와 金克己集의 『東都遺俗, 以

六月望, 浴東流水, 因爲稷

飲, 謂之流頭宴』과 이라함으로

외 짐작할것이고 『北川이 崇

祀되는 徵迹은 三國遺事(卷二)

元聖大王의 條의 『伊殮金周元

以疾不出, 再通曰願得一見, 王

諾之, 阿殮曰公所忌何事, 王具

說占夢之山, 阿殮興拜, 曰此乃

吉祥之夢, 公若登大位而不潰

我, 則爲公解之, 王乃辟禁左右

而請解之, 曰脫幪頭者, 人無居

上也, 著素笠者, 冕旒之條也,

把十二絃琴者, 十二孫傳世之

兆也, 入天官井, 入宮琴之瑞也

王曰上有周元, 何居上位, 阿殮

曰請密祀北川神可矣, 從之,

未幾, 宣德王崩, 國人欲奉周

元爲主, 將迎入宮, 家在川北

忽水漲, 不得渡, 王先入宮印位

上宰之徒衆, 皆來附之, 拜賀新

登之主, 是爲元聖大王』이라함

에서 약간 삼킨것이다 古傳說

에 斯盧六村에 關川楊山村이 머

리가 되고 新羅의 始祖가 이 楊

山의 麓에서 卵生하였다 하고 後

에도 三遺眞德王條에 보이는데

의 地位를 나타낸것들 노도 볼것

이다) (四五) 韓木河는 吾音會로도

作하여 市傍會寧의 女眞名이

오 會寧의 別名인 蒸山의 出處가

되는것인데 輿覽에 『滿江』이

라한 鎮山을 蒸山이라함으로 勿

韓木河의 名이 이 山與河로 勿

간것아닌가를 생각케한다 (輿

地勝覽五十, 會寧都護府條參

照) 이것이 滿洲源流考卷一部

族篇에 載한 滿洲建國說話中の

『長白山東南鄂謨輝之地』라한

것으로 滿洲族의 發祥地라하는

곳임은 先輩의 考說과 같다。우

리는 다만 그 音의 『음』이 오래

來歷이 잇슬듯함을 注意하려 할뿐

이다) 蒙古의 建國說話에 나오는 韓

難河도 『언』이란 古音을 그대로

看過할것아니다 (元朝秘史卷

一) 當初元朝의 人祖, 是天生一

箇蒼色의 狼, 與一箇憐白色의

鹿, 相配了, 同渡過 曠古思名

字의 水, 來到於 韓難名字의 河

源頭, 不兒罕名字의 山前住着,

產了一箇人, 名字喚作 巴塔赤

罕) (四四) 慶州의 東川을 關川이

라하니 三國遺事卷一新羅始

祖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의 條, 閔英井下의 『一作娥利

# 壇君論

(四二)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四二 王險城神說의

檢覈 (十四)

(四六) 智異山中에잇는郡邑이라한雲峯의古號에 母山, 阿英, 阿莫等이잇슴은필시山의故名에『오』이잇든외타일지요. 또그것을시방俗稱에『어머니山』이라한이오런來歷잇슴을알것이다. (輿覽卷三十九參照). 山中의大動脈이라할大水에嚴川의名이잇고 (輿覽三十一, 咸陽山川條參照) 또上峯의東下에잇는神窟을岩法主窟이라함의 (李陸遊智異山錄參照) 다『오』山時代의遺痕일것이다. 智異山神을天王聖母라하야 시방외지도近民

의尊祀가盛하거나와 이聖母의本體가당초에는智異山그것으로부터차차人格化母性化한것을『오』으로알고 또그러케부르든것일가한다. (詳細는鄙著『智異山』에미룬다). (四七) 『오』山도『岳山』을山』等키럼어는地地域다다한아식잇섯을것이나金溝의母岳山, 同福의母后山키럼 字譯한것과한가지 藍浦의峨嶺山, 鴻山の阿彌山, 永春의於羅山鐵山の於郎山키럼 音對한것도잇슬지며 其他許多한轉變形으로域內에散布하엿을것이다. 일을테면牙山은百濟의牙

述縣으로부터 新羅에는陰峯이되고高麗에는仁州란일흥을어덧스니 牙, 陰, 仁共通의語原에『오』이잇섯을것을想像할수잇슴으로牙山이더개『오』山이든것을 짐작할따위가 그一例일가한다. (牙山舊城을於羅振山城이라하는於羅의字도 注意에值한다). 金山屬縣의禦侮와 永同의於里山과其他嚴, 陰을接頭로한地名에는尊勝의義인『오』(『오』)이그語原을짓는者—만홀것이다. (四八) 契丹國志에『長白山在冷山東兩千餘里, 乃白衣觀音所居, 其山禽獸皆白』이란것이잇스니 白은此方의聖色이오神像에는白衣를穿한이古例임으로쳐 白衣觀音이분머는長白山聖母의佛敎에攝化된일흥이줄을 짐작할것이다. (白色에關하야는昨秋東亞日報學窓欄에連載한것이잇다). (四九) 佔俾齋金宗直頭流記行錄에『：登天王峯, 雲霧蒼勃, 山川皆閣, 中峯亦不見矣

空宗先詣聖母廟, 祠屋但三間, 嚴川里人所改創, 亦板屋下釘甚固, 不如是則爲風所揭也, 有二僧, 繪畫其壁, 所謂聖母, 乃石像而眉目鬢髮, 皆塗以粉...』이라하고 灌纒金駟孫續頭流錄에는『：登天王峰, 峰之上, 有板屋, 乃聖母祠也, 祠中安一石塑, 爲白衣女像, 未知聖母是何人, 或曰高麗王太祖母, 爲生育賢王, 能統三韓, 故尊祀之, 式至于今嶺湖之間, 要福者歸之, 奉以爲淫祀, 仍成楚越尙鬼之風, 遠近巫覡, 憑茲衣食之』라하였다. (聖母를누구니 누구니 하는것은 다 古義를 모르고져 되는대로 짓거림들이다). 昨年에내가天王峯에올라가져 聖母祠에瞻拜할때에도石像이依然히十襲白衣에차혀잇슴을보니 白衣는필시오래來歷을가짐일것이다. (五〇) 蓋馬大山및해西蔡馬縣이잇고(後漢書郡國志玄菟郡)任存山및해任存城이잇는것키

령(資治通鑑注) 古代의城邑에는 그所在의山(흥水)名그대로를탑하는일이만라 시방雲峯이란것부터『오』(흥)일운의의 雅化된것임은 알는삼인수잇는일이다. (五一) 阿英은三遺新羅始祖條所載의娥利英에準하야 雪母의尊號임을알것이오 (『오』의對字일지도모르며) 阿莫은『오』(흥)『어미』의對字인것이니 阿英城, 阿莫城은『오』(흥)城의對字의義이다. (五二) 輿覽卷十一에『紺岳祠, 謠傳, 新羅以唐將薛仁貴爲山神, 本朝以名山載中祀, 春秋降香祝以祭』하니薛仁貴云云은키扶安邊山에蘇來를蘇定方에附說하는것키럼 震堀古敎의一神格인『손』의種種譯字를古義를忘失한뒤에 마침내하고의戰地이엇든것을因緣으로하야 이런附會를 한것들이다. (鄙著『尋春巡禮』七四頁參照) 阿來城은이紺岳山(俗稱紺岬)의對字인故城이다.

# 壇君論 (四三)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四三 王險城神說의 檢覈 (十七)

(五三)金에서는舊土의海古勅의地를 初에 內地라하다가 나라이키키五京을두마이를上京이라고일카릿스며 前의 遼도五京을두고 그本起地인 長春州를 또한上京이라일카릿스며 또그前의渤海도五京을두고 首都를또한上京이라 고일카릿다。(便宜上,滿洲源流考卷九至十二參照)그런데 靺鞨七部에는粟末이根本部요 粟末部는시말寧古塔이그中心地이엇슴은 그四旁에서當物의遺物이쓰다키나옴으로도알

것인데寧古塔(Mingata)의語原에 關하야는 從來滿洲語『古箇』의義(나우)으로當하고 兄弟六人의居住云云의起原說話가생겼스나 우리의見解로는역시 滿洲語의上頭를意味하는『나우』로되나옴은것으로同文類解上卷地理參照)渤海上京의名稱이流傳함으로 볼것일듯하고 또그淵源은勿古(靺鞨)時代에외지溯上할듯하나 대개粟末은 勿吉諸部中의『寧古塔』(上頭)이든것일가한다 또그前의 高句麗에는漢代로부터 五部の制가잇고 部名은國乘,漢文,倭籍에種으로傳하나 魏志에『本

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라한涓奴(國乘所謂椽那)인나이의인,又上部를意味하는것으로 倭籍에보이는『上部』라는데當할일지모를것이니 여하간그中에는一種의上京이잇섯슴은母論이며百濟에는 五方이잇고 『固麻城』이그統治地임은後周書에 의한것이오 新羅는六部가잇서 首長이金城에主한것은國乘에傳한인데 固麻와金과가다大城의義일것은 上文에考說할과갓다 이려케(특히古代일스록)五京乃至六七部の聯立으로나라를만들고 上京(그비슷한것)잇서 總覽함은震域古民邦의通例이니 下代에는그것이政治的統屬關係를化하였지마는 上代에는 대개一種의宗教的 階統關係로 볼이可한것이엇다 아마이러한體制는 三國以前에 外지그淵源을 차키볼수 잇슬듯한것이다。

(五四)輿覽卷二十六 大丘府山 川條『王山、在解顔縣』, 또『公山、或稱八公山、在解顔縣北十七里、新羅稱父岳、振中岳爲中祀、環而居者、府及河陽新寧、岳溪、仁同、八莒等邑也』라하니 父岳의父는『어』로讀할것이다。

(五五)同卷三十一 山陰縣山川條『王山、在縣西十里、山中累石爲丘、四面皆有階級、俗傳王陵云』, 王陵은『Pomiji』의 訛요 丘는『Pilsig』古祭壇의遺墟일것이다。

(五六)東京雜記卷之二 古蹟條『王家殿、在府南十五里、州人祀木郎之地、木郎俗稱豆里者、自鼻荆之後、俗事豆里里甚盛...』

(五七)『고』同과『口』同의相通은 國語音韻의一例則이니 더욱은下에『音』을써어그려하다。 단것을『다』, 『언』, 『정』, 『영』, 『은』이라하게되엇다의이다。 王儉도이런것의한아이다。

(五八) 上忽의上은『술』혹

『수리』의寫音일것이다

(五九) 위선과與○間의例로 『Kalayasa』 曷良耶舍, 또삼가를상가, 삼기를생기, 승기를승기라하는것처럼 口與○間의例로 『Sanikhya』 僧佉, 『Sanighari』 僧伽梨, 『Sinhala』 僧伽羅, 『Fausaka』 恒婆迦, 『與○間의例로』 『Aukusa』 央俱舍, 『Sarasvata』 商那和修, 『近者의例로』 『明清間來仕한西人名字의譯에』 『Francois』 方濟, 『Orsis』 熊, 『Emmanuel』 陽瑪諾, 『Alonso』 王魯滿, 『Amling』 于朮, 『(六〇)』 朝鮮부터土語의音을寫하면서일은마東方에잇서朝日이先鮮한것을물수만잇스면이古代의譯名은할수만잇스면이러케하기를일손것들이다

# 壇君論

(四)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四四 王險城神說의 檢覈 (十八)

以上에서 우리는

(1) 平壤은震域最古의都邑  
으로만드시오랜名號를가것  
술것

(2) 平壤은當時最高의都邑  
으로 그名稱에는대개이意  
味가包含되어술것 (더욱宗  
敎的理由에依하야)

(3) 그것이漢文化輸入以前

의事實이것슴으로써 그名  
稱은固有한民俗에依한本土

語로되었것술것

(4) 王險 (儉)을「왕」  
(왕)으로불써에 그  
條件이이에合할뿐아니라

아올려民俗의類例와 音韻  
上通則에相當한根據가있는  
것,

(5) 實히王險을易의文句  
로脫化한줄로만봄은 無  
謂한일이오 諺字字面이그  
러라할지라도 그는本土의  
古稱을寫出하기를이文字로  
써하얏슴에不外할것,  
(6) 古地名의漢譯例를보건

대可能한데外지는 (音韻약  
간枉曲하야가면되라도) 寫  
音과한가지表義를兼하러하  
얏스니 아케王險이란字로  
외譯對한것이이미 거의  
가볼대 王國의城邑 (혹一  
域의上都) 이란것을되는데意  
味를가것슴을反映한것으로  
보암즉한것

(7) 等語어말하면 王險은  
地名의으로 오랜來歷과  
분명한根據를가진것임

을약간考察한것이다。더욱王險  
名不古說의大支柱를짓는易의  
「王公設險」一段으로말하면 여  
기다시

「王公設險以守其國」의文  
이일부러짓는上으로말하면  
邊邑이면모르되王都의名으  
로는본대부더適切한것아님  
(2) 支那의地名에는 險字  
를쓰일어거의업고 쓰는것  
은그形勝의噓語에나限한  
을말하야

(3) 易이본대天則으로外人  
으로주겠다。

事를準하야 그吉凶、易險  
의端을보이려한文字어니와  
險이란字는실상凶字의別用  
가라서 자가네가易에依하  
야일흥을짓는다하면 구태  
이런字句를餘選하얏것술리  
見할는지도모르것지마는  
에止하야 아직學의斷案을만들  
기에不備와不實이잇슴은事實이  
더研究를커보면 우리스  
스모엇더한新視野와新論點을發  
見할는지도모르것지마는

(4) 易에는커칠로險字를만  
히엿고 또王險兩字가一處  
에並會한것만하야도都의象  
傳에「師衆也、真正也、能以  
衆正、可以王矣、剛中而應  
行險而順、以此毒天下、而  
民從之、吉、又何咎矣」라한  
것처럼 어느意味로는坎卦  
의象文以上의適句를들수잇  
고되라서 白鳥氏以上의切  
論을세울수잇슴는지모르것  
지마는 實體를너어노코  
幻影을또춤은 巧하나拙하  
나한가지戲論에墮하는것임  
진대우리는아직이것만으로도滿  
족할수잇슴을足하러한다。

(8) 此라서 此네들의所論  
이실사약간의巧妙를가것술  
지라도決코그論理의鬼面에  
威嚇되는일업시真相으로의  
直往으로외自主의探究에항  
술必要와아올려興味の잇슴  
을必要와아올려興味の잇슴  
을必要와아올려興味の잇슴  
을必要와아올려興味の잇슴

# 壇君論

(四)  
(五)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四五 王險城神說의 檢覈 (十九)

地名인王險은

그러케불수인  
대고치고 그人名인王儉은어  
더케생긴것일가 한王儉으로뉘  
三國史記는가로대仙人的일홍이  
라하고三國遺事는가로대 國祖  
의일홍이 오壇君의일홍이라하니  
두말에어는것이을홍가 혹은仙  
人이그대로朝鮮의國祖이어서  
실상은두말이각각그一面식만을  
傳하는것으로 어느말이고다을  
혼것이아닐가 그러라고하면

仙人的이란뜻을意味하는것일가  
仙人和壇君은어떠한關係를가지  
는것일가 이에壇君問題는바로

조微妙한消息을건더리게되지만  
는詳細는뒤에미루고 여기는

王險城神의眞否를辨白하기에必  
要한程度만큼 약간眞相을들  
추어보기로하자 便宜上은王儉仙  
人이란것을생각해보건대 거  
는우물쭈물方面의視野가잇음을본  
다 첫째는宗教的의그것이니  
이것이다시 道敎的과佛敎的의  
들로난호인다 佛敎가東來하기  
前에이미 仙思想이東洋에잇  
슴은 秦漢의際에이미仙追求의  
事實이 文籍에載在함으로뉘말  
것이오(一)또그것이이미多少의  
宗教的色彩를띄잇슴은 이미方  
土라는特殊한 祭司職과(二)에  
複雜한祭儀와聖殿을 가초아가  
첫슴으로뉘(三)집착할것이다。

後代의道敎가 仙의淵源을말하  
매 老山을들어내었다가 黃帝  
를말하였다가 다시廣成子니누  
구니하는 純說話의人格을앤드  
려서 希微한事實과한가지渺漠

한年代를말함에 이르릿슴은要  
帝鄉、三患莫至、身常無殃、이라을  
欣求한다는一契機가잇슴으  
하건대그起原의 오래잇슴을나  
하교列子上的黃帝에列姑射山、로뉘  
어는를앤지 接近、結着

라내려함에 不外할일것이다。  
在河海洲中、山上有神焉、吸風飲  
이行하야 道敎라는熔爐中에  
머커道敎와仙思想은 어떠한契  
露不食五穀、心如淵泉、形如處  
渾然히一體를지었다할것이다。

機로뉘抱合된것이며 어떠한關  
女、不俱不愛、仙聖爲之臣、不畏  
그런데이仙觀念과老莊思想의差  
係를가진것일지 필거복할스려  
不怒、愿驚爲之使、(九)等으로  
別相은 南北兩系의地方의特色  
운問題일시분명하거니와 보는  
외 仙聖의觀念이 大략春秋  
을나라낸것으로도볼것이러니와  
方法을따라서는 仙思想의宗教  
時代에잇슴을想見할것이어나  
의疑疑이 共道敎라고도할것이  
와(九)이것이哲學者의想像과詩  
人의詠嘆等概思의感興에서升進  
族 일은巴夷人에게로부러流入  
한外來思想인것을 指摘하고  
齊地方으로되비듯하야 秦漢의  
在에相望하고 必라其特色이  
그文物의形跡을 示방도만히  
摘할수있거니와 아마仙의道란  
것도東夷의間에는진작부러  
되든바로 그起原이자吳渺邈에  
屬하는것이러니 夷漢의民族의  
牆壁이戰國未頃으로부러減撤되  
면서 文化的雜糅자行하기비  
다 文化의雜糅자行하기비  
한가

를말하였다가 다시廣成子니누  
구니하는 純說話의人格을앤드  
려서 希微한事實과한가지渺漠

한年代를말함에 이르릿슴은要  
帝鄉、三患莫至、身常無殃、이라을  
欣求한다는一契機가잇슴으  
하건대그起原의 오래잇슴을나  
하교列子上的黃帝에列姑射山、로뉘  
어는를앤지 接近、結着

라내려함에 不外할일것이다。  
在河海洲中、山上有神焉、吸風飲  
이行하야 道敎라는熔爐中에  
머커道敎와仙思想은 어떠한契  
露不食五穀、心如淵泉、形如處  
渾然히一體를지었다할것이다。

機로뉘抱合된것이며 어떠한關  
女、不俱不愛、仙聖爲之臣、不畏  
그런데이仙觀念과老莊思想의差  
係를가진것일지 필거복할스려  
不怒、愿驚爲之使、(九)等으로  
別相은 南北兩系의地方의特色  
운問題일시분명하거니와 보는  
외 仙聖의觀念이 大략春秋  
을나라낸것으로도볼것이러니와  
方法을따라서는 仙思想의宗教  
時代에잇슴을想見할것이어나  
의疑疑이 共道敎라고도할것이  
와(九)이것이哲學者의想像과詩  
人의詠嘆等概思의感興에서升進  
族 일은巴夷人에게로부러流入  
한外來思想인것을 指摘하고  
齊地方으로되비듯하야 秦漢의  
在에相望하고 必라其特色이  
그文物의形跡을 示방도만히  
摘할수있거니와 아마仙의道란  
것도東夷의間에는진작부러  
되든바로 그起原이자吳渺邈에  
屬하는것이러니 夷漢의民族의  
牆壁이戰國未頃으로부러減撤되  
면서 文化的雜糅자行하기비  
다 文化의雜糅자行하기비  
한가

를말하였다가 다시廣成子니누  
구니하는 純說話의人格을앤드  
려서 希微한事實과한가지渺漠

한年代를말함에 이르릿슴은要  
帝鄉、三患莫至、身常無殃、이라을  
欣求한다는一契機가잇슴으  
하건대그起原의 오래잇슴을나  
하교列子上的黃帝에列姑射山、로뉘  
어는를앤지 接近、結着

라내려함에 不外할일것이다。  
在河海洲中、山上有神焉、吸風飲  
이行하야 道敎라는熔爐中에  
머커道敎와仙思想은 어떠한契  
露不食五穀、心如淵泉、形如處  
渾然히一體를지었다할것이다。

機로뉘抱合된것이며 어떠한關  
女、不俱不愛、仙聖爲之臣、不畏  
그런데이仙觀念과老莊思想의差  
係를가진것일지 필거복할스려  
不怒、愿驚爲之使、(九)等으로  
別相은 南北兩系의地方의特色  
운問題일시분명하거니와 보는  
외 仙聖의觀念이 大략春秋  
을나라낸것으로도볼것이러니와  
方法을따라서는 仙思想의宗教  
時代에잇슴을想見할것이어나  
의疑疑이 共道敎라고도할것이  
와(九)이것이哲學者의想像과詩  
人의詠嘆等概思의感興에서升進  
族 일은巴夷人에게로부러流入  
한外來思想인것을 指摘하고  
齊地方으로되비듯하야 秦漢의  
在에相望하고 必라其特色이  
그文物의形跡을 示방도만히  
摘할수있거니와 아마仙의道란  
것도東夷의間에는진작부러  
되든바로 그起原이자吳渺邈에  
屬하는것이러니 夷漢의民族의  
牆壁이戰國未頃으로부러減撤되  
면서 文化的雜糅자行하기비  
다 文化의雜糅자行하기비  
한가

를말하였다가 다시廣成子니누  
구니하는 純說話의人格을앤드  
려서 希微한事實과한가지渺漠

한年代를말함에 이르릿슴은要  
帝鄉、三患莫至、身常無殃、이라을  
欣求한다는一契機가잇슴으  
하건대그起原의 오래잇슴을나  
하교列子上的黃帝에列姑射山、로뉘  
어는를앤지 接近、結着

라내려함에 不外할일것이다。  
在河海洲中、山上有神焉、吸風飲  
이行하야 道敎라는熔爐中에  
머커道敎와仙思想은 어떠한契  
露不食五穀、心如淵泉、形如處  
渾然히一體를지었다할것이다。

機로뉘抱合된것이며 어떠한關  
女、不俱不愛、仙聖爲之臣、不畏  
그런데이仙觀念과老莊思想의差  
係를가진것일지 필거복할스려  
不怒、愿驚爲之使、(九)等으로  
別相은 南北兩系의地方의特色  
운問題일시분명하거니와 보는  
외 仙聖의觀念이 大략春秋  
을나라낸것으로도볼것이러니와  
方法을따라서는 仙思想의宗教  
時代에잇슴을想見할것이어나  
의疑疑이 共道敎라고도할것이  
와(九)이것이哲學者의想像과詩  
人의詠嘆等概思의感興에서升進  
族 일은巴夷人에게로부러流入  
한外來思想인것을 指摘하고  
齊地方으로되비듯하야 秦漢의  
在에相望하고 必라其特色이  
그文物의形跡을 示방도만히  
摘할수있거니와 아마仙의道란  
것도東夷의間에는진작부러  
되든바로 그起原이자吳渺邈에  
屬하는것이러니 夷漢의民族의  
牆壁이戰國未頃으로부러減撤되  
면서 文化的雜糅자行하기비  
다 文化의雜糅자行하기비  
한가

를말하였다가 다시廣成子니누  
구니하는 純說話의人格을앤드  
려서 希微한事實과한가지渺漠

한年代를말함에 이르릿슴은要  
帝鄉、三患莫至、身常無殃、이라을  
欣求한다는一契機가잇슴으  
하건대그起原의 오래잇슴을나  
하교列子上的黃帝에列姑射山、로뉘  
어는를앤지 接近、結着

라내려함에 不外할일것이다。  
在河海洲中、山上有神焉、吸風飲  
이行하야 道敎라는熔爐中에  
머커道敎와仙思想은 어떠한契  
露不食五穀、心如淵泉、形如處  
渾然히一體를지었다할것이다。

機로뉘抱合된것이며 어떠한關  
女、不俱不愛、仙聖爲之臣、不畏  
그런데이仙觀念과老莊思想의差  
係를가진것일지 필거복할스려  
不怒、愿驚爲之使、(九)等으로  
別相은 南北兩系의地方의特色  
운問題일시분명하거니와 보는  
외 仙聖의觀念이 大략春秋  
을나라낸것으로도볼것이러니와  
方法을따라서는 仙思想의宗教  
時代에잇슴을想見할것이어나  
의疑疑이 共道敎라고도할것이  
와(九)이것이哲學者의想像과詩  
人의詠嘆等概思의感興에서升進  
族 일은巴夷人에게로부러流入  
한外來思想인것을 指摘하고  
齊地方으로되비듯하야 秦漢의  
在에相望하고 必라其特色이  
그文物의形跡을 示방도만히  
摘할수있거니와 아마仙의道란  
것도東夷의間에는진작부러  
되든바로 그起原이자吳渺邈에  
屬하는것이러니 夷漢의民族의  
牆壁이戰國未頃으로부러減撤되  
면서 文化的雜糅자行하기비  
다 文化의雜糅자行하기비  
한가

를말하였다가 다시廣成子니누  
구니하는 純說話의人格을앤드  
려서 希微한事實과한가지渺漠

한年代를말함에 이르릿슴은要  
帝鄉、三患莫至、身常無殃、이라을  
欣求한다는一契機가잇슴으  
하건대그起原의 오래잇슴을나  
하교列子上的黃帝에列姑射山、로뉘  
어는를앤지 接近、結着

라내려함에 不外할일것이다。  
在河海洲中、山上有神焉、吸風飲  
이行하야 道敎라는熔爐中에  
머커道敎와仙思想은 어떠한契  
露不食五穀、心如淵泉、形如處  
渾然히一體를지었다할것이다。

機로뉘抱合된것이며 어떠한關  
女、不俱不愛、仙聖爲之臣、不畏  
그런데이仙觀念과老莊思想의差  
係를가진것일지 필거복할스려  
不怒、愿驚爲之使、(九)等으로  
別相은 南北兩系의地方의特色  
운問題일시분명하거니와 보는  
외 仙聖의觀念이 大략春秋  
을나라낸것으로도볼것이러니와  
方法을따라서는 仙思想의宗教  
時代에잇슴을想見할것이어나  
의疑疑이 共道敎라고도할것이  
와(九)이것이哲學者의想像과詩  
人의詠嘆等概思의感興에서升進  
族 일은巴夷人에게로부러流入  
한外來思想인것을 指摘하고  
齊地方으로되비듯하야 秦漢의  
在에相望하고 必라其特色이  
그文物의形跡을 示방도만히  
摘할수있거니와 아마仙의道란  
것도東夷의間에는진작부러  
되든바로 그起原이자吳渺邈에  
屬하는것이러니 夷漢의民族의  
牆壁이戰國未頃으로부러減撤되  
면서 文化的雜糅자行하기비  
다 文化의雜糅자行하기비  
한가

를말하였다가 다시廣成子니누  
구니하는 純說話의人格을앤드  
려서 希微한事實과한가지渺漠

한年代를말함에 이르릿슴은要  
帝鄉、三患莫至、身常無殃、이라을  
欣求한다는一契機가잇슴으  
하건대그起原의 오래잇슴을나  
하교列子上的黃帝에列姑射山、로뉘  
어는를앤지 接近、結着

라내려함에 不外할일것이다。  
在河海洲中、山上有神焉、吸風飲  
이行하야 道敎라는熔爐中에  
머커道敎와仙思想은 어떠한契  
露不食五穀、心如淵泉、形如處  
渾然히一體를지었다할것이다。

機로뉘抱合된것이며 어떠한關  
女、不俱不愛、仙聖爲之臣、不畏  
그런데이仙觀念과老莊思想의差  
係를가진것일지 필거복할스려  
不怒、愿驚爲之使、(九)等으로  
別相은 南北兩系의地方의特色  
운問題일시분명하거니와 보는  
외 仙聖의觀念이 大략春秋  
을나라낸것으로도볼것이러니와  
方法을따라서는 仙思想의宗教  
時代에잇슴을想見할것이어나  
의疑疑이 共道敎라고도할것이  
와(九)이것이哲學者의想像과詩  
人의詠嘆等概思의感興에서升進  
族 일은巴夷人에게로부러流入  
한外來思想인것을 指摘하고  
齊地方으로되비듯하야 秦漢의  
在에相望하고 必라其特色이  
그文物의形跡을 示방도만히  
摘할수있거니와 아마仙의道란  
것도東夷의間에는진작부러  
되든바로 그起原이자吳渺邈에  
屬하는것이러니 夷漢의民族의  
牆壁이戰國未頃으로부러減撤되  
면서 文化的雜糅자行하기비  
다 文化의雜糅자行하기비  
한가

를말하였다가 다시廣成子니누  
구니하는 純說話의人格을앤드  
려서 希微한事實과한가지渺漠

한年代를말함에 이르릿슴은要  
帝鄉、三患莫至、身常無殃、이라을  
欣求한다는一契機가잇슴으  
하건대그起原의 오래잇슴을나  
하교列子上的黃帝에列姑射山、로뉘  
어는를앤지 接近、結着



# 壇君論

(四七)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四七 王險城神說의 檢覈 (一一)

智異山の上院은玉寶高仙人의  
隱修地로일홍이는곳이니 실로

智異山中에서 가장濃厚한傳說  
의雰圍氣를가졌다。三國史記의

傳하는바로는玉寶高란이가一個  
琴師비스름하지마는(十二)그가

琴師의子로 入山을決行하여  
終身도音樂의行者가된것은

내개宗教的動機에서나온것이오  
쓰그것이그씨에잇서서 흔히行

하는信願生活의 一形相이잇스  
니그는實로이러한山嶽修行者의

一人으로 그棲遑의地들이곳에  
하고 南으로는 花開의谷을據

實臺란것이실상은古祭壇或靈場  
의一로 北으로는般若의峯을負

우리의研究를드되건대 이玉  
寶臺란것이 七佛庵의뒤등에高

平하게 遺存하여잇다。  
『술』의寫眞일것을대개의심치아

實臺란것이실상은古祭壇或靈場  
의一로 北으로는般若의峯을負

하야 仙聖行者의一大福地이엇 兩水의合襟으로서어든일홍이아  
슴이분명하니 岳陽으로부터花 尼라 실상崔孤雲가튼이의손에

開를經計고雙溪를歷하야 梵王『술』의 雅轉된것이 아닐가  
에至하기까지四五十里長谷이智 外지를생각한다 (二十) 내가

異山에서古來로가장만히仙 前에玉寶培를 登臨하였을적에

聖說話를包藏한것이또한偶然함 도 그崇邱의形과 山中의位置

이아니었다(十七)이키地名의古 로보아서 그것이智異山南谷에

義를더듬어보아도가장오래고 또 잇는最大宗教的由緒地일것을以

本形대로남아잇는듯한 金輪이 고 山嶽道一方의中心地로 일

란것에는 분명히古面目의그림 은바仙人이말자최가여기서떠난

자가면으른듯하니 金輪이얼는 적이엄슬밭게엄슬것을생각하면

보면 佛典으로치나왔을듯도하 서 이적이玉寶高로 因하야비

지마는(十八)山中의一蘭若에金 所 드려났다든지 또玉寶高

輪의稱이실로 無謂에屬한다하 가하릴 琴樂을 마음잇享用하

것슴으로외 대개오래무슨名號 려하야 이 곳을 차켜온것아니

의轉變일것을 想像하것는데우 라 事實은이『술』의 祭司에

리는三國遺事帝王의 『眞智王名 玉寶高란一人이잇고 그供神의

金輪一作舍輪』의例로舍輪은 要件에琴曲이브라나르는데 玉

舍輪의字形的少變이오 舍輪은 寶高란이는 특히神樂에秀技

『술』의寫眞일것을대개의심치아 를가킷든것증되는것을 說話的

니하야 아올려雲上院의上院이 變造로三國史記의云云과가치됨

실상또한『술』의一別傳일것을推 일것을생각하야 그런데仙人이

認한대(十九) 進하야는雙溪寺 란것은要하건대이러한玉寶高의

의變溪가시방외지의傳信과가치 類가아닐는지

實臺란것이실상은古祭壇或靈場  
의一로 北으로는般若의峯을負

우리의研究를드되건대 이玉  
寶臺란것이 七佛庵의뒤등에高  
平하게 遺存하여잇다。  
『술』의寫眞일것을대개의심치아  
를가킷든것증되는것을 說話的  
니하야 아올려雲上院의上院이  
變造로三國史記의云云과가치됨  
실상또한『술』의一別傳일것을推  
일것을생각하야 그런데仙人이  
認한대(十九) 進하야는雙溪寺  
란것은要하건대이러한玉寶高의  
의變溪가시방외지의傳信과가치  
類가아닐는지

# 壇君論

(四八)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四八 王險城神說의 檢覈 (二二)

(二二)

茂長의 禪雲山은 西韓一帶의 有數한 名山이오 禪雲이란 古大刹이 잇슴으로 들렸거니와 山中에는 許多한 岩窟, 石柱, 高臺, 奇峯等 古敎相應의 天然物素와 한가지로 國師니 天王이니 將軍이니 彌勒이니 天門이니 龍門이니 滿月이니 白翅하는 古神道的名句를 流傳하야 그것이어더케 古神道의 重要한 靈場이 든것을 高聲으로 외오친다. 그런데 後代에와서는 蟬雲이란 名義에 對하야 佛敎에 附會한 種種의 說議를 列우

고록하 禪이란 字가 본대부러 佛神의 禪가 든것처럼 말하였지만 (二二) 禪雲은 一에 仙雲이라고 하기도 하야 (二二) 실상 字義에는 關係업는 一寫音이니 山의 性質上으로 보아서 禪(仙)雲이 대개 '仙'의 譯對인음 容易히 設想할 수 있다. (二三) '兜率巖堂禪雲' 寺局內 周回 記錄等 古文蹟에나 오는 水落村, 音聲峯, 鷲峯, 射狸峙等이 필시 總名이든 '仙'의 分派又 碎散의 으로 流傳한 일것은 이 名號의 地들이 다 仙雲의 主峯을 拱揖하는 位置에 當함으로 勿집작 할 것이다. (二四) 이리케 생긴 仙

雲山에 비로부러 挨丹 仙人의 種種 傳說이 잇고 특히 그 開泰寺는 挨丹의 鍊心하는 道場임을 傳함은 실로 偶然이 아니니 仙雲의 挨丹은 대개 上院의 玉審高의 位일 것이 다 新羅以來로 仙雲山이 차차 佛敎徒의 獨占으로 돌아가서 古敎의 遺蹟이 佛敎의 法相에 攝化되 매 禪雲, 巖堂, 兜率, 法華의 名號 改換과 한가지 挨丹 仙人은 黔禪師로 化하야 禪雲山의 開山祖가 되고 (二五) 靈嶽 巡禮로 來臨하였든 듯한 新羅의 眞興王이 어는 禪雲開山의 助緣者로 化하게 되고 天柱니 立岩이니 하든 古道의 神物이 佛敎의 說話의 一物素로 監齋使者의 化石을 짓게 되었다 (二六) 우리의 考察을 倏건대 古道의 靈場으로 가장 擘리 긴 者로 오 랜 동안의 葛藤과 紛糾 矣해 佛敎의 攝收를 넘은 곳에는 대개 勝者인 佛徒의 손에 크면 驅龍이 오척 으면 逐盜의 說話가 成立하얏슴을

보는데 그 說相의 가장 典型的의 所생긴 것이 仙雲山 龍門 說話라 할지니 이리케 禪雲山에 驅龍 說話가 잇고 또 그것이 曠長時에 亘한 激爭임을 나타내었슴은 仙雲山이 어더케 오래고 千古敎의 道場임의 밝은 證據요 그럴진대 이山에 托述한 仙徒도 한척을 수 업섯스리니 挨丹은 무론 그中의 一人이오 또 그와 한가지 傳하는 義雲禪師란 이도 미를 깨어 보면 山巖行者의 流가 아닐지모를 것이다 禪雲山부터 잇는 茂長縣은 高麗의 茂松長沙兩縣을 合하고 그 頭字를 取하야 지은 邑名이오 禪雲山은 長沙에 屬하얏는데 長沙는 百濟의 上老縣을 新羅에 서고 친일홍이니 上老도 대개는 禪雲으로 터부리 語原을 한가지 하는 것으로 '仙'혹 '雲'의 一對字로 불 것이 가한다. (茂松縣의 百濟名인 '松彌知'도 또한 一原에 分派된 것일지모를 것이다.) 대개 禪雲山이 '仙'의 語原과 한가지로 仙人의 窟宅으로 傳해온 것을 우선 注意하야 두자.



# 壇君論

(四九)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四九 王險城神說의 檢覈 (二二)

(二二)

高城의三日浦는四仙과永郎仙의傳說을가진곳이니 이일은바

仙이우엇이거니 三日浦가仙緣

있는곳인것만알아두자。그런데

二日의語源에對하여 古文의傳

하는바에는 『昔四仙遊此而一

日不返故得是名』(二七)이라고

하였으나 우리의考究에는 이

는실상望文假托한後代의地名起

源說話일대로이오 실상은다른

고은『사설』의譯字요 『사설』은

『술』의能轉인것으로 聖池를推

들었는다할것이다。

平壤의大聖山은 二神道的地

位가正히慶州의西蔭山、松都의

松岳山에當하는 居民古信仰의

對象이든곳이니 그上에 皇帝

마누라』의神堂이잇는平壤人의

每春節에나 新穀이날때에一年

一次以上은 酒食餅果로써 山

마지』를來享하고 몸이가지를

못하면 乙密臺가든대서 『山바

라기』라하여 반드시聖祭라도

해야하는줄아는 尊崇地이다。

여기는 東明仙人對鹿足夫人의

有名한神話를傳하니 (三二)鹿

足夫人云云은 무론佛敎傳說과

의融合에서생긴것이라니와 (三三)一

一)이『皇帝마누라』가 新羅의

四述聖母가든(三二) 高句麗의

國母의神格으로 일은바仙聖의

儕이엇을것은 說話의中에餘痕

이오히려잇는바이다 古來大

聖山(觀覽에는聖池城으로作함)

의聖이대개『술』의一譯字일것

은 다른대의『술』山이만히聖字

池를『술못』이라하고 그舞殿을

『가승당』이라함에 古形이그림

자를면은『술』의稱이잇는것 을다시

한번 짐작하것다。아마도三國

志、後漢書等에 적은 高句麗

國東의 靈神이란것과 聖池平

壤地方巫祝對象의一大神인『술』

이란것이 다여기關涉되는것일

것이오 大聖山을一에大聖九龍

山이라하는九龍과大城山城의東

北에잇는高句麗의 長安과大城

山近處에두엇는高句麗의 大花

宮도 그名稱의因山가되한이것

잇을것이

다。(三四)키 神堂의압해外은

『大聖山神堂事跡』에『神堂亦

의古也、昔自檀君時、至于今數千年

來、香火不絶者、槩神其最靈之致

也、不但兩西之人、亦東京之人、

來祭者、不知其數也』라함이비록

下代의漫言일망정바이因山업는

말도아닐듯하다。(키東明聖王의

聖도대개는東明仙人의仙과 가

『술』의類語







# 壇君論

(五三)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五三 王險城神說의 檢覈 (二七)

上來의 考證을 다시 한번 要約하  
야 보건대

(1) 朝鮮의 古神道에는 事  
神의 一行法에 『술』(혹 『손』)  
이란 것이 있슴. (仕神을  
『심기』라하고 告事를 『술』  
의 『라하음』을 參互함).  
(2) 이 『술』行을 勤修하는 이  
를 『술』이라 일컬고 『술』은  
이略하여 『손』이라고 하기도  
됨.

(3) 靈力第一의 古代에는  
의 『술』의 社會的, 政治  
的으로도 一種의 優越者로

尊敬과 信賴를 받앗슴.

(4) 『술』은 처음에 單純한  
太陽禮讚을 中心事實로 하는  
夫神奉齋이 었스나 早天禮  
日의 形式이 轉하여 一種의  
呼吸運動이 生하고 이것이  
차차理論, 實際兩方으로 發  
達을 遂하여 養生煉形의 道  
로 展開하여 갔슴.

(5) 그리되기 外지에는 曼  
初음에 魂魄은 游離하는 것  
이라 함과  
자가네의 生本은 天이라 하는  
兩觀念이 抱合되어서 차차  
死後의 靈魂은 天上으로 還  
歸한다 하게 되고 또 邪鬼妖  
精의 觀念이 생기면서 安魂

慰靈의 道는 亡魂을 天으로  
安歸케 함에 있다 하게 되고  
그것이 玄理學的으로 一轉하  
아 升天이니 飛行이니  
仙化니 하는 信念을 鍾毓해 내  
었슴

(6) 이것에는 一은 『술』의 道  
場이 高山의 頂上에 있엇슴과  
一은 그네의 古信念에 高山은  
天의 關門或步階라 함이 있엇  
이 助緣이 되었슴

(7) 이 山嶽道인 『술』法이 支  
那로 流入하여 帝王家에는 禮  
禮로 容入되고 宗教家에는  
德道로 奉持되어 차차 仙神  
德으로 發展하였슴

(8) 漸次로 漢文學이 輸入되  
고 그 思想이 流布됨을 隨하  
야 『술』의 固有事實과 仙  
의 外來名稱의 間에 接近과  
着結이 行하게 되었슴

(9) 그러나 처음에는 이 『술』  
은 漢譯하는 일흥이 區區  
하야 巫神人이라 하기도 하  
고 巫大神이라 하기도 하였  
스나 後에는 오로지 宗教的인

仙字를 取用하게 되었슴.  
(10) 이 려케 仙이라 稱謂하  
게 됴므로 因하여 그것이 支  
那의 神仙하고 混同을 致하게  
되고 또 朝鮮古典에 나오는 仙  
人의 實시 支那仙說의 輸入  
혹 模倣가 甚보이게 되었스나  
그 民族學的淵源關係는 如何  
間에 後代의 事實에 있엇지  
는 『震土』의 『술』法과 支那  
의 仙說과는 스스로 別件物  
에 屬하는 것(그럼으로 唐代  
에 支那의 仙風이 流行한 뒤로  
부러는 國仙이라는 標號를  
부쳐서 支那의 그것과의 混  
同을 避하게 된 것은 下文에  
다로 詳을 機會가 있엇슴).

(11) 『震土』의 『술』法은 그 原  
始德로 말하면 變시 神山에  
入處하야 靈力을 感得하는  
修行이니 天시방의 智異山  
德勿山等에서 巫術을 感受  
하는 것과 비스한 것이 었슴.  
(12) 『술』의 靈場이든 故地  
에는 그 證迹이 『술』語堂을 冒  
한 山名에 遺傳되었슴.

(13) 『술』名을 가진 名山에는  
대개 仙人傳說을 가진 것이 그  
民俗的背景과 說話的本質  
을 분명히 일러줌

等을 나타낸다 한 것이 다 아 직例  
證이 넉넉지 못하야 論者一透徹  
하지 못한憾이 있스나 이만 하야도  
朝鮮古記에 나오는 일은 巴神人,  
仙人이란 것이 어찌한 來歷과 性  
質의 것임을 약간 밝혔슴 줄로 안다  
그리 하야 仙人王儉의 仙人도 다  
분명한 出處가 있는 것이 지 백관  
孟浪한 것이 아님을 알며 말하서  
部論者의 이 仙人을 列仙傳의 그  
것에 比擬하야 云云하는 것이 妥當  
할 數수 없슴을 察해 든다 과연 仙  
人에 王儉이란 것이 었든지 또  
그이가 增君이란 것이 었든지  
절로 別個의 問題에 屬할 것이 려나  
와 總잡아도 此方 古代의 神代의  
事實의 中에는 後年에 『仙人』으  
로 譯할 만 한 무슨 事實又 稱謂가 있  
섯든 것만 이이로써 약간 證明되었  
스면 그만이다

# 壇君論

(五)(四)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五四 王險城神說의 檢覈 (二二八)

(一) 支那에 있는 道教及 仙說 이후世에는 佛敎의 影響을 남긴 이력만하다. 그러나 그萌芽는 眞작부리支那에固有한것이오 특히 仙說은 대개 燕齊로부터 들어온 外來思想의 結合으로 한 種의 體系를 確立하게 된 것이었다. 戰國時代에는 이미 神僊의 實재를 信하여 齊의 威宣二王과 燕의 昭王以下로 海上의 神山及不死藥을 求하는世主가 생기고 秦의 始皇과 漢의 武帝等 大規模로 이를 追求한者도 생겼다. (史記卷二十八, 封禪書參照)

屈原의 遠遊의 「悲時俗之迫隗兮願輕舉而遠遊, 賈非薄而無因兮, 焉託乘而上浮, ; 內惟省而端操兮, 求正氣之所由, 漠虛靜以恬愉兮, 澹無爲而自得, 聞赤松之清塵兮, 願承風乎瀟則, 貴真人之休德兮, 美往世之登仙, 與化去而不見兮, 名聲著而延;」 한例를 본다.

(二) 神僊을 求하고 金丹을 燒하고 楚咒祈禱에 從事하는 者流를 周秦漢間에 方士라고 呼부르니 仙流를 一種의 方術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도 또한 字形에서만 그러할 것이오 實상 東夷의 語를 寫音한 것임은 뒤 에 論及 하려 한다. (또 이리 한 祭儀를 總稱호되 「方」 이라고

呼부르렀음은 封禪書의 「長弘以方事周靈王 又周人之言方怪者自長弘」云云의 文으로 보물 것이다.

(三) 封이니 禪이니 하는 盛大한 것으로부터 祠니 賽니 禱니 祝하니 하는 公私諸祭와 壇場이니 畦峙니 宮이니 祠니 하는 大小祭壇과 牲幣器用의 許多한 等級等은 漢代에 外지 이 미 畚分化를 遂히 矣치 筴이 封禪書에 보과 갓다.

(四) 神僊家는 本래 方枝의 流로 認되니 史記의 論을 보아도 神僊家나 黃老派가 한가지 黃帝를 祖로 한 듯 하나 老子學派와 神仙家는 截然히 別異하게 大 小 分 別 矣치 矣. 漢書의 藝文志에도 하얏스며 漢書의 藝文志에도 道家는 儒, 道, 陰陽, 法, 名, 墨 從橫, 雜, 農, 小說의 次로 諸子十家의 中에 列하얏스나 神僊家는 子矣호로 나려가 著述, 雜占, 醫術, 醫經, 經方, 房中等과 한가지로 方枝二十六家의 中에 列하얏다. (漢書卷之三十).

이 黃老列莊의 思想又 著錄에서 나 理論의 根據와 哲學的 組織을 어더서 차차 一敎門을 일으운 것 이 道敎라고 도 볼 수 있다.

(五) 말하자면 道家는 支那古來의 有力한 一學派요 仙家는 民間에 潛行한 一俗信으로 본來 不相干의 者임은 事實이지 마는 大 小 分 別 矣치 矣. 高尙에 流하얏스나 兩者의 合一을 要하게 된 關係로 어느 處차차 接近하기 비 兩한 것 일지니 (그 大原은 어대 서나 왓 든지) 道已仙이고 그것이 支那民族의 心奧에 本然的으로 流動하는 宗教的情緒임에는 勿로 一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 이 一은 形式의 現實的인 儒道와 外來思想인 佛敎에 對한 反撥關係로 自然히 一致한 勢力을 作成하얏다. 民族의 信仰의 自衛를 爲한 것이 대개 道仙結合及 道敎成立의 秘機임을 우리는 設想한다.

四庫全書總目(卷一四六, 道家類의 叙)의 「後世神怪之迹, 多附於道家, 道家亦自矜其異, 如神仙傳, 道敎靈驗記是也, 要其本始則主於清淨自持, 而濟以堅忍之力, 以柔制剛, 以退爲進, 故中子, 韓子, 流爲刑名之學而除符經, 可通於兵, 其後長生之說, 與神仙家合爲一而服卮導引入之, 房中一家近於神仙者, 亦入之, 鴻寶有書, 燒煉入之, 張魯立敎, 符籙入之, 北魏寇謙之等, 又以齋醮章呪入之, 世所傳述, 大抵多後附之文」云云을 參照하랴.

道仙의 接合이 漢初을 부터 비 矣치 矣. 法家者 流는 黃老에 歸本호며 神仙家를 取하지 아 니하고 秦始皇은 神仙家 方士의 說을 聽하얏스되 老莊을 談한 일이 업는데 張良은 다는 漢初의 元勳과 한가지 黃老를 喜하얏스되 辟穀導引의 術을 行하얏스 나 이녀에는 兩者가 混合한 것이 分明히 漢代에 兩者가 雜雜된 것은 다시 漢書의 劉安傳과 淮南子에 도 徵할 것이다.

# 壇君論

(五五)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五五 王險城神說의

檢覈 (二八)

(六) 僊은人和惡兩字를合하여 惡으로外義를表하는同時에 音符를兼하게하니 惡은升高를意味한字이다. (說文) 또 惡字의本形은 𪛗이오 이것은 昇와 凶(西字의本形)兩字를合하여 昇로는義를表하고 西로는音符를作하니 昇는共舉를意味하는字요 (說文) 西는衍聲으로 音을表한것이며 또 昇變으로 西字의象形인 鳥가鳥의巢上에在한것을象하여 鳥가入巢하는時의口에在한方位를示한字이니 이리케鳥의巢上에있다字源이 特히西字로外音符를삼은所以일것을우리는생각한다. 이惡과乍行乍止(說文) 又循道疾行(六書故)

의義를有한 走兩字를合하여 된것이選이니 本義는 登이오(說文) 轉하여徒(爾雅釋詁) 移(廣雅釋詁)의義를가졌다. 그런데字源도同하고 字義도近하므로 惡, 僊, 選等은古文에흔히通用하고그義는다在上호升高를表함에外一致하였다. (說文通訓定聲, 屯部第十五, 西之派參照) 人과惡을合한僊字가升高의人을意味함을알것이다. (說文段注及說文通訓定聲의僊字注參照).

(七) 釋名, 釋長幼「老而不死曰仙, 仙遷也, 遷入山也, 故其制字, 人旁作山也.」

【說文段注, 倉字條】人在山兒(引仲爲高舉兒, 趙元孫引鮑明遠香粉云, 鳥舍魚躍, 从人山(山亦聲也)).

【說文通訓定聲, 僊字附載, 倉字條】人在山上兒, 从人从山, 會意, 按當爲僊之或體, 今附于此, 說文, 僊篆說解, 作仙, 釋名, 仙遷也, 遷入山也, 段借爲惡, 鮑照書勢, 鳥舍魚躍, 高舉之貌, 或曰倉之誤字.

段氏의考證에는 仙字는漢末의字體不一한中의僊의一形이리라하고는仙이行하면外 僊이廢한것이리라하였다.

(八) 說文僊字注의「長生遷去」라함과上項의箋注에서 選의字義가登임과 釋名의「遷入山」이란文을參互하라. (在箋注一의屈原遠遊의「登仙」이란句도互照하라).

(九) 仙이一個의超人的存在로文籍에上하기는 대개春秋戰國之際에잇섯스나 老子의聖人, 莊列의神人等本地에燕齊間方士輩의說하는仙이서로結合하여 神僊이란一個靈的人이생겨났다. (仙格의確立은 대개戰國末頃일듯) 上記한諸書의外에도 韓非子 戰國策等에도 그일흔이보인다.

(十) 箋注六互照.

(十一) 【說文通訓定聲, 僊字

條】: 重言形況字, 詩賓之初筵, 屢舞僊僊, 傳, 舞貌, 莊子在宥, 僊乎歸矣, 注坐起之貌, 又單辭形況字, 管子宙合, 適善備也僊也, 注輕順貌.

【廣雅卷三下釋詁】匄質(質)流, 籀譌爲渾仙卦變也라한것을王氏의疏證에他字에는다典據를보였스되 渾로仙字에만引明을關하였다. 대개仙은選과通하는데 選은轉, 轉은變, 變은化임에서山來할일이오 古人에게特히蜕化의事實을認하게된때암이를蟬이라하는「仙」音이 이에關聯이잇슬것이다.

(十二) 【三國史記卷第三十二, 祭祀志】: 小祀, 福岳, 高城(郡) 이란것이 무릉, 金剛山을 일음이나 三國史記에는小祀라고만하였지만은 그本來의尊卑한意義는後文에別說하였다.

(十三) 【三國史記卷第三十二, 樂志】: 羅人沙喰, 恭求子王寶高, 入地理山雲上院, 學琴五十年, 自製新調三十曲, 風之續命得, 得傾之賞金先生, 先生亦入地理山不出...

# 壇君論

(五六)

## 朝鮮을中心으로 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五六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二)

(十四) 玉寶高와于勤은다古  
代의樂師로三國史記에적었지  
미는 後世의記籍에는들음다  
仙人으로일컫어寶玉仙(金海  
金氏譜所引駕洛國記),玉府仙  
人(震業續考道流部),玉浮仙  
人(晉陽志)等으로쓰게되니이  
것들은대개山中의古傳에因한  
일것이다.

玉寶高의山中古傳에古籍以外  
의事實이잇슴은 李陸의遊智  
異山錄의一例로되안다. 七佛  
寺本名雲上院,新羅眞平王朝,  
有沙陘恭永之子,名玉寶高者,  
荷琴入智異山雲上院,以琴修  
心五十餘年,作曲三十調,日

日彈之,景德王,於街亭,玩  
月賞花, 忽聞琴聲, 王問樂  
師安長一名曰聞福, 請長一名  
曰見福者曰, 此何聲, 二人  
曰此非人間所聞, 乃玉寶仙人  
彈琴聲也, 王齊戎七日, 玉  
寶至王前, 奏曲三十調, 王  
大喜, 使安長請長習之, 或於樂  
府, 更於所居寺, 沒大伽藍, 三  
十七國, 皆宗此寺爲願堂. 有  
淵首座者, 稍解禪法, 爲山中  
衲子師者, 爲余云云, 己巳 寺  
有濕法主者, 示余玉寶事跡, 與  
淵首座所言同.

(十五) 鏡巖集卷之下, 七佛  
庵記 從般若南三十里, 有七  
佛庵, 稱東國第一禪院, 舊額雲  
上院, 始羅二百年, 有新文王  
子二人, 與宮母五人, 入此成道

故改今名, 後五十九, 年而至景  
德王, 徵土玉寶居之, 六百八十  
二年而即洪武四年, 重勅爲今  
刹. 慎庵記云, 余嘗見臺山事蹟  
新文王子二人, 一曰孝明, 一曰  
神聖, 詣五臺, 參化身文殊, 而  
孝明入承, 神聖爲僧, 未有宮母  
得道之說, 慎庵記, 未容無疑  
金海金氏譜, 首露有子十人, 一  
爲儲君, 二人錫爲許氏嗣, 其餘  
七人, 志絕塵寰, 從寶玉仙, 入  
伽伽山, 學道成仙, 必此也, 蓋  
寶玉玉寶, 字倒而已, 仙佛世人  
之互稱也, 自伽伽, 入雲上院  
悟心佛, 故後人慕之, 七佛名  
庵者也, 而僧史謬傳, 一至此  
乎: 庵後有玉寶臺:

(十六) 頭流全志卷下, 梵天  
總表所引, 晉陽志, 七佛庵條  
一名真金輪, 有玉浮仙人, 隱  
此吹玉簫, 新羅王, 尋其聲,  
乃金輪寺也, 於是率七子, 與  
仙同遊, 七子成佛, 王自爲梵  
王, 故神輿上, 有梵王村, 其  
下有天妃村, 妃即王妃.

李陸의錄에는 七佛寺의西에

金輪庵이잇는것으로적었다.  
(十七) 輿地勝覽卷之三十九,  
南原, 山川條에 智異山: 又名  
地理, 又名方丈, 杜詩方丈三  
韓外注, 及通鑑輯覽, 皆云方丈  
在帶方郡之南是也, 新羅爲南  
岳, 躋中祀, 諺傳太乙居其上  
群仙之所會, 龍象之所居也라  
한것이 실상은外담기잇는것  
이니 그것은비로부러 山이오  
山이오 山이오 山이오 譯하면  
仙山이기싸면이엇다. 太乙云  
云이란또한 山의 晉近으로  
부러생긴것이다. 특히그南面  
이花開谷에는雲上院으로부러  
神輿義神, 靈神의三神洞과 靑  
鶴洞, 雙溪洞을거쳐 花開, 岳  
陽外지나라가면외 神仙說話  
의附着되지아니한곳이업슴이  
또한偶然한이아닐것이다. 後  
世에崔孤雲에附會하여云云하  
는것의中에는 다른古傳의說  
話의換主인것도만홀것이오또  
孤雲이특히이곳으로遊息의所  
를삼아슴도 오린因緣의잇슴  
일일지모를것이다.



# 壇君論 (五七)

## 朝鮮을中心으로 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五七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一)

上峯에는 太乙仙의, 上院에는 玉寶仙, 岳陽에는 汎王杓의, 그中間에는 青鶴洞中心의 만이仙說이傳하니 이源始는 다 만그兩美한景勝에만말미암는 것아니라 深久한來歴이잇는 妙문으로볼것이여 (五洲衍文 長箋四二、智異山辨證說、同四八、青鶴洞辨證說所引諸仙談 參照) 佛敎에入하야는 文殊住世의談을지었다.

【李仁老破問集】智理山、始自白頭山而起、花峯、夢谷、餘麟聯、至帶方郡、蟠結數千里、環而居者十餘州、歷旬月、可窮其

以尋之而不得歟、無乃好事者慕其名、據寺而識之歟……智異山을神山仙區로본것은詩에도무로만히드려나다. 李牧

隱詩의 一頭流山最大、羽客約皮菌、木末飛雙脚、雲端出半身、人譏困三武、或說避孤秦 豈乏幽棲地、風塵白髮新』을 그代表라고도하려나와 그가 장 神秘的의것에는 『雙溪寺

寺有新羅崔孤雲畫像、沿溪石壁多刻孤雲大字、世傳孤雲得道、至今往來於伽伽智異兩山間云、宣廟辛卯年間、寺僧得一紙於巖石間、有絕句一首曰、東國花開洞、壺中別有天、仙人推玉枕、身世幾千年、字畫如新、其字法則與世所傳孤雲筆同』이란것이름도이다、(擇里誌下 居體論、山水條參照)。

【金駟孫續頭流錄】……乙亥遂下紅流洞、并溪而上……坐妓潭上、滄洲密藍、玉虹偃飲、聲如琴筑、震越林表、所謂紅流者取謝詩石磴瀉紅泉之句、釋之者曰、紅泉出丹砂穴、紅流之名

出自仙籍、而今稱妓潭者何謂也、甚哉真境之遺累也……至神興寺、同遊者必先往、偃榻久矣、遂與僧至溪石上、溪出太白峯方丈室之間、骨顯參空、清漪轉石、石之盤陀者、可坐六七十人、石上刻洗耳岳三三大字、不知誰氏筆、洞名三神、爲洞有靈神義神與三利故云、其俗之尙鬼因此可推、秘志又曰、近年或見崔孤雲乘青驢、渡獨木橋如飛有姜家蒼頭者、執轡而挽之、揮鞭而不顧、又曰孤雲不死、至今遊青鶴洞、洞之僧、日三見孤雲、是說不可信、然史世間有真仙、安知孤雲不爲仙、使孤雲果爲仙、舍此地又焉遊哉。【柳夢雲遊頭流錄】……長老云世有退隱師者、住神興、一日語其徒曰、有客至、當淨掃除以候、俄而有一人、騎白駒、結藤蘿爲鞅轡、疾行而來、履獨木如平地、衆皆駭之、至寺迎入一室、清夜共話、不可殫記、明朝辭去、有姜家蒼頭者、學書於寺、疑自異容、執轡以奉之、其人以鞭揮去、袖落一卷文字、蒼頭急

取之、其人曰語彼塵緣攬取、珍重靈藏、勿以示世、言訖急行、復由略約而逝、蓋蒼頭者今白頭、猶居昔陽之境、人有知者、求覓不與、蓋其人、即崔孤雲、不死、在青鶴洞云、說雖無稽而可記也。

이맛게도五山說林에보인徐花潭의맛나다는羽衣異人等이러한이야이가 요새에도實事처럼傳說됨에서 그설리김호仙緣을볼것이오 거기나오는地名에외도 만호暗示를어듣는것이다. 地名에외는金駟孫等의記로외아는 天王峯谷屬中の水郎峯、香積庵、獅子峰、毗盧峯、坐高臺阿里王塔、迦葉帝等이다자미잇는古事의餘痕이라할것이다。

【頭流金志所引、見聞錄】神仙始在岳陽西、培上有玉杓泉、相傳爲仙人汎王杓之所遊、人往往得箭鏃、云是仙人會射之地。(岳陽에는高麗韓惟漢의成仙說其他類話가있다)。

【五洲衍文長箋所引、義相奇丘秘記】頭流山、一萬文殊住世、其下歲費民慮。

【李仁老破問集】智理山、始自白頭山而起、花峯、夢谷、餘麟聯、至帶方郡、蟠結數千里、環而居者十餘州、歷旬月、可窮其

# 壇君論

(五八)

## 朝鮮을中心으로 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五八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三)

(二二) 成化十九年癸卯正月  
德源君別願堂禪雲山禪雲寺重  
創山勢事蹟形止案」：且夫山  
號寺名、何以謂禪雲山、何以  
謂禪雲寺、曰禪也者佛佛祖祖  
之眼目、亦曰常常日用之公案  
也、雲也者佛祖之智境、亦曰  
妙用之真風也、禪雲之列岳、  
越嶺之角、皆有修禪、禪者栖  
息之處也、朝來祥雲叢叢於半  
空、暮來寶月皎皎於虛映、因

名曰禪雲山禪雲寺也。：  
(二二) 輿地勝覽卷之三十大  
茂長、山川條 禪雲山、禪一  
作仙、在縣北二十里、高麗史  
樂志、有禪雲山曲、百濟時、  
長沙人征役、過期不至、其妻  
思之、登是山、望而歌之。  
上項箋注引文의 直下에 『謂其  
山勢則庚來兌作、乾坐巽向、  
萬馬下天象之象、亦曰君臣慶會  
之象、亦曰返本還源之神仙聚  
會之象也』라한것의 神仙云云  
의 句는 무은風水를超한古傳  
의 斷片으로 볼것이다。 또그下

文의 水를『搗源』으로名하고  
峯을『四仙童』에擬하고 峴名  
에『仙女聚會梳粧榮華』를想한  
等을參互할것이다。

(二三) 名山、특히宗教的靈山  
이잇는곳에는 郡名과山名이  
相即함이古代의 通例임은前에  
한번말하였다。(本論四四箋  
注五〇參照) 禪雲山잇는茂長  
의古號에 松彌知、茂松、松  
山、長沙、上老、沙島、(輿  
覽)이잇슴으로勿禪雲의本形  
이松(송)에近하고因하야禪雲  
의『송』의轉입을想像하기에  
足하니 松字가『송』의譯字로  
외은又一通例는 順天의松廣  
山에分볼것이다  
松廣山의語源의『송』임은山의  
主人인松廣、仙巖兩寺의名稱  
山緒에터듬을수있다  
松廣寺의緣起地에『鵝落』傳說  
이잇고 또그根本道場에三日

庵이란 일홈이잇는데 鵝의  
『송』과 三日의『삼』이 松의  
『송』이나한가지 古『송』의轉  
形轉義임은 仙岩寺의仙岩이  
또한『송』일듯함外지를合하  
야알는會通할수있다 古  
松廣山잇는順天의順과 古  
名인昇平、昇化、昇州乃至軟平  
이또한『송』(古『송』잇는郡  
邑)로分來하얏슴을뜻함은 正히  
禪雲山과松彌知의 關係와갓  
다(鄙著『尋春巡禮』松廣寺記  
錄、三七一七四一九七頁參照)  
(二四) 水落과射狸는音으로  
『슬』을表하고 音聲、鶻는訓  
으로『슬』을表한것이니 水落  
과鶻가『슬』의譯字로흔히의용  
은他的의만흔例와갓다。

【本文】 始起於白鷄峙、西北  
間五里許、有泉利庵、越嶺廣井  
庵、西南間五里許、有水落村、  
後燈西三里許、有二聖窟、次有  
天柱峯、峯下有龍門窟、奉安羅  
漢法堂、次有上兜率庵、庵下有  
下兜率庵、北有北兜率、次有開  
心寺、西五里許有國師峰、次有  
晉聲峰、峰下(有永泉寺、寺下  
有永泉洞、越嶺以來、有寺、名  
曰機堂寺、寺上有鶻峯峙、次有  
磨頭峙、次有黑山峙、次有射狸  
峙、峙上有鶻嶺峯、峯下有翟  
洞、洞上有終條理峯、峯下有  
三仁洞、其局上有隱仙庵、北  
有驗山、繞長水而中立、北接  
水多寺、寺下有水多村。：  
(射狸峙의名은 史記封禪書의  
『其弘以方事周靈王、諸侯莫朝  
周、周力少、其弘乃明鬼神事  
設射狸首、狸首者、諸侯之不  
來者、依物怪、欲以致諸侯、  
諸侯不從、而晉人執殺其弘』  
에서집어쓰말이니 이로勿의  
마늘神事의處所임은 넘새번것  
일듯하다)

# 壇君論

(五九)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五九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三三)

(十八) 漢譯한輪을作한梵語CARKA(祈羯羅)라 그圓周의義를借하여 世界의形을喻하는語니 佛敎에서는三四、五、九種種의輪을말하고 普通에이世界는風輪、水輪、金輪이잇치고 그우에九山八海의地輪이언컸다한다。다시이輪을種種의形嚮로借用하여王者의權力을輪에比하기도하고 그勝劣의狀을金、銀、銅、鐵의四等에分하여 金輪王이라 하면 天下統一의主를意味한다。 天(아름답다)轉輪聖王(CAKRA AVARTI)의중에서 金轉輪王은輪王의輪王인者이다。(俱舍論第十二參照)。 佛敎文化의影響이 君王의名字上에도 나타나게되며 慈悲、智證法

興、眞興等과 한가지王號로 가장 英微한意를有한 金輪新羅에서는 第二十五眞智王의一名으로採用되었다 그러나眞智王代前後의王名의例에驗하면 이밖외지도當初부터佛典의名句를取하여 바로名字를삼은例는적고 此개는國俗에準하여 무엇이라 고名號한것을當時후後代의人이 音譯義의近似한佛典語로變通함에그치니 智大路가智度路로智哲로智證에至함과 融處가昭知로化等과갓다 眞智의金輪도필시이러한것의一로 본머는舍輪(또그原形은우엇이든지)인것을 舍가形與訓이로다金에近함으로舍輪의字를借用케되듯하니 三國遺事에는「名金輪一作舍輪」이라하였스되 三國史記에는「諱舍輪(或云金輪)」이라

하야 舍輪을主로함이斟酌잇는筆法일가한다 正史記에眞平王의諱白淨、眞興王太子銅輪之子也라한것은遺事에名白淨、父銅輪、一云東語太子라하였스니 이銅輪도일뜻보면 四輪의一에外來한듯호되 그는다만字形은이오 실상은東語라는本名으로부러 차차變通된것임이보이니 金輪의舍輪에本함은 이에서더잘알것갓다。 그러나이러컨커려컨人名과王號에는金輪이義로切當함을깨다르려니와 寺院의名에는 그리適合하다할理山을찾기어려우니 正統치안컨마는 구래의字를用하고 그字를쓰게한原形의關係라할것이오 이것이 大개舍輪의例와가튼『舍』의類일가한다。

(十九) 三國史記樂志에玉寶高所製三曲의目을載한中에 上院曲、中院曲、下院曲等이잇고 于勒所製十二曲이란것에는上加羅都、下加羅都란것이잇스니 이로외雲上院의上院이上中下의上임을想像할수도잇스나 다시생각하면雲上院이란雲에는中과下가갓지아니하고 또上院으로名한佛字의通例에徵하야도 江陵五臺山、永川八公山、咸昌幸岳山、嶺定馬耳山、昌平夢仙山、高敞半登山、益山龍華山、公州鷄龍山、驪州慧目山、砥平龍門山、鳳山政方山(以上輿覽) 寧邊妙香山(妙香異蹟)等何處에든지 上院잇는곳에中下의院을거느린例가업고 上中下의三部로난호일形止가아닌즉 雲上院의上院과 琴曲의上中下院의上院과는 字形偶同호며本據는無關한일것이다。 上을『舍』로訓한듯한字次를 三史地理志의『上忽一云車忽』(本論三三參照)이라함에서보 고는上院이『舍』와音이近한 즉雲上院은대개雲山(『舍』山)의『舍』이라것이縮譯된 것일가한다。

또震域古代의 通例에 徵하건 머그宗敎의餘痕은 山與峯과 한가지 山中의水名에도남아 잇는것인데 智異山間으로서 發源하는 主要한水脈에 東川道川、德川에『은』이남아 잇고 嚴川、源川、國緣津、南江에『은』이남아잇고 釜淵소서 에『은』이남고 龍淵、馬川에『은』이남은것처럼 薩川、雙溪、三壯水에는『舍』形이남아 잇스니 야(淸川江인)薩水의妙香山에서와갓다。(二十) 崔致遠의時代는百度唐化의風이極頂에達하고 眞智王의孤雲가름이그領甲이엇스리니 國語漢譯の上에徵알지라도 麻立干으로譯하는『은』을寐錦이라하야 富貴의意를寓하고(眞鑑碑序)夫妻라譯하든『은』을風流라하야遊娛의意를表한(鐵郎碑序)等崔孤雲의例習으로보아서 雙溪의雙이또한狐雲의譯한『舍』의一形임을設想할수있다。 鏡城白鹿山雙溪寺、富寧雙溪山、比安雙溪、羅州雙溪山、金溝妙高山雙溪寺、恩津佛明雙溪寺等의 그것도다 雙谷、雙林等과한 가지대개는『舍』의轉譯일것이 다。

◆ 寐錦의名이孤雲보담암에서 日本書紀神功紀에외은例가잇기는하다。

◇ 訂正 昨紙の本論은그릇一回를踏過하얏기茲에訂正하오니 今日本所載의第次를맞고아보시옵

# 壇君論

(六〇)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六〇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四)

(二五) 禪雲이이미(雲)의  
譯일진대 仙人說話가거기傳  
함이當然하니 寺傍은禪雲寺  
開山祖라하는黔丹禪師란이도  
본머는此山의說話上主人이든  
古仙人의佛敎의攝融일것이  
黔丹을古文籍에만히仙人으로  
쓰고 寺傍외지도仙僧兩樣으  
로傳說함은 다그古仙人인本  
地가 아직외지도아주脫化되  
지못함을나타낸것이  
『形止案前引한下文』: 次有  
開泰寺、挨丹仙人鍊心之道場

其下大海中有里名挨且、神僧  
擧置鹽井、聖賢古蹟、至于今日  
不洩矣、此觀音圓通之妙唱、三  
十二應廣化群生之妙德、因曰  
里名挨且、古之挨丹禪師栖息  
養道之處也:  
予一前年어禪雲寺에서此文籍  
을披檢한즉紙品、字樣、文意가  
다자吳古久한데다만原文에는  
挨且이라한것을後人이複書후  
挾書로黔丹이라고改塗하였슴  
을認하였다(且字를諱치아니  
함으로그것이대개李朝以前의  
文籍을傳承한것으로認할듯하  
다)。挨且과黔丹이느것이는한  
지는모르겠고挨가혹黔의別傳

인檢字를檢으로쓰에외轉訛된  
것일지모르나 여하간 그文  
中에문득 仙人이라하였다가  
고대神僧이라함이 서투르게  
辭重意複함을注意할지니 원  
來一篇의文辭가 그다지通暢  
하지못하거나와 이리케座形  
의仙과杜撰의佛의變擧并出하  
야換入竄改의形迹을말할수  
蔽하지못함에서 더욱그手段  
의높지못함을볼것이다。山中  
에傳해오는古人的名을 그  
佛敎의開山祖로轉化해는他  
에도例가잇스즉 禪雲의挨且  
(黔丹)이또한 그類일가한다  
(輿覽三六、茂長、山川條에黔  
堂浦在 縣北二十五里라하고  
鹽井在黔堂浦、入海二里許、其  
水白而鹹、侍潮退、額田桔槔汲  
之、糞而爲鹽、不勞漚曝、多  
收其利、惟黔堂浦而已라하니  
이것을黔對禪師의利物한神化  
라하는대외의 여러傳說의  
禪雲山中心으로만히었다)。  
諸書를按하건대 黔(儉)丹。

로名하는山이 交河、廣州、清  
州(報恩)와(以上輿覽)慶州  
(東京雜記)其他에잇는데 輿  
覽의清州(報恩)條에『百濟僧  
儉丹所居故名』이라한名源을  
적었다。이밖게芝峯類說(卷  
十八)外道門仙道條에 一種  
의仙鄉淹留說話를적으면서  
黔丹禪師를말하고 是同禪門  
條에眞鑑圖師의일을적은다음  
에『俗稱黔丹禪師、即眞鑑也、  
崔致遠撰其碑序曰、禪師形貌  
黯然、衆號黑頭陀是也、余聞  
諸老僧如此』라한것이잇스니  
國語에黔을『眞堂』이라함으로  
외 索引한一說이러니와 且  
黔丹을僧視한一記傳이다。그  
러나黔丹의僧으로의事蹟은古  
籍에보인것이업고 後代의傳  
說에나오는그는 언케든지半  
仙半佛의일흔아니라 더욱그  
로外禪雲山의主人이라함에서  
그本地를집착할것이잇다 大  
개儉丹仙人의仙人이 禪師로

뵈고잇슴따름일것은 다른데  
서도이러한開山祖는祖師나大  
師等이아니라 하필禪師로써  
일커름으로외 얼푸시집착할  
지니 이儉丹의山名은 위선  
茂長의黔堂浦로부터扶安의黔  
毛浦 文義의儉丹淵 宜寧의  
黔丁川 陽川의黔頭山等과  
乃至劍 檢等으로외부르게된  
만흔山川의名稱과한가지 무  
스神道の來歷을가진것일것이  
다(海東佛祖源流가든데도  
黔丹의名은보이지안하다)  
黔이고儉이고 且이고丹이고  
를字義上으로보아도 佛敎다  
은點은조공도업스면서 仙道  
의色味는매우濃厚하다 『黔』  
은造化神의名으로써우는 字  
이니 楚辭의『召黔風而見之  
兮』와 司馬相如賦의『左玄  
冥而右黔雷兮』란類가是요  
『儉』은 仙道家에 修養上要  
目으로 쓰는字이니 老子의  
『我有三寶、持而保之、一曰慈、

二曰儉、三曰不敢爲天下先』이  
라함과 內觀靜定圖의『儉視  
養神、儉聽養虛、儉言養氣、  
儉欲養精』이란類가是요 『丹』  
은仙의別稱을되는字니外말할  
것도업고 『且』도道家에서特  
殊한意味를부쳐쓰는字이니  
莊子の『彼有形骸而無損心、  
有且宅而無情死』를成玄英疏  
에『且、日新也、宅、神之舍  
也、以形骸之改變、爲宅舍之  
日新耳』라한類가是이다。(孟  
子以來의且氣란것과導引術과  
를關聯하여생각도할것)。黔丹  
(儉丹、挨且)이무론古語의意  
晉이깃지마는 그晉符도取用  
한字의義를보면 大개仙의名  
새를품것슴으로볼것임이母論  
이다。  
儉丹이여러地名에흔히쓰우는  
말임으로외 그것이獨人格的  
名稱의與否부러實言키어렵거  
니와 實사人名이라할지라도  
佛者의名이오 且百濟의僧이  
라함은 憑據업는말이다。

# 壇君論 (六一)

## 朝鮮을中心으로 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六一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五)

(二六) 禪雲山은古神道와古代山岳(洞窟)住民과의만흔遺跡을가진 稽古上의一寶庫이다. 거기남아있는만흔地名과地名에附帶된여러가지 古傳說은다貴중한 暗示를먹음은것들이다. 그런데뒤에는이것이더가佛敎로融攝되어 佛敎의說話의色態를가지게되었다. (Megalithic Culture의遺跡으로볼天然或人造의만흔「石室」의중에서金山の外廓을지은一峯頭에있는顯著한「멘히르」에關하여 下文가是說話의利用이생긴것다위의다. 이山에佛法이들어오기前에龍池가잇었는데 神僧이잇서서그龍을築고 그못을매우

고칠을이룩할적에 于闐國으로부러온 十六羅漢의監齋使者를식여서그龍을다룬山으로領去케하고일으기를 다려다두고는 뒤도돌아다보지안코와야 無事하지 그러치아니하면 큰봉변을하리라하얏더니 그使者가다려다두고 이가지無事히돌아와서는 인제아설마어떠라하고 뒤를돌아다보다가 그자리에서몸이石化하여 龍간山바라는족의그사람이되었다하는이야기를傳한다. (鄙著「尋春巡禮」의兜率山記錄, 특허 一〇一, 一〇二頁參照)

【兜率山懺堂寺故事】 : 兜率之數十步, 有起出庵, 亦義雲之所創也, 此所謂古龍潭也, 當時有石甕, 來泛于山外竹浦口, 玄音樂聲, 迭發其中, 俗人欲見則

船自退却, 義雲聞之, 率弟子而往焉, 船自近岸, 乃登船視之, 則玉軸大藏, 鸞迦文佛, 迦葉阿難十六羅漢, 并坐船中, 有一金人, 右手以搖玉櫓帶繡帆, 左手以執牙籌金字寶印焉, 乃并下陸地而莫定與安之所矣, 是夜義雲之夢, 金久謂曰我是于闐國王也, 欲覓泰像之處, 遍海東諸山川, 而望見兜率山, 有大懺奇氣之橫空故來此, 請卜築以安鎮之, 師遂建寺而真興王施之, 懺寺是也, 茲寺之佛即其時所來諸像也, 乃卜一庵於龍潭上而奉羅漢, 乃命監齋使者, 覆驪龍, 出之於輿城之方等山, 使者不得還, 至今石立于其所, 乃使者碑也, 以龍起出故, 因以名庵曰起出云, 羅漢眞像, 依舊尙新, 眞所謂空山無人水流花開者此也, 一壑窈窕, 千態奇怪, 茲山大觀, 備極於斯矣, 其西有塔禪寺, 又西有泓洞時, 俗傳以爲驪龍潛伏之吸引西海之水而越此云, 洞之名此, 其或有一泓海水盃中瀉之義耶;

(二七) 【輿覽西矣, 高城, 山川條】 三日浦, 安軸記云, 浦在高城北七八里, 外有重峯疊嶺合包而內有三十六峯, 洞壑清

幽, 松石奇古, 水中有小島, 蒼石盤陀, 昔四仙遊此而三日不返故得是名, 水南又有小峯, 峯上有石籠, 峯之北崖石面, 有丹書六字曰永郎徒南石行, 小島古無亭, 存撫使朴公據之於其上, 即四仙亭也.

여기仙이란것이新羅의郎徒를國仙이라하는仙임은 芝峯類說(卷十八, 外道部仙道)에도辨할과갓다. 그런데當時의國仙이란것은 國家神道의一種의生偶像으로 國選民戴하는一時一人인者이오 後後人이그를遊娛山水로稱하게된그聖地巡禮도 風月徒라하는一郎中心의一團體식이차려로行하는것이오 四仙四徒가一處並遊라하부러 於理에不當하고三日云云이 三日이란字를得한後의생긴말임은 贅辨할것임은일이다. 震域에서는稀奇도한이만한湖水가필시너로부러住民에게神視가되고그리한것이名號의우에떠러져서三日로외지轉譯된일것이다.

(二八) 風月道の仙郎의主要한職司가들이잇스니 一은國敎에依據한國民精神(道義觀念)의滿發이오 一은그信仰

的背景으로의神道靈場巡觀이었다. 崔孤雲의戀郎碑의말과가치「遊娛山水遠不至」하는것이이다는 그巡禮의中心은關東의諸要地(지방의勝地, 그여에는靈場)요 그終局의團圓은 大개지방의金剛山에와서지엇든듯하다. 이風月徒의다니다곳에仙遊降仙等그야말로言語疾病의仙人說話가생가게되고 冥冥한實在的人物이어는뎃렬仙傳中の怪物로視하게되가지하얏다.

(震域의)古傳에나오는일은바仙이란것은大개兩類에나홀것이니 그古한者는「술」又「소」의譯字인것이오 그後한者는風月主의別名인國仙 仙郎, 仙家, 仙風다위의一用例이다 그根原(本地)이야무론同一한「道」의行者이지만는 前者는個人的地方的임에對하여 後者는團體的團體的인것이 兩者의差異이잇스니 얼는말하면前者는山岳神道の祭司요 後者는宮廷神道의大僧正인것이다 그런데後世의地名或地方說話中에나오는仙迹이란것은 兩者를包括한것이다.

# 壇君論

(六二)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六二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六)

(三十) 『廣法寺事蹟碑銘序』  
 『竺之教西而東、東而有王儉  
 仙人國、國之東、又有大耶九  
 龍山、山曰太白、白龍脈也、雖不  
 甚、幸得窟窿而山中多異跡、古  
 有鹿足夫人、一產九子、不祥  
 而幽于海、則流而中國見收而鞠  
 及長反犯本國、卒覺其爲父母  
 邦、釋孳、歸還此山、奪龍  
 池、庵而居之、修道成佛、今  
 之鹿水庵及頭陀寺、乃九佛始  
 終地也、且一洞九十九池、此  
 恒河萬八世界之所未有而茲山  
 有之、其中一大池、深淵莫測  
 有時作風雲雷雨、以蘇其焦爛  
 衆生、是池之陰助我慧澤何如  
 也、如白龍之落地爲鹿、神牛

之踐石留跡、亦是怪奇而此皆  
 記傳於古今、歷歷可據若三。  
 茲山有十數道場而唯廣法寺最  
 大、始也阿道和尚、自符秦、  
 來作佛殿、若僧寮數百架、雖  
 中經劫火、十不三存、而曹光  
 約楸之奪造、冥府泥塑之逼真  
 三日庵之瀟灑、七星堂之幽絕  
 皆甲於叢林。 (予의臨碑手  
 抄本에據함、朝鮮金石總覽下  
 三七八號本에는缺字가있다)。  
 文中의大聖九龍山、鹿水、三  
 日等의名稱과 九子、九十九  
 池、奪龍池、白龍、神牛等의  
 事實을특히注意할것이다。  
 (三二) 鹿足夫人云云의話型  
 은雜寶藏經一에보인提婆延仙  
 人與蓮華夫人의傳說을模倣한  
 일지분명하나 그骨子인聖母  
 卵生의一段은 古確한來由를

가진口碑일것이다。  
 (三三) 大聖山의主神은近世  
 에는『皇帝마누라』라하여 平  
 壤에잇는 民間崇拜上最高神  
 格이였는데 皇帝마누라가뜻  
 鹿足夫人이란것임은 傳說의  
 意味로써 밝히알것임은 또  
 그것의『夫餘神』『隣神』이란것  
 임은 記傳의事實로써어슴부  
 레짐작할것이다。松岳山에崇  
 奉한高麗의 國母格인神을시  
 방俗稱에『大王마누라』라함으  
 로 大聖山神의『皇帝마누라』  
 란것이 民間信仰止乃至古神  
 道上어떠한意味를가지는것임  
 의외다를것이다  
 (三三) 朝鮮神話의中心事實  
 은建國이오 建國事實의共通  
 分子는地母(Earthmother)思  
 想이니 이女主人公의『地母』  
 라하여 그稱語에『스시』가잇  
 고 이것을神格的으로稱呼할  
 שה에『마누라』라하고 다시그  
 것을二人稱으로부름에『어  
 머니나』『할머니』라하고이것  
 들을漢譯하여 聖母(神母)혹  
 天人(이라하고 轉하여女仙  
 이라고하였는데 이녀는어느  
 民邦의神話에서든지國土의生

母로나오고 後에轉하여建國  
 者의生母라하게되었다。그런  
 데이이를漢譯하여聖母、神母、  
 女仙이라하는聖、神、仙이 漢  
 字의 音義로 通하는것은만  
 아니라 그原語부터 百濟의  
 召西奴新羅의 婆蘇等처럼  
 仙과相近한 音頭를가진것  
 이오 또그것은부른神聖를意  
 味하는『스』音系의眷屬으로  
 『스라』의姊妹語인것이다。三  
 國志에傳한高句麗의隣(後漢  
 書에는隣)가夫後周書에傳하  
 는夫餘神으로、그것이三國史  
 記百濟本記에見하는召西奴의  
 類요 後世文籍에東神聖母라  
 하여 高麗에서繼承尊祀하는  
 것이오(宋書의高麗의歲神은  
 바로물것)俗에大王마누라、  
 王神마누라、平壤大聖山에서  
 皇帝마누라라하는것임은 古  
 義와通例에照하여 얼는집작  
 할일이다。聖母의聖이나 聖  
 山의聖이나그本地는『스』에서  
 왔스리니 大聖山은대개高句  
 麗의國母崇拜地이였을것이다  
 國母인聖母、神母를女仙으로  
 變通도함은 新羅의西述聖母  
 를女仙으로別稱하는例에서보

리니  
 『三國史記卷第十二』論曰新  
 羅朴氏昔氏皆自卵生、金氏從  
 天入金橫而降、或云乘金車、此  
 尤詭怪不可信、然世俗相傳、謂  
 之實事、政和中、我朝遣尙書  
 李資諒、入宋朝貢、臣富軾以  
 文翰之任輔行、詣佑神館、見  
 一堂、設女仙像、館伴學士王  
 輔曰、此貴國之神、公等知之  
 乎、遂言曰古有帝室之女、不  
 夫而孕、爲人所疑、乃泛海、  
 抵辰韓、生子爲海東始主、帝  
 女爲地仙、長在仙桃山、此其  
 像也、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  
 東神聖母文、有娠靈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三國遺事卷五、仙桃聖母隨喜  
 佛事』 眞平王朝、有比丘尼  
 名智惠、多賢行、住安興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夢一女  
 仙、風儀綽約、珠翠飾裝、來  
 慰曰我是仙桃山神母也、喜汝  
 欲修佛殿、願施金十斤、以助  
 之、宜取金於子座下、惠乃  
 驚覺、率徒往神祠、座下掘得  
 黃金一百六十兩、克就乃功、  
 皆依神母所諭、神母本中國

帝室之女、名婆蘇、早得神仙  
 之術、歸止海東、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隨處所止爲  
 家、蘇得書放意、飛到此山而  
 止、遂來宅爲地仙故、名西鸞  
 山神母、久據此山、鎮佑邦國  
 靈異甚多、有國已來、常爲三  
 祀之一、秩在群望之山、第五  
 十四景明王、好使鷹、嘗登此  
 放鷹而失之、禱於神母曰、若  
 得鷹、當封爵、俄而鷹飛來止  
 机上、因封爵大王焉、其始到  
 辰韓也、生聖子、爲東國始君、  
 蓋救居闕英之所有也、故稱雞  
 龍雞林白馬等、雞屬西故也、  
 嘗使諸天仙、織羅緋染、作朝  
 衣贈其夫、國人因此、始知神  
 驗。』  
 『輿覽二、慶州、祠廟條』聖  
 母祠在西嶽仙桃山、聖母本中  
 國帝室之女、世傳赫居世乃  
 聖母之所誕也。』  
 라하여 婆蘇라는그가聖母도  
 되고神母도되고女仙도되었다  
 (도山神)을女仙으로稱한例로  
 는輿覽十四忠州의風流山鳩徽  
 女仙、連珠女仙의事를參互하  
 고 聖母에關하여는 同三  
 晉州의智異山聖母의事를較量  
 하라。

# 壇君論 (六三)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六三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七)

(三三) 聖居(開城, 稷山, 光州), 聖住(藍浦, 陰城), 聖興(林川, 聖旺(瑞山)聖安(比安), 聖靈(鎮安)聖六(豐基), 聖堂(唐津, 保寧), 聖燈(長湍), 聖輪(陽智), 聖歷(永興), 聖留(蔚珍), 聖代(北青), 聖德(玉果), 三聖(文化, 豐樂, 始興, 珍原), 遊聖(禮安), 等山水洞(의名은) 대개古神道에因緣을 가진것이니 그것이後에는후寺院으로新命을續하고 舊祭壇으로舊意를存하였다. 始興三聖山의安養寺, 永郎城等이는것처럼) 崔致遠의聖住寺副慧和尚白月菴光塔碑의文을據하면 藍浦聖住山의名이호慧

則을因하여聖住寺以後에始하였다. 又曰『易寺核爲聖住』는그以前에는달리무엇이라하든寺名을聖住로稱케하였다함이오 山名의起原을알음이아닐것이다. 聖의類音으로쓰는字에成, 城, 省, 星其他가만코도그變例에는兄(訛音성)과가튼것도잇스나 慶州의兄山이그例이다. 北兄山의新羅의中祀가되었고西嶽인仙桃山을西兄山이라고도일컸스름은顯覽에적음과같다. (三四)高麗史地理志(卷五十八)를據하건대 名山으로는트하(는唯一한)大城山을舉하고『一云九龍山, 一云魯陽山, 文獻通考云, 平壤城東北, 有魯陽山, 卽謂此也, 山頂有二池』

라하니이러케大城山은바로부러平壤을代表하는山이다. (通考三五, 原文의下에魯城在某下가잇고 通典에도同文이이다. 輿覽五一, 平壤, 山川條에는『九龍山在府北二十里, 或云大城山, 或云魯陽山, 古記, 山頂有九十九池, 今但有二池, 天旱禱雨有驗』이라하고 大東地志平壤에는『大城, 東北二十里高麗仁宗六年, 作大華宮于林原驛地, 中有乾龍殿, 築石城周二金四千三百尺, 中有尊池, 城內宮殿之址, 溝渠之跡, 至今宛然, 今稱大城山』이라하였다. (九龍山을單히龍山으로稱하기도함은 曹偉의平壤八詠과 帶越의朝鮮賦에외와갓다. 古神道의山名의一例에九龍이잇스니 九龍도또한國語의寫音으로 國又天을意味하는古語요 高句麗語의溝婁(城)와 凶奴語의初連(天)과女眞語의구(國)과乃至窟崙山의窟崙하고關係잇는말이다. 이大聖山에九龍의名이잇슴은그것이祭大의右緣地임을드러내는것이오 大聖(城)

의聖城)이 또한尋常한字아님을旁證하는者이다. 通典以下로 大聖山을魯陽山이라고記함은 國語의已音頭가잇슴으로勿한漢文의雅化를經한것으로認할듯한데 漢書地理志, 南陽郡縣의魯陽有魯山, 古魯縣, 御龍氏所遷』이라함과 元和郡國志의『大龍山魯山縣東南三十五里, 劉累以援隨, 遷于魯縣故名』이라함과 左傳의御龍氏故事와를合量하건대 龍山의轉變한것이魯陽山임을 짐작할지니 魯陽을促讀하면 音이또한龍에近함을본다. 이로勿推하면 大聖山의오래고主되는名稱은九龍이엇슴듯하다. 이것을開城의神嶽인聖居山이또한九龍의別名을가지고(中京誌)金馬의神嶽인彌勒山이그및해九龍里를더리고(地圖)의古壇을有한文義의一神嶽이그名을九龍이라함(輿覽)等을較量하면 聖字와九龍과와의相干이여 九龍과神道와의交涉을대장삼작할것이다. (九龍의轉變形은仇羅, 彌羅, 仇郎, 仇良, 總歸, 總龍, 國靈, 乾

靈, 仇陵, 仇里, 捌, 屈其他가잇다. 廣法寺碑에다른것과유별하게大城을大聖으로 쓴것은어찌갓든지 特히그大聖九龍山이라고連稱한것이 매우注意를요으니 이러케하여仙人祭天地를表함이 그具稱原名이엇슴는지모를것이다. 予「前年踏查할때에도 山中處處에小水의停蓄이잇고 그中著大한것들이잇는데 老居人에게무름즉 下에잇는一은『수문(水門)』이라하고 上에잇는又一은『백문(白門)』이라한다 하였다. 『수』, 『술』, 『박』이다 神聖을意味하는古語인言할것업거니와 特히그『수문』은 近來까지도 道伯의公式祈雨處로祀奉하든곳이오 附近居民은 여의치『龍神』을虔修하는데 그엄해神堂러가잇서 『애기령진』의자리라하니 廣法寺老尼의말을들건대 대개山上神堂의規模를差小하게한故로名하이라하였다. 世宗實錄(一五四)의地理志平壤大城山條에『今但有二池, 遇旱則禱于池, 有尊奈』라하고

大東地志에도 이것을적었스며『수문』의名이 尊奈로해어든것이라하는말도잇스나 거의치나是一種의水藻가 尊이고아닌것은如何問에 池名의『수』는 오래前부터來歷으로부른일홍일것이니 대개神聖한池水라는意味로『수』무이라한것이 轉變한것이다 長安城의長安과大花宮의大花도 필시天을意味하는一古語인『龍』은『龍』으로부러誘導된名稱又思想일것이오 高麗의妙清等이仁宗을迷惑하여 大花宮을營建하고 八聖堂을設置한것도아주無據하게浪造한것아니라 실상古信仰을粉飾하고 古靈驗을利用함으로써물 것이니 八聖을八仙이라고도 일컸러 白頭山以下의山靈을舉하였슴을 注意할것이다. 中の駒麗平壤仙人이란것이 대개이大聖九龍山靈을가르친것일가한다. 『鄭知常, 祭林原關內九聖文, 卽於平壤之中, 卜此大華之勢, 創開宮闕, 祇若陰陽, 安八仙於其間, 奉白頭而爲始』.

의聖城)이 또한尋常한字아님을旁證하는者이다. 通典以下로 大聖山을魯陽山이라고記함은 國語의已音頭가잇슴으로勿한漢文의雅化를經한것으로認할듯한데 漢書地理志, 南陽郡縣의魯陽有魯山, 古魯縣, 御龍氏所遷』이라함과 元和郡國志의『大龍山魯山縣東南三十五里, 劉累以援隨, 遷于魯縣故名』이라함과 左傳의御龍氏故事와를合量하건대 龍山의轉變한것이魯陽山임을 짐작할지니 魯陽을促讀하면 音이또한龍에近함을본다. 이로勿推하면 大聖山의오래고主되는名稱은九龍이엇슴듯하다. 이것을開城의神嶽인聖居山이또한九龍의別名을가지고(中京誌)金馬의神嶽인彌勒山이그및해九龍里를더리고(地圖)의古壇을有한文義의一神嶽이그名을九龍이라함(輿覽)等을較量하면 聖字와九龍과와의相干이여 九龍과神道와의交涉을대장삼작할것이다. (九龍의轉變形은仇羅, 彌羅, 仇郎, 仇良, 總歸, 總龍, 國靈, 乾

靈, 仇陵, 仇里, 捌, 屈其他가잇다. 廣法寺碑에다른것과유별하게大城을大聖으로 쓴것은어찌갓든지 特히그大聖九龍山이라고連稱한것이 매우注意를요으니 이러케하여仙人祭天地를表함이 그具稱原名이엇슴는지모를것이다. 予「前年踏查할때에도 山中處處에小水의停蓄이잇고 그中著大한것들이잇는데 老居人에게무름즉 下에잇는一은『수문(水門)』이라하고 上에잇는又一은『백문(白門)』이라한다 하였다. 『수』, 『술』, 『박』이다 神聖을意味하는古語인言할것업거니와 特히그『수문』은 近來까지도 道伯의公式祈雨處로祀奉하든곳이오 附近居民은 여의치『龍神』을虔修하는데 그엄해神堂러가잇서 『애기령진』의자리라하니 廣法寺老尼의말을들건대 대개山上神堂의規模를差小하게한故로名하이라하였다. 世宗實錄(一五四)의地理志平壤大城山條에『今但有二池, 遇旱則禱于池, 有尊奈』라하고

大東地志에도 이것을적었스며『수문』의名이 尊奈로해어든것이라하는말도잇스나 거의치나是一種의水藻가 尊이고아닌것은如何問에 池名의『수』는 오래前부터來歷으로부른일홍일것이니 대개神聖한池水라는意味로『수』무이라한것이 轉變한것이다 長安城의長安과大花宮의大花도 필시天을意味하는一古語인『龍』은『龍』으로부러誘導된名稱又思想일것이오 高麗의妙清等이仁宗을迷惑하여 大花宮을營建하고 八聖堂을設置한것도아주無據하게浪造한것아니라 실상古信仰을粉飾하고 古靈驗을利用함으로써물 것이니 八聖을八仙이라고도 일컸러 白頭山以下의山靈을舉하였슴을 注意할것이다. 中の駒麗平壤仙人이란것이 대개이大聖九龍山靈을가르친것일가한다. 『鄭知常, 祭林原關內九聖文, 卽於平壤之中, 卜此大華之勢, 創開宮闕, 祇若陰陽, 安八仙於其間, 奉白頭而爲始』.

大東地志에도 이것을적었스며『수문』의名이 尊奈로해어든것이라하는말도잇스나 거의치나是一種의水藻가 尊이고아닌것은如何問에 池名의『수』는 오래前부터來歷으로부른일홍일것이니 대개神聖한池水라는意味로『수』무이라한것이 轉變한것이다 長安城의長安과大花宮의大花도 필시天을意味하는一古語인『龍』은『龍』으로부러誘導된名稱又思想일것이오 高麗의妙清等이仁宗을迷惑하여 大花宮을營建하고 八聖堂을設置한것도아주無據하게浪造한것아니라 실상古信仰을粉飾하고 古靈驗을利用함으로써물 것이니 八聖을八仙이라고도 일컸러 白頭山以下의山靈을舉하였슴을 注意할것이다. 中の駒麗平壤仙人이란것이 대개이大聖九龍山靈을가르친것일가한다. 『鄭知常, 祭林原關內九聖文, 卽於平壤之中, 卜此大華之勢, 創開宮闕, 祇若陰陽, 安八仙於其間, 奉白頭而爲始』.

# 壇君論

(六四)

## 朝鮮을 中心으로 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六四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八)

(三五) 三國史記에 百濟始祖 首都의 地가 慰禮城이라 하는 것  
 을 考고(卷第二十三)、그 位置  
 는 未詳에 付하였다(卷第三十  
 七)、그런데 高麗史地理志(卷  
 五十六)의 天安府下에 『稷山縣  
 本 慰禮城、百濟始祖 湯祚王、開  
 國建都、後高句麗取之、改爲蛇  
 山縣、新羅困之、爲白城郡領縣  
 高麗初更今名』이라 하고  
 그後에 輿地勝覽(卷之十六)以  
 『下』로 이것을 沿襲하여 稷山의

드대어 百濟의 初都로 傳信하게  
 되었다. 丁氏若鏞이 그 我邦疆  
 域考(卷之三、慰禮考)에 비로  
 소 百濟의 首都가 稷山이 아니라  
 漢水 附近地의 南北에 遷轉한 것  
 임을 辨析하고 韓氏鎭書가 海  
 東釋史續(卷第八、地理考)에  
 이를 申明하고 其他諸家 一此  
 說 證確하야 (本翁地志、窠  
 日瑣錄等) 溫祚王의 初都는  
 今 漢陽城 東北이오 二十三年  
 의 徙地는 今 廣州郡이라 함이거  
 의 通說을 지었다. 다시 近時에  
 이르러 百濟의 國都가 國初로  
 부러 熊津遷都의 時에 徙지

今 廣州에 固定하야 일즉 移動  
 이 없음을 밝히고(今 西龍、百濟  
 國都 漢山考、史學雜誌第二十  
 三編第一號) 進하야 郁里河가  
 漢水의 故名임으로써 慰禮城  
 本시 漢城의 別名임을 論證하게  
 되었다(朝鮮歷史地理第一卷  
 津田左右吉、百濟慰禮城考)  
 이러하야 慰禮城의 位置와 그  
 名義는 大개 論이 定한 것가 成되  
 었다

百濟의 初都가 今 廣州임은 吾人  
 도는 認한다. 但 國都의 名으로  
 의 慰禮가 漢水의 別名인 郁里에  
 相干하리라 함도 吾人은 是認  
 한다. 但 丁氏茶山의(其謂之 慰  
 禮者、方言、凡 匡郭之 四圍者  
 謂之 圍哩、慰禮聲相近也、樹  
 棚築都、以作 匡郭故、謂之 慰  
 禮也)라 하는 別個의 語原解도  
 도한 有理化가 알며 又보는 方  
 法을 詳하서는 慰禮語原에 關  
 한 丁說과 津田說이 반드시 托終  
 하야 서로 通치 못할 것이 아님

外지를 認한다. 그러나 稷山의  
 慰禮城을 一筆로 抹去하고 아  
 주 一笑에 付하는 態度에 對하야  
 는 吾人이 必로 一異見을 품는 것  
 이었다. 但 丁氏申旅庵의 所說  
 (疆界志卷之九、百濟國、國都  
 條)은 是認코지함도 아니라  
 稷山이 但 慰禮城일 것을 認치아  
 니치못하는 一理由를 가졌다.  
 그것은 慰禮의 名이 郁里河로 徙  
 來하였다고 하면 水名의 郁里  
 는 무엇에서나 왔는가? 但 城  
 柵을 爲이라 함에서來하였다  
 고 하면 城柵은 어찌서 爲이라  
 하고 하는가? 를 생각할 때에 慰  
 禮城에 對하야 새로운 視野가  
 展開되는 感이 잇지아니치못한  
 다. 『經』의 古震人의 神聖  
 表示語로 三司宗教의 對象이  
 되는 山水의 名謂에 만하서 吾人  
 吾人의 種種의 機會에 辨證을 힘  
 쓴바이다. (前文二九、四十、  
 四一、四二의 箋注三四至五一  
 四二)의 該當한 本文參照) 是로

神靈한 것을 가로대어 靈이라 하  
 고 偉大한 것을 가로대어 靈이라  
 라하고 尊勝한 것을 가로대어  
 靈이라 하고 主要한 것을 가  
 로대어 靈이라 한 것은 여러가  
 지로 그古意를 더듬을 수 잇고 또  
 그後世의 譯字 一多樣多歧에 互  
 한 것도 이미 多少의 考察을 試  
 한바이어나와 이케이 慰禮란  
 것이 晉이 이미 相近하고 그  
 用例 一도한 上京或神邑(古代  
 의 首都는 大개 宗教的이란 것가  
 든 一種의 高級의 意味의 表現  
 에 當한 즉 慰禮가 또한 靈의  
 一譯形임을 設想함이 그리어  
 지가 아닐 듯하다.  
 試하야 百濟의 邦邑命名의 實際  
 를 察하건대 當初에는 馬諱聯  
 邦中 一都邑이 잇슬 百濟는 伯濟  
 (漢籍)라 百殘(麗齊)이라고도  
 함으로써 그것이 單純한 寫音임  
 을 알것인데 百(伯)이 靈의 譯  
 濟(殘)가 재或殘의 譯으로  
 神城(兵神州)를 意味함은 字  
 義에서 본아니라 主權의 策源  
 地를 神市로 稱하였다는 類例가  
 이 種族의 古神話(桓雄神話)에  
 보임에서 多類推할 수도 잇스며  
 慰禮城以後의 都邑은 固麻(熊、  
 錦)라 하였다는데(梁書) 晉  
 靈神聖으로 固麻城以後의  
 義를 表하였고 固麻城以後의  
 都邑을 扶餘或所夫里라 하였다  
 는데(三史又三遺) 扶餘靈  
 靈神邑이 但한 神聖地임을 表함  
 에서 一致를 示하였다. 이 들로  
 外위선 百濟人의 都邑에 對하야  
 가지는 觀念을 엿볼만한데 慰  
 禮가 但한 尊高級의 意味를 表示  
 하는 一語로 더부러 語形이 갖  
 고 實際의 用例外지 잇다하  
 면 慰禮城이 但한 一所夫里  
 一固麻城이오 一伯濟요  
 一神市로 大개 上京乃至 神邑  
 의 意를 端的히 表白한 一名으로  
 爲이 매우 妥當하다 할 것이다.  
 (此項末三)



# 壇君論

(六五)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六五 王險城神說의 檢覈 (三五)

(三五의續) 아미戀禮의 語義를이러케推定할진대 水名의 郁里와城名의戀禮가 疎鬆한 外形의類似를超하여 緊密한 內容의符合을示한것을알것이며 古代의國都를神邑으로稱함은 다만그地位의誇耀의表示로가아니라 此가當時人文一切의核心과主軸이되는神宮의 奉安地되는民俗의事實의背景을가짓기때문이다. 이러한神邑의施設은山頭潔淨의地를擇하여 一種의圍郭을만드려외神聖의 宿存地임을表示하는 것이니(朝鮮의金城、月城、日本의神籠石、瑞籬等처럼)神

지말린法이입술것이오. 그리면上京으로가아니라도單히神邑이라는意味의戀禮란名號가여기帶着됨이十分可能할것이 다. 누가弁韓이나馬韓이나新羅나百濟의 上京의神邑이아니란理由로써 智異山의大神嶽임과 아울러그阿利英(嚴)의名號를否認할者이나. 우리는이러한理由로써 稷山의戀禮城이란古傳을 一種獨特한態度下에是認하려한다. 그聖居山이란山名이다른類例로보아아미尋常치안코 이山下의村里에神山이隨伴되는地名인「솔」의轉形으로認되는侍郎里, 耆老里等의잇슴과 此外에도松堂, 天興, 堂谷, 軍丹, 三龍等山緒의잇슴을地名이 그周圍에環繞되어잇슴과(陸地測量部, 五萬分一地圖, 金澤參照) 歷代의君王이歷過에만드시祭한(輿覽參照)等으로쳐도 隱約히그古意를 짐작할것이다. 予一前年에登臨하여그形止를살피매 그일은바城이山頂을中에두고동그라케 두른도양이라든지 輿覽에는

土築이라고만하였는데 그大野와大海를俯瞰하는족에는 城石臺를築造하고 그上에는壇臺의遺址가歷歷히남아잇는것이라든지 龍湫라하여神山必隨의靈泉이잇치이시방외지祈雨의對象이되는것이라든지其他諸種의形勝으로보아서아무리古初에라도國都될餘地는업스되祭壇으로의모든條件은매우具備함을審察하고 聖居의名과戀禮의稱이 古靈時이든餘影으로確認하였다. 伯濟가본대馬韓의一邦으로南으로부터 北進한者인것을古來의史家가 三國史記以下の記傳을過信하여 마치北으로부터南進한것처럼보는것이外錯임과 이러케보면廣州以前에 稷山도一時의上京이잇슴可能이잇슴等은 야즉舉論할기로하자.

(聖居山의 南麓에望日時가잇스니望日도所以잇는일홍이런나와 王字城에因한王字山의名이잇스니 이王字는 필시「일자」戀禮城의殘形일것이오 經表八〇頁參照, 輿覽

覽天安의留麗王山이란留麗도「을이」一轉形으로볼수잇슴이母論이다. 【輿地勝覽卷之十五, 天安, 山川條】 王字山在郡東北十二里, 鍾山, 高麗太祖, 駐軍于此, 尹繼芳奏, 以爲五龍爭珠之勢, 築壘觀兵, 賜名王字城, 王字者, 乃其山形也. ○留麗王山, 在郡東十一里, 木川縣界. ○【同佛宇條】 留麗王寺, 高麗太祖留宿, 因爲名. ○【同古蹟】 高麗太祖廟, 王字城, 鼓庭, 俱在王字山下, 今只有古址. 【同十六, 稷山, 山川條】 聖居山, 在縣東二十一里, 高麗太祖, 嘗駐蹕于縣西慈歡院, 東望山上, 有五色雲, 以爲有神, 祭之遂稱聖居山, 我太祖世宗幸福泉時, 亦祭之. ○【同古蹟條】 留麗城, 在聖居山, 土築周長一千六百九十尺, 高八尺, 內有一井, 今半頽圮. ○天興寺, 在聖居山下, 今廢, 有唐時所鑿銅

그외의事實을參商에供할것이오. 이맛게聖居山南의天安이본대東西兜率의地이드라함과同山北의安城의 瑞雲山에高麗有壇, 壇下有三井, 遇旱即井, 禱雨頗應等聖居山圈內의事實을注意해들것이다. 中旅庵의疆界志에는聖居山下의料洞, 猪城, 厭水圍裏等の溫祚에附會한地名說話를들었스나 그말의일도당도아니함은 마치지방附近民間에서侍郎里를百濟侍郎의살든곳, 耆老里를耆老의돌든곳이라고傳說하는것과마찬가지인것이매. 이것이稷山戀禮城百濟國初都임을證함에아모도음이되지못함은母論이다. 설사이런地名이百濟의古蹟을流傳한것일지라도 그意義는바로尋釋할것이다. 漢漢城은본대日長城이라하고(麗史五六, 廣州牧) 南漢山은도日長山이라하는것이니(輿覽)이日長도대개戀禮城의一轉形인가한다. 新羅에서는畫長이라하였슴은日長으로서轉變할것이다.

# 壇君論 (六六)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六六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十)

(三六) 【中京誌卷之七、古蹟所引、金寬毅編年通錄】有

名虎景者、自號聖骨將軍、自白頭山遊歷、至扶蘇山左谷、娶妻家焉、富而無子、善射、以獵爲事、一日與同里九人、捕鷹平那山、會日暮、就宿巖竇、有虎當竇口大吼、十人相謂曰、虎欲啗我輩、試取冠、虎攬者當之、遂皆投之、虎攬虎景冠、虎景出、欲與虎鬪、虎忽不見而竇崩、九人皆不得出、虎景還告平那郡、來葬九人、先祀山神、其神見曰、予以寡婦主此山、幸遇聖骨將軍、欲

與爲夫婦、共理神政、請封爲此山大王、言訖、與虎景俱隱不見、郡人因封虎景爲大王、立祠祭之、以九人同亡、改山名曰九龍、虎景不忘舊妻、夜常如夢來合、生子曰康忠、康忠體貌端嚴、多才藝、娶西江永安村富人女、名具置義、居五冠山摩訶山……

다. 여기는細說을避하기니와 그일은바將軍乃至 山神이란 것이 다를데서의仙에當함과九龍이란山名이그로말미암아생겼다함만을注意해들것이다. 그下文에「生二子、季曰損乎述改名寶育、寶育性慈惠、出家入智異山修道、還平那山北岬、又徙摩訶山」과「唐肅宗：至松岳郡、登鶴嶺南望曰、此地必成郡邑、從者曰、此真八仙住處也」抵摩訶山發子洞、密宿寶育第……

의仙像이失棲流落하는것을數處에서보았는데 그것이八仙의古意를傳하는一物임은대개의심업스리라하고 여여케든지適當히保存할必要잇을것을생각하였다. (三七) 【中京誌卷之三】聖居山在天磨山東、一名九龍山又名平那山、上有五峯、其峯各有小菴、稱五聖……

曆의鮮明을帶來함을본다. 일을러면 因蓬巖은필시因陀羅殿의約轉으로 본대天王殿、仙人巖이라든것이 佛敎的名句를冒襲하기를 崔桓雄說話에서와가름일것이고 悟道嶺은他處에서만흔實例를본것처럼 佛(혹成佛)의 悟道の徑路를 踏을일것이고 大興이「당」의略이「당」의對字요 朴淵의朴이「佛」의全形임은警辨할것도업는일이며 普賢도「佛」의一字類요 馬潭의馬가또한神域의一稱인麻姑城의麻의一別形임은後에論及할것과같다. 이러한地名에부러나려오는 後代的傳說은키질로論外에屬하는것이다.

시방은 大興洞을사이로하여 一方을聖居라함에對하여 他方을天磨라하지마는본대一山の兩斜面으로 各異한일호는가섯을것아니나 대개天磨와聖居는一山の兩名으로 그用을달리하든것이 後에原義를일호면서 便宜上갈라부침일것인데 우리의집작에는 天磨는「Tae-mo」의譯形으로 聖居가神山을表함에對하여 天磨는天山을表한語일터름이며 그主峯인普賢은 「佛」의、清涼은「佛」의對字임과 神山必隨의一條件인 國土峯外지잇음을合商할것이다. 天磨山の西北을別로帝釋山이라일커름이또한偶然함이나다 聖居山은要하건대聖居山의意義를 國都의嶺山에외지당과어다가노흔것이나 松岳의松과그一名인神嵩의嵩이 실상聖居의聖과한가지로 「神」類語로서山來한줄을想見할것이오려라서 松岳名原의種種俗說은 본대부러一俗說일터름임을말것이다

聖骨將軍說話는 그起源에在하여 後代的의것이오 些幾多의複合性을먹음은것이로다 그主要한話素에잇서는 依然히震域建國說話의通例를忠實하게 承襲한것이니 還元하여보면虎景說話가못그대로桓雄說話로 그「모」의「브」가서로符節을合하는듯한것이

聖居山이그總名에외와 聖附着傳說에서 이미濃厚한神靈色을드려내었거니와 種種으로換脫하여傳來하는다른名相을稽考할새에 그것이다시一

여러가지方面으로보아外聖居山을中心으로한開城一帶의地는 一方에在한中心의神域의一이었다.八仙이나 五聖이나乃至 將軍이나 唐皇帝나 하는것이 그중에서도 端的한것임은 母論이어니와 이러한名謂上 證述은 그左右의眷屬에도認察할것이이다.

聖居山의聖과한가지로 「神」類語로서山來한줄을想見할것이오려라서 松岳名原의種種俗說은 본대부러一俗說일터름임을말것이다

# 壇君論 (六七)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六七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一)

(三九) 今麻只(金馬洛)라고 하  
는益山이後朝鮮의上都이든與  
否는如何間에 金萬頃平野의  
管領者가은그儼然한威容을瞻  
仰하는者는 그彌勒山이當然  
히一方의大神嶽일것을상할것  
이며 彌勒이란것이古에흔히  
『彌』의譯字로되워 彌勒山即  
是白山의通則이잇슴으로써이  
山의古神道의地位를알것이다  
아니다를가 이彌勒山에도  
『人』系의語類가自然物의稱謂  
上에만하남아있다. 上峯을將  
軍峰이라하니 將軍의『人』系  
의一譯임은 다른데論證한과  
것고(尋春巡遊記二一七頁參照)  
이將軍峰을一에上臺라고도하  
니 (金馬志, 奇觀條參照) 이

上臺의上이尋常히 峯上의上  
이아남은 여러他處의上院,  
上林에외와 가를것이다. 그  
러지안하도 이彌勒山의 東  
麓에도 上元寺, 上元窟이잇  
고 이맛게도그起原을어떻나  
게말리더는師子庵과(師子는  
梵語로俗訶) 師子庵의開闢者  
를善花夫人이라함과 彌勒山  
으로부터發源하는水名에 扶  
桑이란것이잇슴等은 總히이  
山의『人』의故痕으로볼것일가  
한다.

【輿地勝覽卷之三十三, 益山,  
山川條】 龍華山, 在郡北八里  
一名彌勒○將軍峯, 在龍華山  
南. ○【同, 佛宇】 彌勒寺, 在  
龍華山, 世傳武康王, 既得人  
心, 立國馬韓, 一日王與善花  
夫人, 欲幸獅子寺, 至山下大  
池邊, 三彌勒出現池中, 夫人

謂王曰, 願建伽藍於此地, 王  
許之, 詣知命法師, 問填池術  
師以神力, 一夜頽山填池, 方  
創佛殿, 又作三彌勒像, 新羅  
眞平王 遣百工 助之, 有石塔  
極大, 高數丈, 東方石塔之最  
○獅子菴, 在龍華山上, 兩岩  
如壁, 俯臨無地, 石逕勾連,  
繁緣而升, 乃知命所住處. ○  
【同, 古蹟】 石橋洞, 在郡四十  
里, 山麓有古寺遺址, 石橋屹  
立, 高二丈, 俗名其洞曰, 石  
橋洞, 前代州縣, 或用銅若石  
造爲舟橋之形, 以壓勝地氣, 處  
處有之, 此其一也.

予 一 往年에 師子菴을 臨略하  
야 그 形勝이 正히 白羊山의  
藥師菴이나 禪雲山의 兜率  
天이나 乃至 妙香山의 上院  
菴에 當함을 보고 彌勒山이  
神嶽이 아니었스면 已어니와  
그러키만 하잇스면 此處가 그  
『人』行場아 날수 업을것을 알  
는 看取하면서 師子의 名의  
山來를 辨달라다. 善花는  
여개 此山의 聖母이 잇고 知  
命이 또한 禪雲山의 檢丹仙人  
의 類이 잇을것을 推認하리니  
一 師子菴과 그 附着說話는 眞  
實로 彌勒山古意의 討究上의

秘鍵을 짓는다 할것이다. (彈  
勒云云은 古神道의 聖石을 佛  
敎에 外像設化한것을 說話의  
으로 表示한것이니 益山이 시  
방잇는 遺跡으로 만보아도 우  
리 巨石文化期의 一大中心이  
오랄것이 宗教의 大中心이든  
줄은 邑의 前面이 卓然히 並立  
한『人石』이라는 特種遺物과  
其他立石, 石佛, 石橋, 支石  
等多數한 實物로 勿알수잇다  
(鄙著『馬韓故都』에 미르다)  
(南泰普, 金馬志上) (山川)  
將軍峯, 在龍華山西, 山之最高  
處. ○扶桑川, 在郡東五里, 自  
龍華山東麓發源, 與道川會于  
新方橋, 入于橫灘下流. ○(佳  
境) 上元窟, 在上元寺洞口, 其  
深不可測, 傍有兩窟岩瀑, 鳴聲  
琤琮, 頗有佳趣. ○(祠廟) 祈  
雨壇, 一在獅子菴東絕頂上, 一  
在郡顧山上. (彌勒山의 것은  
將軍峯의 東腰門地에 잇는데 神  
井을 中心으로 하야 築造한것이  
오. 그것이 正히 稷山聖居山,  
始興三聖山의 龍湫라는 寺방祈  
雨處와 한가지로 靈時必隨의  
神泉일것을 認可야다. ○(寺  
刹) 上院寺在龍華山東麓下, 獅  
子菴, 在龍華山絕頂, 僧徒傳言  
箕準師知命法布, 爲 狒斯菴, 箕

準之世, 佛法未及來, 其說未  
免荒誕. 眼界無垠, 稱勝地.  
○(古蹟) 立石, 在郡南十五里,  
帝石而路傍, 出地五尺, 入地七  
八尺, 前面鑿穴, 至半不盡穿,  
不知古人設此何爲也, 里名立  
石以此. 支石, 在郡西十五里,  
支石而林內里西編, 累石而上  
覆大石, 未知古人何所取象也,  
而名以此.

朝鮮의 古文化를 稽查함에는  
거의 그 全部가 宗教의 事實이  
오. 宗教의 事實의 中에 가장  
顯著한 遺物은 諸種의 石物  
이니 立石(石柱), 支石(고  
인돌), 瑞石, 廣石, 叢石, 『미  
력』, 華表, 石橋(집사대),  
水口(맥이), 『堂』(山人들)等으  
로부르는 것들이다. 그런데  
予의 踏驗을 依한것과 朝鮮  
에 잇는 巨石文化遺蹟의 系統  
의 研究의 便宜地는 全羅道요  
특히 그 北道요. 특히 彌勒山  
南面의 大野一帶요. 특히 益  
山郡一圓이 었다. 益山에서  
가장 人目을 놀래이 는것은  
諸種의 立石이 잇는 中에 『舊  
邑』(시방金馬面)의 前面에 잇  
는『人石』이런것一雙이 니  
는 自然石으로부러 人像化로轉  
入하는 期間을 代表하는 證物로

자 吳貴重한 價値를 가진 것이며  
이 人石의 一層轉化를 示한것  
이 石佛里僧舍의 後庭에 破  
倒되어 잇는 一大佛像石임을  
보았스며 國中第一이라는  
彌勒寺의 廢塔도 그 緣起는 大  
개 巨石文化遺意의  
佛敎의 傳承인 듯 하엿다. 南鮮  
에 잇는 稀罕한 支石(고인돌)  
의 實物이 또한 益山에 잇슴을  
予 昨夏의 踏驗時에 發見하  
니 臨盆水利組合貯水池에서 멀  
지아니한 林內而夢串里, 五  
相里中間의 松林內에 잇는 데  
서 방은 어느 無理한 營墓者의  
犧牲이 되여 『고인돌』은 그 머로  
墓室이 되고 蓋石은 四五片에  
裂破되어 그 前面에 抛出되었  
스나 오히려 古意와 古度를 더  
들음만 하엿다.  
(破毀된지가 約二十年을 넘을  
住民에게 들었다.) 이 려케 巨石  
文化의 가진 標本이 益山一境에  
모를부는듯함은 彌勒山을 등진  
益山의 여러코오래고 큰 神都임  
을 가장 雄且 確하게 知어 약이 하  
는 것이이다. 그런데 이 諸種石物  
의 總名代表名이 『石』이오도  
그것이 原始『人』行修去上의 嬰  
素임을 생각하야 彌勒山이 亦  
一 仙山임을 認알것이다.

# 壇君論

(六八)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六八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二)

【高麗史卷五十六、地理志二】

江華：有摩利山(在府南、山頂有塹星壇、世傳檀君祭天壇)、傳燈山(一名三郎城、世傳檀君使三子築之)。

【輿地勝覽卷之十二、江華、祠壇】塹城壇、在摩尼山頂、累石築之、壇高十尺、上方下圓、各十五尺、世傳檀君祭天處、本朝仍前朝之舊、醮星于此、祠下有齋宮、我太宗潛邸時、爲代言齋宿于此。○李穡詩：『茂陵何事苦求仙、祇是蓬萊亦或然、山與雲浮自無際、風吹船去莫能前、金人一滿盤中露、青鳥孤飛海上天、何似塹城修望秋、坐

難以固守、五月命營假關於三郎城及神泥洞、神泥洞、今不詳何處、仙源里有神智洞、無或是歟。

【同、卷上、建置沿革】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領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稱爲郡、江都沁都之號本此。

【崔滋三都賦】：大夫曰二客豈亦曾聞江都之事乎、略舉一緒、揚播而譏、夫東海之大、凡九江八河、吞若一芥、蕩雲沃日、淘河澎湃、中有華山、金龜屹戴、滌浚葉拋、渚畔枝附、麗其枝葉而沙散葦布者、江商海賈、漁翁鹽叟之編戶也。

神岳藥開、靈丘葛棒、架其藥蔓而登飛鳥簞者、皇居帝室公卿士庶之列棟也、內據摩尼穴口之重匝、外界東津白馬之四塞、出入之誰何則卬華關其東、賓客之送迎則楓浦館其北、兩華爲闕、二嶂爲橋、眞天地之奧區也。

十洲之三島、蓬瀛이 나하는 것

【同、卷上、建置沿革】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領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稱爲郡、江都沁都之號本此。

【同、卷上、建置沿革】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領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稱爲郡、江都沁都之號本此。

【崔滋三都賦】：大夫曰二客豈亦曾聞江都之事乎、略舉一緒、揚播而譏、夫東海之大、凡九江八河、吞若一芥、蕩雲沃日、淘河澎湃、中有華山、金龜屹戴、滌浚葉拋、渚畔枝附、麗其枝葉而沙散葦布者、江商海賈、漁翁鹽叟之編戶也。

神岳藥開、靈丘葛棒、架其藥蔓而登飛鳥簞者、皇居帝室公卿士庶之列棟也、內據摩尼穴口之重匝、外界東津白馬之四塞、出入之誰何則卬華關其東、賓客之送迎則楓浦館其北、兩華爲闕、二嶂爲橋、眞天地之奧區也。

十洲之三島、蓬瀛이 나하는 것

【同、卷上、建置沿革】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領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稱爲郡、江都沁都之號本此。

【同、卷上、建置沿革】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領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稱爲郡、江都沁都之號本此。

【崔滋三都賦】：大夫曰二客豈亦曾聞江都之事乎、略舉一緒、揚播而譏、夫東海之大、凡九江八河、吞若一芥、蕩雲沃日、淘河澎湃、中有華山、金龜屹戴、滌浚葉拋、渚畔枝附、麗其枝葉而沙散葦布者、江商海賈、漁翁鹽叟之編戶也。

神岳藥開、靈丘葛棒、架其藥蔓而登飛鳥簞者、皇居帝室公卿士庶之列棟也、內據摩尼穴口之重匝、外界東津白馬之四塞、出入之誰何則卬華關其東、賓客之送迎則楓浦館其北、兩華爲闕、二嶂爲橋、眞天地之奧區也。

十洲之三島、蓬瀛이 나하는 것

【同、卷上、建置沿革】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領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稱爲郡、江都沁都之號本此。

【同、卷上、建置沿革】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領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稱爲郡、江都沁都之號本此。

【崔滋三都賦】：大夫曰二客豈亦曾聞江都之事乎、略舉一緒、揚播而譏、夫東海之大、凡九江八河、吞若一芥、蕩雲沃日、淘河澎湃、中有華山、金龜屹戴、滌浚葉拋、渚畔枝附、麗其枝葉而沙散葦布者、江商海賈、漁翁鹽叟之編戶也。

神岳藥開、靈丘葛棒、架其藥蔓而登飛鳥簞者、皇居帝室公卿士庶之列棟也、內據摩尼穴口之重匝、外界東津白馬之四塞、出入之誰何則卬華關其東、賓客之送迎則楓浦館其北、兩華爲闕、二嶂爲橋、眞天地之奧區也。

十洲之三島、蓬瀛이 나하는 것

【同、卷上、建置沿革】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領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稱爲郡、江都沁都之號本此。

(此項未完)

# 壇君論

(六九)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六九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三)

(四十의續) 江華가이미이려 한神域이오 摩尼가이미이려 한仙嶽일진대 이局內에도무 론『술』行의遺痕이떠러키이지 아니치못할것이다. 그런데奇妙하게 그典型的名謂라할二郎城이란것이여기傳해오나三郎은무론『술』의對字요 壇君의三子云云은 望文附會의談일치름일것이다. 後에鼎足山城이라함도 대개『서보』二神邑의雅譯이러니 三郎과鼎足은 要한건대一語의兩形이다. 城의所在는寺로因하여傳燈山으로일컫지마는 그南

의主山에는吉祥의名이잇스니 吉祥은말시어山의原名으로他處의聖호仙字에當함일것이오 (輿覽)에 『傳燈寺在吉祥山』으로見함) 에 둘러잇는西南村 (東) 西頭里(北) 船頭浦(西) 와乃至 溫水里等地名이 一偶然한아닐것이다 (五萬分一地圖 金浦 溫水里及江華府志坊里條參照)。 이밖게 도大하게는全島를沈으로稱함과 小하게는要部에仙源이란 일흥잇습이 다본대『술』語彙에屬함일지도모를것이다。(江華府志)에 禪源寺在仙源里 麗高王時崔瑤建 極其宏麗 所謂半千禪窟是也 改禪爲仙 仍爲地名 不知自何世 然하니

仙源의名이禪源寺에서來하였 습은그러나와寺名을하필禪源이라한그原山을한변생각해 볼것이다。

江華府志(卷上 佛宇)를據 하건대『天齋庵 在摩尼北麓 高麗時我太宗以代言 行祭摩尼 於此齋宿云』이라하였스니 이는正히曹溪山에잇는神降齋場의古位置를占한闕若에天子庵이란일흥이잇습하고名與實 이다 잘符合함을보는것이오 (尋春巡禮二二六一七頁參照) 또그一般的比較位置로말하면 智異山天王峯에對한香積寺 法界寺와 (頭流全志卷下梵天總表參照) 妙香山毘盧峰에對 한 上毘盧庵等으로 더부러 (妙香異蹟參照) 同一한班列에 立하는것이다. 足히彥星壇乃 至摩尼山の古義를探한는一助 로삼을것이다。

은鳳天山과한가지로 또한江華의宗敎的地位를暗示하는一端이라할것이오 昇天浦에堂山里의一名이잇고 鳳天山下에角谷이란里名이잇습을여기參量할것이다。(江華府志卷上山川) 『鳳頭山 在府治北二十里 或稱河陰 山上有方臺石築 古河陰縣在其下』라한것을 五萬分一地圖에鳳天山으로出하였다. 鳳天 鳳頭는다奉天의轉化로볼것이오 方臺石築은그古祭壇일가한다。(松京)으로부러江華에이르는路次인豐德에는 高麗의右蘇인白馬山 巫堂의降靈地인德積山 三聖堂山 堂頭山等神山及神祠가叢集하여잇고 隨하여差風即古『仙風』의中心道場이되는것이 대개江華라는神域仙區를控함에生진일이러니 江華府志에府의風俗을記호대 특히信鬼好巫를記著함이山來의면일것이다。(河陰)은高句麗名으로芽音 혹冬晉奈라하니그『삼』의稱을帶함에注意할것이오 (輿覽)에河

陰城山即鳳頭山에 河陰神祠잇습을적었다。

(四一) 域內의名山에는어떠한形式으로든지仙人說話의얼마식을傳하니 이것이뒤에는흔히中國流의神仙으로變脫하였스되 가만히條理를차키보면 대개는古『삼』道의餘韻임을尋釋할것이다. 그런데그對象인聖母가어느새엔지女仙으로化하고 一轉하여는玉女란것이 되어 그痕跡을峯巒의名謂에멍들러스며 일변으로는男性化도하고佛敎化도하여 遊仙降仙 天仙 金仙等許多한轉滋를어였다. 더욱奇妙한것은玉女傳說이잇는곳에는將軍傳說이달하니는것이니 顯著한例證을들면順天曹溪山의그것과 寧邊妙香山의그것 등이에當하는것이오 이將軍의本地는또한大을意味하는一古語의轉變으로 仙과한가지그神岳이잇습을나타내는일흥이 다. 뒤에좀자세히論及할機會가잇다. (尋春巡禮二二七頁參照)

# 壇君論

(七〇)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七〇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四)

(四二) 古代人들은 그 "남" 혹은 "남"의方面으로서 항상天과山과를關聯해 생각하였스니, 高天이山中에 在하다하기도 하고 (日知錄卷一, 天在山中條) 張洪注列子曰, 自地以上皆天也, 故曰天在山中" 高天岳의根原이天上에存하다 하기도 하고 (日本風土記) 天山有山, 分而墮地, 一片爲伊豫之天山, 一片爲大和國之香山" 其他種種으로天與山의連絡, 交通을말함 이거의世界의通例이다. 宇宙를宮殿으로보아서 山岳을그

一構成物이라할때에 峙재峻極한峰巒을天地의支柱로생각하는風의생기나中國으로만보아도山岳의朝宗이崑崙을비로부러天中柱로널렸고 岳무릇高山의讚辭에특하면天柱를내외옹가름이다그것이다.

【神異經, 中荒經】崑崙之山, 有銅柱焉, 其高入天, 所謂天柱也 圍三千里, 周圍如削, 下有回屋方百丈, 仙人九府治之, 上有大鳥名曰希有, 南向張左翼, 覆東王公, 右翼覆西王母, 背上小處無羽一萬九千里, 西王母歲登翼上, 會東王公也...

一列子, 湯問... 共工氏與顓頊爭爲帝, 怒而觸不周之山, 折

天柱絕地維, 故天傾西北, 日月星辰就焉, 地不滿東南, 故百川水潦歸焉...

【淵鑑類函所引, 龍魚河圖】崑崙山, 天中柱也.

(四二) 여려한民族에 든자진작부러人間에對한天上界의存在를信하여 그交通은대개高山峻峰을經山하는줄로생각하니中國을불지라도 崑崙宗敎的對象이된最高靈山一崑崙山, 泰山, 嵩山等에서 山頂으로이르는좁은목을天門이라일컫름이이런類요 震域과가치山岳敎로の特殊한發達을遂한곳에는 이傾向이 一層의鮮明을나타내게되었다.

(佩文韻府所引, 楊炯少 姚掄碑) 崑崙西北之地, 天門也, 則五帝處其陽陸, 三王居其正地.

(同, 泰山志) 盤道屈曲而上, 凡五十餘盤, 經小天門, 大天門, 仰視天門, 如從穴中視天, 窳矣

【同, 宋之問 嵩山天門歌】登天門兮坐磐石之礪礪. (其他同

書天門條所引各項參照)

(四四) 昇天의路次이며 階梯라고도생각하니 王逸九思의

「緣天梯兮北上, 登太乙兮玉臺」란等이그것이다. (仙梯, 玉梯, 雲梯, 丹霞梯等은다그類語임이母論이다). 東明聖王과九梯宮과朝天을聯關하여參量할것이다.

(四五) 震域의古敎는 太陽으로勿宇宙의大主宰라하여 最高의尊仰을그에게바치었음은下文에詳及할것이다. 小하게는各人各家에서朔望夕朝의禮拜를하고大하게는一國의主上이元旦에大祀를舉行한것은文籍에도을바이다.

【隋書東夷傳, 新羅】 每正月且相賀, 王設宴會班賚群官, 其日拜日月神, 至八月十五日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北史列傳第八十二, 新羅】 每月且相賀, 王設宴會班賚軍官, 其日拜日月神主, 八月十五日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

【舊唐書東夷傳, 高麗】 其俗多淫祀, 事靈星神, 日神, 可汗神, 箕子神, 國城東有大穴, 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 【同, 新羅】 重元日, 相慶賀燕饗, 每以其日拜月神, 又重八月十五日, 設樂飲宴, 賚群臣射其庭.

【唐書東夷傳, 高麗】 俗多淫祠, 祀靈星及日, 箕子可汗等神, 國左有大穴, 曰神隧, 每十月王皆自祭.

【同, 新羅】 好祠山神, 八月望日大宴, 賚官吏射, ... 元日相慶, 是日拜日月神.

【宋史外國傳, 高麗】 ... 歲以建子月祭天, 國東有穴, 號歲神, 常以十月望日迎祭, 謂之八關齋, 禮儀甚盛, 王與妃嬪登樓大張樂宴飲, 賈人曳羅爲幕, 至百疋相聯, 以示富, 三歲大祭祠, 遍其封內, 因是歛民財而王與諸臣分取之.

【震域의古邦은다日을天으로祭하고 日로勿始祖를祀았스니 史에보이는郊禮와始祖廟에關한記事를 그대로拜日을傳함으로볼것이다. 此에關하여는三國史記禮志를보라

# 壇君論

(七)

## 朝鮮을中心으로한

##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七一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五)

(四六) 民俗學의示하는바에  
依하면 太陽崇拜는石器時代  
에잇는世界的傾向이오 또그  
外以來로原始信仰의主軸비스  
를이되엇었다. 이것이種種  
의宗教儀式이되어出現한中에  
『삼국사』人古英住民間에行한  
Dance가은것은그顯著한  
者라하는것이니 巨石을뚝키  
도하고 土壇을모으기도하고  
서 그우에서소사오르는旭日  
을禮拜하였었다. 이儀俗은凶  
奴로半島로倭에이르는동안에  
도行한모양인데 어는學者는  
朝鮮의掌山(동북지역의 造塔)

을그禮式場으로擬하였다. (西  
村眞次『大和時代』一一二頁  
四四一頁本文及其箋注).  
스미드 Elliot Smith 教授의太  
陽巨石複合文化Heliolithocon  
ture-complex(太陽崇拜와巨  
石紀念物建造를中心으로한複  
雜한文化)에關한學說——그  
埃及一元說가은것이얼는學界  
에認容되지아나함은 當然하  
지마는(便宜上, 西田已四郎  
人類學概論一四〇頁參照)우  
리는줄잡아도亞細亞一圓의太  
陽巨石複合文化에는 오란一  
大中心과背景이잇서 四方으  
로分布하는出發點及動機를지  
어는을信認하고 이속에種種  
의秘機를더듬으려하는者이다

太陽崇拜와 巨石建造가외로부  
러다넘은 東方의古民衆에외  
도마찬가지이엇슴은 史라운  
(Bevron) 氏等の報告로외  
알게된일이어니와 이兩者의  
關係와 또그眞의한意義는朝  
鮮의그것을 研覈함으로외비  
로소 審明될것이다. 堂山이  
란것도 西村氏의생각한것가  
은單純한것은아니지마는 여  
하간蒙古의鄂博에比할一種의  
堂山石堆에도拜日의影像을認  
하지못할것은아니며進하여立  
石, 人物, 支石等을講究함으로  
外이民族의사이에되러키잇는  
이文化의鮮명한色彩를볼것이  
다그러나一堆혹一柱의石보담  
피著大한拜日의聖壇이우리에  
게잇스니그것은山全體, 峯頭  
一圓을舉하여禮日의壇場으로  
은자취가분명하러려움이다.  
만흔聖山群의中에『술』의名을  
帶하고 만흔聖山名의中『술』  
의稱을兼한者들은 要하건대  
字義上으로보아서 太陽을稱  
朝日에關係되는者임이분명한  
것이다. 震域中神山의名號는

거칠로다 太陽語彙의中에서나  
왔지마는 거의動靜의二色이  
區別되니 이『술』은그動的의  
部에屬하는것이엇다. 어는  
山을『술』, 또그轉變인『소』으  
로부름의中에는 朝曦를因하  
야가장문키光明을맞고 日照  
를넘어서항상만히鮮麗를保하  
는地點이란意義가包含되어잇  
는것이니 이는실로神山의動  
的積極的方面으로 性德보담  
그威容을表하는것이다. 그런  
데『술』이란것은 凡物의새로  
워짐이오 밝아짐이오 暗黑  
과陰冷과恐怖와銷沈으로부러  
그對極으로移入함이니 이모  
든것은太陽을말미암아맞는바  
요 朝日을말미암아비릇하는  
바이엇다. 이恩寵과威力의主  
人인『하』, 『남』(又太陽)을한시  
가맛부게너다라한가워함에朝  
日의禮拜요 오늘도어케차렷  
다사하고편안하고배부름으로  
쳐우리를덤혀달라고 一日동  
안幸福의佚지를예려하는것이  
그朝日에게의祈願이엇다. 이  
至情을발도등발도등하야表白

하러하는것이 돌이라도모아  
놓는것이오 壇이라도다스고  
리올라가는것이오 乃至一家  
一山을인류으로 提供하야그  
旺盛하는誠意를내어쓰드러한  
것이다. 이러하야此方神山의  
中에는『술』山이란一類가잇게  
된것이다.

이러한意味에基한朝日紙迎의  
儀는 各人혹一家長을말미암  
아서 門庭間에外簡便히例行  
도되었스려니와 혹은一部落  
一集團을代表로하는이가 部  
落的集團의特定地에서 定期  
的으로는團體的으로設行되거  
도하얏을것이다. 이것이좀더  
規度를늘리고 意義를높히고  
는常設機關의特定階級的制度  
로의成立을보것이『술』은이라  
特殊靈山과잇고特殊者의出現  
이엇을것이다. 이것이後에神  
이라 聖이라 仙이라 禪이라  
라하는稱을늘뒤집어쓰게되니  
謂의本地이며 또黃老流의仙  
法과雜糅하야 古義가甚히疑  
眩하야진그것이다.

# 壇君論 (七二)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 七二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六)

(四七) 仙家修養의 가장 原始的의 오호中心의 方法은 일

은바도引이라는 一種의 身體 鍛鍊이오 그中에서 根本的인 實踐方法은 呼吸調整의 運動 이니 이것이 服氣니(普書, 恬靜 寡欲 清虛 服氣)又, 常服氣, 一 氣于餘息, 鍊氣니(鮑照詩, 服 食鍊氣讀仙經), 胎息이니(漢 武內傳, 抱朴子), 踵息이니(莊 子) 하는 것들이오 出氣를 할 에도 呵, 呼, 吹, 噓, 嘯, 咽

의 六種이 있다 하도록 (雲笈 七籤) 細密한 內容의 分化外지 를 遂히 하스나 要한 건대 呼吸 均齊하게 함으로 생기는 心理 的 平靜과 生理的 和通等 效果 를 極度外지 擴大視하여 이 러케 氣血이 充足해지면 轉學와 長生의 理想的 境界가 그 압해의 슐리라고 想像하는 것일가 한다 이 端緒는 닐시 朝日 禮拜의 際에 여든 實際의 感得에 啓發된 것일 가 하노니 修鍊과 拜日과 의 關係 에 對하여 吾人은 여러 가지 興 味있는 指摘을 할 수 잇지 마는 아 직여지는 略하갓다.

【莊子, 刻意】 吹呬呼吸, 吐 故納新, 熊經鳥中, 爲壽而已 矣, 此道引之士, 養形之人, 彭祖壽考者之所好也. 【史記, 留侯世家】 良從入關 性多疾, 道引不食穀. 【同, 龜策傳】 行氣道引. 【神仙傳】 仙家有太陰鍊形之法 (其他種種鍊形의 方은 仙家에 外傳함이 잇스나 그것은 總히 簡單한 實行으로 부터 始初한 것 이오 야단스런 理論은 뒤에 차차 생겨갓다.) 【四八】 有礙有限한 人生에 對 하여 無礙無限한 狀態를 欣求 하되 外에서 止지 現實의 延 長으로의 그것을 생각함이 仙 道家의 特色이니 이 方法으로 提供된 것이 一은 消極的으로 自己를 改造함이오 又一은 積 極的으로 他界로 進入함이오 그 自己改造의 方法에도 自力他 力兩門이 잇쳐서 內丹이란 것 은 前者를 代表하고 外丹이란 것은 後者에 當하는 것이니데 그

네들은 이 種種의 方法이 能히 우리 有限의 生命을 無限外지 延長하고 有礙의 機能을 無礙로 轉換하리라고 생각하갓다. 일 은바 長生久視와 飛行自在와 白日昇天等 觀念及 傳說은 여러 種發生又 長成한 것이 었다, 그 러나 그 原始態를 窺히 보면 山 中이나 海上이라는 畧隔異한 處 所에서 의 虔禱한 生活로 지 좀 더 淸純한 生活를 體驗하야 보리 한 程度에 그치고 다시 그 冥출 कै어 보면 天主를 對象으로 하는 山岳神道의 實踐의 一方面에 不 外한 것이 었다. 【四九】 일은바 箕氏 朝鮮으로 부터 衛滿五朝에 亘한 幾百年間 은 半島와 大陸과 의 文化的 互相 牽引上으로 가장 興味있는 事 實을 多量으로 含存한 時期이다 그것은 漢土의 文物이 急潮와 가 치 半島로 浸漸함에 처한 그런 것 아니라 일변 半島에서 一段의 成長을 遂한 東胡의 文化가 每 알삼잇는 輸出을 大陸으로 行하

였슴으로 그러하니 戰國乃至 漢代에 잇는 中國의 文物이 특히 燕齊地方의 그것을 考察하는 데 는 아모것보단 半島方面과 의 이 關係를 無視하지 못할 것이 다 그中에서 尤顯著하고 尤重大 影響 中國人의 民族生活及 文 化內容에 傳及한 者는 震域【손】 道의 輸入傳播이니 한번 그것 이 精神의 假而下에 外物質의 利 慾을 計圖하기 에 聰明스러운 方 士란 階級의 손으로 朝廷과 의 結 聯이 생겨매 실로 燎原의 勢로 外 天下를 風靡하야 中國古來의 모 든 學派와 또 그 民間의 모든 信 仰을 包攝하면서 中國思想의 轉輸王인實을 收하갓다. 이러 케 半島로 外의 中國으로 移入된 文化의 자취를 窺힘은 中國文 化의 剖檢上 새로운 視野를 여듬 이오 東洋文化의 本質을 如實 하게 데미다 보는 새로운 秘孔이 라 할 것이 다. 平壤의 解氏가 殷 人箕子에 和同이 되고 이 東方 에 外에서 成立된 傳說이 中國으로

逆輸入되어 司馬遷의 史記에 信事로 登載外지 되고 山海 經以下 秦漢間의 小說類와 白虎通, 論衡等書에 東方의 傳說의 比較的한 採入된 것 등 은 다 文化觀上 尋常히 看過치 못 할 일들이 다. 【五十一】 老子의 「古之聖人」이 란 것보단 列子의 「神人」이 란 것이 具體的 內容을 가지고 列 子보단 도 莊子의 「神人」은 좀 더 幻怪한 想像를 附加하게 되어서 黃老家의 神人이란 것도 戰國以 來로 차차 具象의 傾向을 取하 게 되었지 마는 그러나 神仙이 란 것이 一種 獨特한 人格의 成立 을 遂하고 분명한 祭祀나 祈祝의 對象이 되어 宗教的 崇拜를 받 게 되기는 方士로 外代表를 삼 는 神仙家의 손에 單獨히 發達 된 것이니 中國에 잇는 仙道의 宗教의 成立과 神仙의 宗教的 欣求는 이 러케 東方으로 부터 들어온 新信仰의 推挽에 말미암 은 것이 었다.



# 壇君論 (七三)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七三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七)

(五一) 印度에서는 옛날에 무

吳宗教의 行者로 道行을 호의를 다 Rasi라 일컫는다. 이 네들은 神의 啓示를 마다시 吠陀를誦出 하고 神의 嘉納하는 讚頌을 짓고 神의 祭祀와 祈禱를 받음에 特殊한 能力이 있다 하야 神人의 媒介者로 一般의 崇敬을 받는다. 梨俱吠陀에 있는 七聖 (Saptarishi)가 聖인 것이다 (高楠, 木村兩氏, 印度哲學 宗教史 一八頁 五二頁 參照). 이 리한 聖者는 世俗을 얻고 深山에 들어 가와 苦難의 行을 다 가와 昇天의 果를 얻는 者임으로 後代의 漢譯佛典에는 大개 仙으로 別得 生理, 壽千萬歲, 休止深

山, 或大海島, 絕於人境, 斯亦輪廻妄想流轉, 不修三昧, 報盡還來, 散入諸趣. 巫무릇무는 方法으로 든지 神通力을 얻어 들다 仙이라 고 일컫는다. 【大日經疏六】持明仙者 是餘藥力等所成, 悉地持明仙者, 皆是專依咒術得悉地人, 直云諸仙者, 皆是闍陀事火之類, 勤修苦行, 成五通神仙. (五二) 古記의 字例를 보건대

의 손을 빌게 되었을 터인데 山岳中心의 固有 神道를 仙이라 함은 그네의 질거 서손 稱號이 있는 듯하니 大개 佛敎로 보아 正佛敎에 對한 婆羅門 비스등 한 點이 있기로 해서 이다. 일즉 부러 道敎가 行하지 안은 것도 아 디오. 新羅末부러는 그 記錄의 活動이 著顯함을 더하지 안은 것도 아 니로대. 日蓮 道敎人의 文史上 印述한 대개 種德하고 日蓮 國仙等 稱謂는 統一期 新羅 에 들면서 正작 成立하였스니 國道의 仙稱은 대개 佛敎徒에 게 서 비로 하였음으로 보아 서 크 게 어그리 지지 안을 가 한다. (五三) 東明王 篤注의 『漢神雀 三年壬戌歲, 天帝遣夫子, 降遊 扶餘王故都, 號解慕漱, 從天 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鶴, 彩雲浮於上, 音樂 動雲中, 止憇心山, 經十餘日 始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 光之劍, 朝則聽事, 暮則升天, 世謂之天王郎』이라 함에 서 어 더케 列仙傳의 因을 들 것이다. (五四) 東明聖王은 비로 부러

口碑에 仙人으로 傳하기도 하 야. 種種의 神異를 勇說하니 大城山 鹿足夫人의 說話에 仙人으로 參入되었고. 海東 異蹟, 震雲續考等 類書가 正 道流門中에 그 因을 들거 두었 다. 生時에는 麒麟馬를 타고 天上으로 往來하면 서 天政에 干預한 것과 死際에는 『忽本東 國, 黃龍負昇天』한 것을 曰仙 跡으로 傳하는 것이다. (五五) 【崔滋三都賦】西 都之 創先也, 帝號東明, 降自九 玄, 乃眷下土, 此維宅焉, 匪基 匪築, 化城屹然, 乘五龍車, 上 天下天, 導以百神, 從以列仙, 熊然遇女, 來往翩翩, 江心有石 曰朝天臺, 祝兮盤陀, 忽焉蜂蟻 惟帝時升, 神馭徘徊, 靈祇所 宅, 平壤其祠, 呼叱風伯, 指揮 雨師, 怒則白日霹靂, 木石交 飛, 又有木寬, 稼穡是司, 不耕 而禾, 積如京抵, 陸公庇私, 介 以形穢. (東文選二)

涉有蓬瀛之况, 規模同錦洛之 儀. (東文選一百四) 【唐阜, 東明王詞詩】東明雄三 韓, 仙逝世代久, 叢祠在西京, 有人醉雞酒. 【金克己, 九梯宮詩】層樓廣殿 翠微中, 千里江山一望通, 碧 落仙歸人不見, 蕭蕭松栢自生 風. 【同, 權近詩】翠翠峰神控大邦, 芙蓉一朵挿長江, 九梯宮廢尋 遺址, 萬歲歌傳調舊腔, 山海 縱觀遊目遠, 雲霞高步寸心降, 綽然白日登仙境, 定是人間未 有雙. 【金克己, 麒麟窟詩】朱蒙駕馭 欲朝眞, 嶺半金塘養玉麟, 忽 墮寶轡終不返, 梯宮誰復上秋 旻. 【同, 權近詩】山前窟穴最深幽, 問道眞人昔此留, 麒麟自馴大 上至, 鬼神爲導地中遊, 冥冥 有路通仙府, 涉涉無蹤絕俗流, 語怪縱然非聖道, 題詩聊紀所 傳由. 【唐阜, 朝天石詩】人仙馬亦 仙, 水去石不去, 至今馬迹存, 父老指遺處.

佛典에서 仙이라 하면 婆羅 門敎徒의 高德을 가르키는 말 이니 雲山의 前峯인 香山에 는 五萬三千의 仙이 있다 하 고 大孔雀嚴王經에는 六十 八大仙을 擧하고 其他名山幽 林에는 반드시 仙人有緣의 說 話를 傳하였다. 그러나 佛을 得 道者及 長壽不死者라 하야 正 仙이라 稱하고 (讚禮阿彌 陀文) 仙中의 最尊上者라 하야 特히 大仙이라 稱하기도 함은 (名義集) 여러 論著에 보인 것과 이다. 【楞嚴經八, 五助道分, 仙樹】 阿難復有從人, 不依正覺, 修 三摩地, 別修妄念, 存想樹形 遊山林人不及處, 有十種仙, 此等皆於人中鍊心, 不修正覺 別得生理, 壽千萬歲, 休止深

山, 或大海島, 絕於人境, 斯亦輪廻妄想流轉, 不修三昧, 報盡還來, 散入諸趣. 巫무릇무는 方法으로 든지 神通力을 얻어 들다 仙이라 고 일컫는다. 【大日經疏六】持明仙者 是餘藥力等所成, 悉地持明仙者, 皆是專依咒術得悉地人, 直云諸仙者, 皆是闍陀事火之類, 勤修苦行, 成五通神仙. (五二) 古記의 字例를 보건대

의 손을 빌게 되었을 터인데 山岳中心의 固有 神道를 仙이라 함은 그네의 質거 서손 稱號이 있는 듯하니 大개 佛敎로 보아 正佛敎에 對한 婆羅門 비스등 한 點이 있기로 해서 이다. 일즉 부러 道敎가 行하지 안은 것도 아 디오. 新羅末부러는 그 記錄의 活動이 著顯함을 더하지 안은 것도 아 니로대. 日蓮 道敎人의 文史上 印述한 대개 種德하고 日蓮 國仙等 稱謂는 統一期 新羅 에 들면서 正작 成立하였스니 國道의 仙稱은 대개 佛敎徒에 게 서 비로 하였음으로 보아 서 크 게 어그리 지지 안을 가 한다. (五三) 東明王 篤注의 『漢神雀 三年壬戌歲, 天帝遣夫子, 降遊 扶餘王故都, 號解慕漱, 從天 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鶴, 彩雲浮於上, 音樂 動雲中, 止憇心山, 經十餘日 始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 光之劍, 朝則聽事, 暮則升天, 世謂之天王郎』이라 함에 서 어 더케 列仙傳의 因을 들 것이다. (五四) 東明聖王은 비로 부러

口碑에 仙人으로 傳하기도 하 야. 種種의 神異를 勇說하니 大城山 鹿足夫人의 說話에 仙人으로 參入되었고. 海東 異蹟, 震雲續考等 類書가 正 道流門中에 그 因을 들거 두었 다. 生時에는 麒麟馬를 타고 天上으로 往來하면 서 天政에 干預한 것과 死際에는 『忽本東 國, 黃龍負昇天』한 것을 曰仙 跡으로 傳하는 것이다. (五五) 【崔滋三都賦】西 都之 創先也, 帝號東明, 降自九 玄, 乃眷下土, 此維宅焉, 匪基 匪築, 化城屹然, 乘五龍車, 上 天下天, 導以百神, 從以列仙, 熊然遇女, 來往翩翩, 江心有石 曰朝天臺, 祝兮盤陀, 忽焉蜂蟻 惟帝時升, 神馭徘徊, 靈祇所 宅, 平壤其祠, 呼叱風伯, 指揮 雨師, 怒則白日霹靂, 木石交 飛, 又有木寬, 稼穡是司, 不耕 而禾, 積如京抵, 陸公庇私, 介 以形穢. (東文選二)

涉有蓬瀛之况, 規模同錦洛之 儀. (東文選一百四) 【唐阜, 東明王詞詩】東明雄三 韓, 仙逝世代久, 叢祠在西京, 有人醉雞酒. 【金克己, 九梯宮詩】層樓廣殿 翠微中, 千里江山一望通, 碧 落仙歸人不見, 蕭蕭松栢自生 風. 【同, 權近詩】翠翠峰神控大邦, 芙蓉一朵挿長江, 九梯宮廢尋 遺址, 萬歲歌傳調舊腔, 山海 縱觀遊目遠, 雲霞高步寸心降, 綽然白日登仙境, 定是人間未 有雙. 【金克己, 麒麟窟詩】朱蒙駕馭 欲朝眞, 嶺半金塘養玉麟, 忽 墮寶轡終不返, 梯宮誰復上秋 旻. 【同, 權近詩】山前窟穴最深幽, 問道眞人昔此留, 麒麟自馴大 上至, 鬼神爲導地中遊, 冥冥 有路通仙府, 涉涉無蹤絕俗流, 語怪縱然非聖道, 題詩聊紀所 傳由. 【唐阜, 朝天石詩】人仙馬亦 仙, 水去石不去, 至今馬迹存, 父老指遺處.

涉有蓬瀛之况, 規模同錦洛之 儀. (東文選一百四) 【唐阜, 東明王詞詩】東明雄三 韓, 仙逝世代久, 叢祠在西京, 有人醉雞酒. 【金克己, 九梯宮詩】層樓廣殿 翠微中, 千里江山一望通, 碧 落仙歸人不見, 蕭蕭松栢自生 風. 【同, 權近詩】翠翠峰神控大邦, 芙蓉一朵挿長江, 九梯宮廢尋 遺址, 萬歲歌傳調舊腔, 山海 縱觀遊目遠, 雲霞高步寸心降, 綽然白日登仙境, 定是人間未 有雙. 【金克己, 麒麟窟詩】朱蒙駕馭 欲朝眞, 嶺半金塘養玉麟, 忽 墮寶轡終不返, 梯宮誰復上秋 旻. 【同, 權近詩】山前窟穴最深幽, 問道眞人昔此留, 麒麟自馴大 上至, 鬼神爲導地中遊, 冥冥 有路通仙府, 涉涉無蹤絕俗流, 語怪縱然非聖道, 題詩聊紀所 傳由. 【唐阜, 朝天石詩】人仙馬亦 仙, 水去石不去, 至今馬迹存, 父老指遺處.

佛典에서 仙이라 하면 婆羅 門敎徒의 高德을 가르키는 말 이니 雲山의 前峯인 香山에 는 五萬三千의 仙이 있다 하 고 大孔雀嚴王經에는 六十 八大仙을 擧하고 其他名山幽 林에는 반드시 仙人有緣의 說 話를 傳하였다. 그러나 佛을 得 道者及 長壽不死者라 하야 正 仙이라 稱하고 (讚禮阿彌 陀文) 仙中의 最尊上者라 하야 特히 大仙이라 稱하기도 함은 (名義集) 여러 論著에 보인 것과 이다. 【楞嚴經八, 五助道分, 仙樹】 阿難復有從人, 不依正覺, 修 三摩地, 別修妄念, 存想樹形 遊山林人不及處, 有十種仙, 此等皆於人中鍊心, 不修正覺 別得生理, 壽千萬歲, 休止深

口碑에 仙人으로 傳하기도 하 야. 種種의 神異를 勇說하니 大城山 鹿足夫人의 說話에 仙人으로 參入되었고. 海東 異蹟, 震雲續考等 類書가 正 道流門中에 그 因을 들거 두었 다. 生時에는 麒麟馬를 타고 天上으로 往來하면 서 天政에 干預한 것과 死際에는 『忽本東 國, 黃龍負昇天』한 것을 曰仙 跡으로 傳하는 것이다. (五五) 【崔滋三都賦】西 都之 創先也, 帝號東明, 降自九 玄, 乃眷下土, 此維宅焉, 匪基 匪築, 化城屹然, 乘五龍車, 上 天下天, 導以百神, 從以列仙, 熊然遇女, 來往翩翩, 江心有石 曰朝天臺, 祝兮盤陀, 忽焉蜂蟻 惟帝時升, 神馭徘徊, 靈祇所 宅, 平壤其祠, 呼叱風伯, 指揮 雨師, 怒則白日霹靂, 木石交 飛, 又有木寬, 稼穡是司, 不耕 而禾, 積如京抵, 陸公庇私, 介 以形穢. (東文選二)

涉有蓬瀛之况, 規模同錦洛之 儀. (東文選一百四) 【唐阜, 東明王詞詩】東明雄三 韓, 仙逝世代久, 叢祠在西京, 有人醉雞酒. 【金克己, 九梯宮詩】層樓廣殿 翠微中, 千里江山一望通, 碧 落仙歸人不見, 蕭蕭松栢自生 風. 【同, 權近詩】翠翠峰神控大邦, 芙蓉一朵挿長江, 九梯宮廢尋 遺址, 萬歲歌傳調舊腔, 山海 縱觀遊目遠, 雲霞高步寸心降, 綽然白日登仙境, 定是人間未 有雙. 【金克己, 麒麟窟詩】朱蒙駕馭 欲朝眞, 嶺半金塘養玉麟, 忽 墮寶轡終不返, 梯宮誰復上秋 旻. 【同, 權近詩】山前窟穴最深幽, 問道眞人昔此留, 麒麟自馴大 上至, 鬼神爲導地中遊, 冥冥 有路通仙府, 涉涉無蹤絕俗流, 語怪縱然非聖道, 題詩聊紀所 傳由. 【唐阜, 朝天石詩】人仙馬亦 仙, 水去石不去, 至今馬迹存, 父老指遺處.

涉有蓬瀛之况, 規模同錦洛之 儀. (東文選一百四) 【唐阜, 東明王詞詩】東明雄三 韓, 仙逝世代久, 叢祠在西京, 有人醉雞酒. 【金克己, 九梯宮詩】層樓廣殿 翠微中, 千里江山一望通, 碧 落仙歸人不見, 蕭蕭松栢自生 風. 【同, 權近詩】翠翠峰神控大邦, 芙蓉一朵挿長江, 九梯宮廢尋 遺址, 萬歲歌傳調舊腔, 山海 縱觀遊目遠, 雲霞高步寸心降, 綽然白日登仙境, 定是人間未 有雙. 【金克己, 麒麟窟詩】朱蒙駕馭 欲朝眞, 嶺半金塘養玉麟, 忽 墮寶轡終不返, 梯宮誰復上秋 旻. 【同, 權近詩】山前窟穴最深幽, 問道眞人昔此留, 麒麟自馴大 上至, 鬼神爲導地中遊, 冥冥 有路通仙府, 涉涉無蹤絕俗流, 語怪縱然非聖道, 題詩聊紀所 傳由. 【唐阜, 朝天石詩】人仙馬亦 仙, 水去石不去, 至今馬迹存, 父老指遺處.

涉有蓬瀛之况, 規模同錦洛之 儀. (東文選一百四) 【唐阜, 東明王詞詩】東明雄三 韓, 仙逝世代久, 叢祠在西京, 有人醉雞酒. 【金克己, 九梯宮詩】層樓廣殿 翠微中, 千里江山一望通, 碧 落仙歸人不見, 蕭蕭松栢自生 風. 【同, 權近詩】翠翠峰神控大邦, 芙蓉一朵挿長江, 九梯宮廢尋 遺址, 萬歲歌傳調舊腔, 山海 縱觀遊目遠, 雲霞高步寸心降, 綽然白日登仙境, 定是人間未 有雙. 【金克己, 麒麟窟詩】朱蒙駕馭 欲朝眞, 嶺半金塘養玉麟, 忽 墮寶轡終不返, 梯宮誰復上秋 旻. 【同, 權近詩】山前窟穴最深幽, 問道眞人昔此留, 麒麟自馴大 上至, 鬼神爲導地中遊, 冥冥 有路通仙府, 涉涉無蹤絕俗流, 語怪縱然非聖道, 題詩聊紀所 傳由. 【唐阜, 朝天石詩】人仙馬亦 仙, 水去石不去, 至今馬迹存, 父老指遺處.

# 壇君論

(七四)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七四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八)

(五六) 【東國通鑑卷之二十二  
高麗仁宗九年】 遣內侍李仲宇  
樂西京林原宮城、置八聖堂于  
宮中、一曰護國白頭嶽大白仙  
人、實德文殊師利菩薩、二曰  
龍圍嶽六通尊者、實德釋迦佛  
三曰月城嶽天仙、實德大辨天  
神、四曰駒麗平壤仙人、實德  
燃燈佛、五曰駒麗木覓仙人、  
實德毗婆尸佛、六曰松嶽震主  
居士、實德金剛索菩薩、七曰  
飯坂嶽神人、實德勸叉天王、  
八曰頭嶽天女、實德不動優婆  
夷、皆繪像、從妙清妖說也、  
金安仲字知常等、以爲聖人之

法、利國延基之術。(木覓仙  
人)은崔滋의三都賦에依하여農  
業神임을알것이오 平壤仙人  
은東明을가르침이의심업스니  
이일은바八仙이란필시八關의  
란말과도關係가잇는것으로當  
時民間信仰의代表的인者를尋  
은것이오決코함부로變虛한것  
아니다。

(五七) 【輿地勝覽卷二十九、  
高靈縣、建置沿革注】 按崔致  
遠釋利貞傳、伽伽山神正見母  
主、乃爲天神夷毘訶之所感、  
生大伽伽王惱宰朱日、金官國  
王惱宰青裔二人、則惱宰朱日  
爲伊珍阿鼓王之別稱、青裔爲  
首露王之別稱、與羅洛國古記  
六卯之說、俱荒誕不可信。

(五八) 【朝鮮佛教通史下編、  
巫女賽神扇舞三佛條所引】 巫  
女賽神之時、手搖金鈴、又持  
彩扇、扇畫三佛、旋旋作舞、  
而時唱佛號、亦呼法雨和尚者  
蓋有所自出、世傳智異山、古  
嚴泉寺、有法祐和尚者、頗有  
道行、一日閑居、忽見山澗不  
雨而漲、尋其來源、至天王峯  
頂、見一長身大力之女、自言  
聖母大王、謫降人間、與君有  
緣、適用水術以自娛耳、遂爲  
夫婦、構屋居之、生下八女、  
子孫繁衍、教以巫術、搖金鈴  
舞彩扇、唱阿彌陀佛、呼法祐  
和尚、行於坊曲、以爲巫業云  
云、故世之大巫、必一至智異  
山頂、賽祝而接神。(이)는聖母  
의開山說話에種種의遊離分子  
가附着하고 또한敎的轉化  
를지낸것이니 그木地를다가  
보면法祐和尚이란 변시神人  
夷毘訶의類일것이다 嚴川은  
智異山中의本幹의大水로 그  
神水노릇하든者일것은(이)이  
란일흥에서도볼지니 嚴川은  
即聖母水의轉譯일것이오 嚴

川等은그神域을仍製한일것이  
다。予十年前에嚴川寺의遺跡  
을보고그傳說을參量하니 嚴  
川寺는智異山中의最大伽藍。  
로 山中首刹의權威를가침은  
듯한데이는필시오래背景이이  
슴에因하엿을것을認하였다。  
(五九) 【高麗史卷五十七地理  
志】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其  
古記云、大初無人物、三神人從  
地奔出、(其主山北麓、有穴曰  
毛輿、是其地也)、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三人  
遊獵荒僻、皮肉肉食、一日見紫  
泥封藏木函、浮至于東海濱、就  
而開之、函內又有石函、有一  
紅帶紫衣使者隨來、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  
種、乃曰我是日本國使也、吾子  
生此三女、云西海中嶽降神子  
三人、將欲開國而無配匹、於  
是命臣侍三女以來、爾宜作配  
以成大業、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就泉甘土  
肥處、射矢卜地、良乙那所居  
曰第一都、高乙那所居曰第二  
都、夫乙那所居曰第三都、始

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  
至十五代孫高原高淸昆弟三人  
造舟渡海、至于耽津、蓋新羅  
盛時也、于時客星見于南方、太  
史奏曰異國人來朝之象也、遂  
朝、新羅王嘉之、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二子曰王子  
(王令淸出跨下、愛如己子故名  
之)、季子曰都內、邑號曰耽羅  
蓋以時初泊耽津故也、各賜  
寶蓋衣帶而遣之、自此子孫蕃  
盛、敬事國家、以高爲星主、良  
爲王子、夫爲徒上、後又改良  
爲梁。(그首長을星主라고  
일키름에注意할것)。  
(六〇) 【三國遺事卷第一、駕洛  
國記】 王若曰朕欲定置京都  
仍駕幸假宮之南新番坪、四望  
山嶽、顧左右曰、此地狹少、如  
蓬萊、然而秀異、可爲十六羅  
漢住地、何況自一成三、自三  
成七、七聖住地、固合于是、  
托土開疆、終然允臧歟。  
【高麗史卷五十七、地理志、金  
州】 招賢臺、在州東、世傳駕  
洛國居登王、登此臺、招七點  
山岳始仙人、且始乘舟而來、因  
名焉。

# 壇君論

(七五)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七五 王險城神說의 檢覈 (四九)

(六一) 源花나花郎이니國仙이니하는것이 從來史牒에 적은것처럼 尋常한社交機關이 證選機關의中心人物에그치는것아니라 실상宗教의生偶像임은 崔致遠鸞郎碑序文의文意로勿히推摩할것이 다. 뒤에細及計겠다.

(六二) 高麗史, 毅宗二十二年的下教頒令에 一, 崇重佛專一, 歸敬沙門, 一, 保護三寶等과한가지 一, 遵尙仙風을 學하고 그理山을說하야가로 며 『昔新羅仙風大行, 山是龍天歡悅, 民物安寧, 故祖宗以來崇尙其風久矣, 近來兩京八關之會, 日減舊格, 遺風漸衰自今八關會, 預擇兩班家產儻足者, 定爲仙家, 依行古風,』

致使人天咸悅』이라한것처럼 仙으로外國敎의稱을삼음은 麗代文籍의常例이엇다

(六三) 지방開城地方에서는 門地잇는집안에서나오루당을 仙官이라하야 賤卑한出身者와區別하는風이잇는데 高麗史에도보면 貴家에서도巫人이나오고 宅主의號를어든이 外지잇다. 필시仙官은麗代에 잇서서巫에對한敬稱의一이엇을것이 다.

(六四) 지방巫祝의祭場은 神堂이라고하니 大개『승』의 轉訛일것이 다或晉이城隍에近함으로中國의土地神인그것에 比擬하나 中國의城隍은大개 그土地에功勞잇는사람을尊祀한임에對하야(琅玕代醉篇卷二十九參照) 朝鮮의성인은大개聖母의遺意일女神을崇奉한點에서 이미實質의混同하

지못할것을물것이다. 後世에 外巫巫祝의社會的低降과한가지로 『신앙』이란것도洞口水嶺路에 變변치아니한數間陋屋을지닐뿐에그칩스나 그본래는聖母中心의國家又村落的의鎮護神임이되二國遺事處處에보이는天神, 地神, 岳神, 川神과 지방日本民俗에고소란하남아잇는『鎮守神』가틀일것이다.(輿地勝覽處處에城隍神堂으로적은것도대개이러한古神廟일것이오 朝鮮語辭典에『신앙』은城隍의轉이라함은 또한不贅의言이다.)

(六五) 지방朝鮮의寺刹에서 神佛을通하야 가장敬畏하는 것이무엇이나하면 그것은獨聖이라하는一神格인데 正體에對하야는 지방外지首肯되는말이엿다. 혹天台山獨修禪定那畔尊者라고具書하는일이잇슴으로 天台智者를尊祀함이라하나 무론宗업은일이오 歲時名節에薦祭를베플면 大보담뒤지면神訓이잇서그리한다한다. 寺院에護伽藍神으로天神地祇를奉事함은大竺

以來의일이오(釋氏要覽卷上所引七佛經及卷下所引四分律의文參照) 이것이中國에와서는 더욱崇尙되어 關羽가그소임을갓게되고 특히天台上가든대는『地主山王元弼眞君』이란것을크게崇奉하고(倭僧成尋, 參天台五臺山記卷一) 이것이日本으로들어가서山王一實神道란것의濫觴을짓기外지하얏지마는 獨聖이니那畔尊者니하는佛天衆의名은 竺典漢籍아모대고보인것이엿다 우리의생각에는이獨聖이란것은 山本夢의主神으로 民衆의信奉을享受하든것이 佛法的道場이되면서 一谷屬으로攝收되고 그러나山主本然의地位가潛在性으로流傳하야 供獻祭享等에는最先席을占할일가하노니 獨聖의獨은 필시『은』의縮形으로 獨聖이라함은古의天神이란語를佛敎的으로澤寫할일가한다. 獨字를用하게됨은大개獨覺의獨道行者는 佛敎의獨覺即緣覺의類에屬하는것임이母論이다. 天台山云云이란其稱은그本地의天神인一端을偶然

히顯露함이오 那畔云云은그起原의渺邈함을表象할일것이 다. 日本에잇는山王이란것을보건대 元祖인比叡山의山王이란것은본래大山畔神이란該山本來의山神부러緣起하야國土神乃至山神의最上인大三輪神을進奉하게外지되었스니 그伽藍神으로同一한性質을 가진此方의獨聖이란것도 대개當時의通例에照하야 首長의山岳神의變形일듯키設想된다 어느道場에든지獨聖閣은大개域內의가장高淨한곳에오독히세우는것이通例임도參酌할일 일가한다.

지방寺院에山神과獨聖이并列對立한것은대개單히그土地神으로山을위함은山神이라고하게되고 天神으로그山에崇奉하였든것은 獨聖이란것이됨 일것이 나 山, 天不二의古敎義로보면 實상二而一일씨를인것이다. 조고만數椽屋이되여 梵宮의一隅에殘喘을僅保할망청 獨聖閣이란실상該山의專制主이든天神의佛敎에놀린뒤殘容임을생각하면그런대로古神道の殘存한遺物이라할 것이다.

# 壇君論

(七六)

## 朝鮮을 중심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七六 王險城神說의 檢覈 (五〇)

(六六) 東北亞細亞의 여러 民族의 間에 서는 神人의 媒介로 祈禱을 業하는 者을 『사만』이라 하니 『사만』은 滿洲語를 據한 건대 興奮하는 者, 挑發하는 者, 躍動하는 者, 引出하는 者의 義이며 漢譯에는 跳神이라 고 하였다. (世界聖典外纂, 三〇, シヤマン 教十二頁參照)

(六七) 同文類解卷下 寺觀類 (六八) 『上田, 松井, 大日本國語辭典』 사(七) (名) 『清庭』 (サ) 의 義 (一) 神降 (カミ) (ニハ) 의 義 (二) 神降 (オロシ) 을 行ふ 場。 記下 『居於沙庭 (サハ)』, 『請神之命』, 『神降 (七〇)』, 『封禪은 王者가 天地의』

의 場にて 神託의 事를 掌るもの。 神功紀 『喚中臣鳥, 賊津使主, 爲審神者(二八)』。

(六九) 日本의 神話를 據한 건대 天孫의 降臨할 時에 그를 國土로 引導한 者는 サルタヒコ (猿田彦)란 이이니 이 時에サルタヒ코를 應對한 天神인 우ツメ가 朝命에 依하여 サルの 名을 冒하고 그 後裔의 女子가 神祇官에 仕하여 世世로 神樂과 鎮魂과 大嘗祭御駕의 先導를 掌하게 되 었다 하얏다. (古事記上卷及山川氏神祇辭典三二八頁參照)。

(六九) 久米邦武, 訂正增補大日本時代史古代上, 一二〇頁及西村眞次, 大和時代三一〇頁參照。

(七〇) 封禪은 王者가 天地의

功을 報謝하는 典禮로 秦漢以來에 甚히 崇尚된 것이니 封이란 것은 泰山의 上에 土를 築하여 壇을 만들고 外天을 祭하는 것이오 禪이란 것은 泰山下小山上에 地를 除하여 山川(地)을 祭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우리 堂山의 風과 俗가 是것이니 山上에 베은 堂山이나 洞中神木의 前에 黃土를 築上하고 石을 安置한 堂山이나 常行封禪으로 볼 것이다. 封禪이 主하여 天을 祭함임과 東夷의 地인 泰山에서 行하게 되었 습고 東夷文化의 中國浸漸上 一時期를 測하는 秦漢의 際로 부러그 것이 國家의 으로 盛行하게 됨等은 다그 起源의 東夷의 義를 沒想케 하는 有力한 支柱이다. 이러한 封禪이 東夷의 古俗인 건대 그 名謂 부러가 그리로 外의 輸入이 잇는 것이다. (以下로 부러본 文에 挿入한 箋注番號가 錯誤되었스니 六二를 七〇으로 하여 順次로 訂正하여 보시옵소서)

(七二) 桓雄은 天王으로 神市를 베고 祭祀中心의 神政을

行한 이이니 이는 震域에 잇는 『술』은 起源의 說話요 古人은 仙이오 그 事는 禪이오 그 意는 神인 者이다. 神이나 仙이나 禪이나 祀나 그 本質乃 至 語源의 한 아에 잇는 것이다.

(七二) 『文獻通考卷三百四十二, 四裔考十九, 烏桓』 俗貴兵死, 有 哭故之哀, 至葬則歌舞相送, 肥養一犬, 以綵繡纓索, 並取死者所乘馬衣物, 皆燒而送之, 言以屬累犬, 使護死者神靈, 歸赤山, 赤山在遼東西北數千里, 如中國人死者, 魂神歸岱山也

(七三) 『三國志, 魏志卷三十 東夷傳, 辰韓』: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寰宇記』: 欲使死者神魂飛揚. (宇野, 赤松譯, 宗教史概論一九頁參照)

(七四) 『三國史記卷第十三, 高句麗本紀第一, 始祖東明聖王』 十九年: 秋九月, 王升遐, 葬龍山, 號東明聖王.

『好太王碑第一面』 惟昔始祖都牟王之創基也, 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永樂

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黃龍負升天. 『輿地勝覽卷之五十一, 中朝, 陵墓』 東明王墓, 在龍山, 俗號眞珠臺. ○世傳高句麗始祖, 常乘麒麟馬, 奉事天上, 年至四十, 遂昇天不返,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 號東明聖王

(七五) 『三國遺事卷第一, 新羅始祖』: 理國六十二年, 王升于天, 七日後, 遺體散落于地, 后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 有大蛇逐禁, 各葬五體爲五陵, 亦名她陵, 曼嚴寺北陵是也.

(七六) 山大一視의 思想으로 보면 入山은 升天과 같고 爲神은 登山에 比할 것이다. (七七) 後周書를 據한 건대 高句麗에 是 一對의 大神이 잇서 一을 夫餘神이라 함에 對하여 一을 登高라 고 한다 하얏다 하는데 北史에 是 登高를 高登으로 作하얏다. 登高나 高登의 何者가 是 하든지 그 것이 國語의 寫音일 것은 의심업거니와 高登字高字를 取함은 一變音과 한가지 義를 나타내려 함이다 른 것에서 外가 있을 것이다.

# 壇君論

(七七)

##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南善

### 七七 王險城神說의 檢覈 (五一)

(七八) 仙道の理論의淵源이 되는老子哲學에의외로 修養論의骨子가되는것은 宇宙의本體로合一하기를힘쓰이니 이것을還이니 反이니 復이니 歸니로불린다. 그래서學者의中에 老子의學을復歸道라고 일컫는이도있다. (高潮氏, 支那哲學史二二二頁以下參照).

【老子道德經卷上, 二十八章】知其雄守其雌,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知其白守其黑, 爲天下式, 爲天下式, 常德不忒, 復歸於無極, 知其榮守其辱,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樸收則爲器, 聖人用之則

爲官長故大制不割. 元이란것은道家에의외로本體를일컫는一語이니 發展仙道에의외로는 이元에對하여種種의修養論이생겨는데 還元이라하면 老子의復樸과다름없는意味를가진것이였다. (七九) 飛昇變化함이羽翼의生함과갓다하야 成仙을羽化라고일컫르니 晋書許邁傳의『自後莫測所終, 好道者, 皆謂羽化矣』라하는이이다. (八十) 【史記屈原傳】濯淖汚泥之中, 蟬蛻於濁穢, 以浮遊塵埃之外. 【曹植遊仙詩】人生不滿百, 戚戚少歡娛, 意慾奮六羽, 排霞凌紫虛, 蟬蛻同松喬, 翻跡登鼎湖, 翱翔九天上, 騁鸞遠行遊, 東觀扶桑暉, 西臨弱水流, 北極登元渚, 南翔

陟丹丘.

(八一) 【司馬相如大人賦】世有大人, 在乎中州, 宅彌萬里, 曾不足以少留, 惠世俗之迫隘, 揚輕舉而遠遊, 乘絳幡之素霓, 載雲氣而上浮. 【庚闡遊仙詩】三山羅如粟, 巨壑不容刀, 白龍騰子明, 朱鱗運琴高, 輕舉觀滄海, 眇邈去瀛洲, 玉泉出靈苑, 瓊草被神丘. 【江淹王子喬贊】子喬好輕舉, 不得鍊銀丹, 控鶴上竊窺, 學鳳對嶺岫, 山無一春草, 谷有千年蘭, 雲衣不躑躅, 龍駕何時還. (八二) 【六朝事迹】茅濂字初成, 華陽人也, 隱華山修道, 秦始皇二十一年, 白日上升. 【雲笈七籤】陽丹可以上升, 陰丹可以駐壽. (八三) 靈魂의觀念은原始人의 사이에도있었다. 이靈魂의住所혹未來의歸宿地를想像하여他界의(死後)의觀念이생기고여기倫理的價値가부게되매 他界는苦樂兩土로난호였다. 그리하여現世에外希願하면外滿足할機會를얻지못하든모든것을 未來의樂土에外獲得하기를생각하매 樂土欣求가마

출주宗教修行的의主要한目標가되었다. (前出宗教史概論第二章특히그第四節參照) 그런데樂土의方位는民俗과國土와時代思潮의 여러가지 條件을달라져 各異하는것인데 東西의모든民族은 上天으로外樂土의所在處라함이通例요 그進入하는 關門에對하여는 西方大陸과東方海上의兩系에난호인中에 後者는震域起原의思潮이였다. 이미天上으로外靈魂의故鄉乃至樂土의所在라하고 陸에서나海에서나山上을由하야 天門으로入한다 하매 此生과彼土와의聯絡方法은키질로『을라감』일맞게업슬것이다. 仙道の飛升登化의思想은 필시이러한原始觀念의轉化로生겼스리라함이우리의見解이다. (八四) 君과師에는義의相通함이잇슴은 『天佑下民作之君 作之師』(書)와 三公의首를 太師라함(書周官)과 地方의 最高官을 巫師라함(書益稷)과 太宰師(莊子篇名) 太初師(雲笈七籤에見한老子的太初時名)하등의 例로外

알것이오 다시그音原으로外 神聖仙上의類語임을 삼히기 어렵지안다. 師子를神力又巧藝잇는者의稱으로쓰고 禮하야 巫吳技術의方面에從事하는者의通稱이된것으로外 推하건대 師는 필시옛날神政時代에잇는 Magician의名謂이엇슬가한다. (雲師雨師의神名과 僊師, 師曠의人名과周禮에見한師子接尾의許多한官名等參量) 시방도中國俗語에 靈巫又術士를巫라고부르고 巫女와術士를 合稱하는말에 『師婆端公』이란成語가있다. (石山氏支那語 大辭彙六五三頁).

(八五) 【輟耕錄】世謂女巫曰 師娘, 都中及江南, 謂男巫亦爲師娘, 又謂覡巫, 楚語在男爲覡, 在女爲巫. (八六) 【山海經第十六, 大荒西經】大荒之中, 有山名曰崑崙玉門, 日月所出入, 有靈山巫咸, 巫即, 巫盼, 巫彭, 巫姑, 巫真, 巫禮, 巫抵, 巫謝, 巫羅十巫, 從此升降, 百藥安在. 【山海經第七, 海外西經】巫咸

國, 在女丑北, 右手操青蛇, 左手操赤蛇, 在登葆山, 群巫所從上下也. 【筆者로서 讀者에게】 처음에 壇君論은約四十回의預定으로 曲繼相仍의餘와 群疑轉滋之際에 文獻과民俗의兩方으로吾人立論의根據를示함이 또한 緊要할것을思하야 이리케煩碎와張皇을 무릅쓰게된것이 라 一般讀者의厭苦를살는지도모르되 壇君의 學的破顯과 合理的의護持가 엇더케吾人當面의 大事件임을생각하면多少原諒하심이잇스리라합니다. 이리白頭山參觀을爲하야앞호로暫時續論을停休치아나치못함은더욱罪悚한일이오나 聖蹟의踏驗은本論의上에도多少의새로운色味를期待할듯합니다. 王險城神說은아직人名으로의王儉에對한考察이남아사오며 이것이畢하면妙香山神說에對하여若干檢數를試하야 抹削論의餘量을마치고 비로소 本論에入하야 우리의見解를披靡하게됩니다.